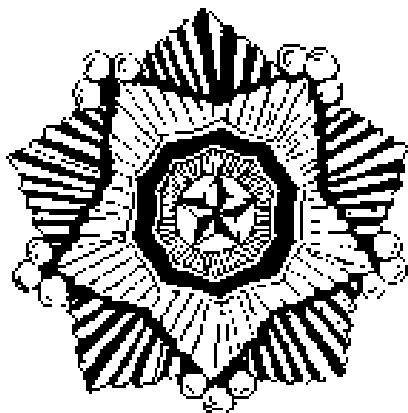




7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7호

(루계 제 753 호)

◇◇◇◇◇◇◇◇◇◇

차 례

◇◇◇◇◇◇◇◇◇◇

변이 나는 세월과 함께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금수산기념궁전의 고요	5
수령님 계시였어라 외 1 편	6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비날론이 간다	6
수령님과 함께 걸으신 길	7
주체문학의 대강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시가작품들	8
어머님의 축복	9

영생의 품	10
대륙만리의 강행군길이어	27
백두산을 안고 살자	27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무궁할 위인찬가	28
우리의 최고사령관	32
우리 수령님의 노래	33
시로 보내는 통고문	35
난파선 《리명박》호	35
그리움의 세계가 펼친 강렬한 서사시적화폭 36	
애국렬사묘앞에서	39
땅에도 숨결이 있다	39
병사의 어머니	40
어서 말을 떼세요	53
인사에 대한 생각	54
동북산야	55
《분화구》	56
맹세로 불타는 아침	57

옥양어머니	58
병사의 선언	68
삶의 보람	69
희천은 오늘의 1211 고지	74
항일무장투쟁현실을 반영하여 창작된 단편소설 《강교장》	75
완공의 그날엔	77
어머니에 대한 생각	78

변이 나는 세월과 함께

조 석 영

변이 난 내 조국에
7월이 왔어라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또다시 7월이 왔어라

꿈만 같아라
아버이수령님을 잃고
피눈물로 만수대언덕을 적시던 그날부터
벌써 열여섯해 세월이 흘렀단 말인가
우리 수령님령전을 찾아
피눈물의 맹세를 다지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열여섯해 세월이 흘렀단 말인가

하늘이여 땅이여 아느냐
송이송이 꽃을 골라
영생축원의 꽃바구니 엮으며
목매어 아버지수령님을 그리는
인민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도 떠나신적 없는 아버지수령님
그리도 바라시던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폭포처 쏟아져내리는 모습
수령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김정일장군님 잘 받들어
이 땅에 강성부흥을 안아오자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그 모습
변이 나는 이해 7월이 오니 더욱 그리워
일을 해도 수령님 생각
기쁜 일이 있어도 수령님 생각

언제나 다심한 아버지 되시여
온 나라 공장과 농장을 찾아주시고
새로 건설한 간석지의 들길도 걸으시며
우리 인민이 잘살 길을
환히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일이

그리도 중하시여
숨은 노력을 바쳐가는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들을
애국자로 혁명가로 불러주시고

우리 장군님 받들어
순결한 마음 바치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이름없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도
영웅으로 대의원으로 키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여 믿음이여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라
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나라의 군력이 되고 경제력이 되어
원썬들의 악랄한 봉쇄를 짓부시며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던가

아 만남을 뚫고
이 땅에 오는 세월은
수령님사랑으로 흐르는 세월
수령님축복으로 번영하는 세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향해
폭풍쳐달리는 내 조국
우리 장군님
수령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주시여라

로동자도 농민도 지식인도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해가며
승리자의 배심으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나니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과 해들을
변이 나는 날과 달과 해로 빛내이며
수령님을 더 높이 모시리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영생하시는 우리 수령님
천만년 길이길이 모시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원래 조선녀성은 외유내강하고 절개가 굳습니다. 나는 항일혁명을 하면서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리계순의 달비는 녀성혁명가들의 절개를 상징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생애의 정점이란 사람의 정신력과 활동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 정점이 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에 맞이할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맞이할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60대나 70대에 맞이할수도 있습니다.》

한때 명성을 날리다가 중도에 불미스럽게 한생을 마치는 사람보다 리계순이나 최희숙처럼 인생의 끝을 쇠소리가 나게 맺는 사람들을 력사는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의 고요

김 윤 결

실안개 산허리를 감도는 이른새벽
전선길에서 돌아오신 장군님
금수산기념궁전의 정원을 거니신다
수령님과 나누고싶으신 하많은 이야기
마음속으로 나누시며...

조용히 건노라면
문득 뵈을듯싶어
맑은 아침이슬에 옷자락 적시시며
정든 걸음새로 마주오시는
수령님모습 뵈을듯싶어

빨찌산시절부터 굳어진 습관이라고
수립숙 밀영을 돌아보시듯
새벽이면 정원길 즐겨 걸으시며
조국과 혁명을 두고 사색도 깊으시던
수령님 뵈을듯싶어
고요속에 조용히 견고만싶으신 장군님

휘늘어진 가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아침이슬
그이의 옷자락 하염없이 적시는데
그이는 꿈속인듯 들으신다
—장군
반가움어린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을

그이는 뵈옵는다
전변하는 조국의 모습을
한눈에 굽어보시며
환히 웃으시는 그림던 그 미소를

예나제나 변함없이
나라의 역군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가없이 펼쳐진 대지에
무르익는 오희백과의 설레임소리 정답게 들으시며

수령님 지으시는 태양의 미소를

새들아 잠시 우짖지 말아다오
맑은 바람결아 그이결을 조용히 지나가다오
우리 장군님
수령님 만나뵈는 이 순간을
잠시도 깨치지 말아다오
그리움의 이 세계를

이 순간을 언제나 마음에 안으셨기에
눈덮인 칠령을 넘으시고
오성산 칼벼랑도 서슴없이 오르시며
선군의 천만리를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 아니시던가

두벌농사 토지정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며
우리 공업이 세계를 향해 나갈 지름길을 열어주시며
비내리는 논두렁길
눈내리는 구내길
웃으시며 걸으시지 않았던가

오, 수령님기쁨 되라고
초소의 술잎향기
대지의 벼꽃향기 습배인
야전복차림 그대로
전선길에서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곧추 들어서시군 하셨거니

새들아 우짖지 말아다오
맑은 바람결아 조용히 그이결을 지나가다오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고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에
우리 장군님 승리의 보고 안고 들어서실
력사의 그날에도
그리움의 세계
승업한 이 교요를 깨치지 말아다오

수령님 계시였어라 외 1편

리 광 선

그처럼 힘겨웠던 나날들을
그처럼 간고했던 나날들을
우리 위훈으로 수놓을수 있는것은
아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였기때문이어라

아버이수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여
매일 아침 출근길에도 함께 오르시였고
휴게실의 나무의자에도 허물없이 앉으시여
하루일 총화모임에도 참가하시였어라

예상치 않은 정황앞에서
때로 우리 당황해할 때에도
헤뎀비는 우리 마음 안정시켜주시고
자그마한 성과에도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신 수령님

더운 날씨에도 때없이 얼어드는
종자초산 까낼 때에도
우리의 옷자락에 마구 튀어오르던
차디찬 초산얼음쫓각 보시며
작업을 안전하게 하라고 가르쳐주시고

머나먼 북방과 서해안에서
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을
힘겹게 날라오던 나날에는
로상에서 설을 맞는 우리들을
뜨겁게 격려도 하여주시고...

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울리고있지 않았던가
비날론공장 동무들은
언제나 내 마음을 잘 알아주었다고
인민생활을 추켜세우자면
비날론을 기어이 다시 뽑아야 한다던
수령님의 간곡한 그 음성이

아 수령님 그 모습이 되시여
수령님의 그 마음이 되시여
대소한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전설같은 강행군길 잇고 이으시며
태양의 그 미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아버이 우리 장군님

장군님 안고오신
수령님의 그 미소 수령님의 그 모습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오늘은 이렇듯 온 나라에
비날론경사를 안아왔거니

비날론공장정문은 활짝 열리였다
오늘도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장군님 자주도 찾아오셔라
그래서 정녕 그래서
비날론로동계급 우리들과
수령님은 늘 함께 계시여라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비날론이 간다

인민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비날론이 간다

우리 장군님의
송고한 세계에 받들려
그이의 열화같은 체온으로
뜨겁게 더웁혀진 비날론

비날론이 간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그 품을 향해
마치 비날론은
고향집 아버이를 찾아가는듯

우리 인민에게
비날론을 안겨주시려고
우리 인민들이
비날론덕을 누리게 하시려고
수령님은 비날론공업의 창업자도 되시고

비날론공장의 건설자도 되셨던분

아, 뜨거움에 젖어 바래우는
우리 마음에
해일처럼 차오르는 생각이어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저 비날론을 위해
강철도 뽑으셨고 기계도 만드셨다는

그때문이 아니던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날론앞에서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아버이수령님의 환하신 그 영상
제일먼저 안겨온것은

비날론이 간다
인민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비날론이 간다

천만리 강행군길 헤쳐오신
사연많은 야전차에 실려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아버이수령님께 삼가 올리는
또 하나의 선군혁명승리의
위대한 보고가 간다!

수령님과 함께 걸으신 길

리 태 식

조국땅의 들길을 밟으실 때에도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걸으시더니
압록강을 건너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실 때에도
장군님은 수령님과 함께 가시였다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결에도
수령님의 자취어린 항일의 옛전장
동북산야의 사연깊은 바람결이어서인가
수령님의 후더운 숨결처럼
뜨거이 한가슴에 안으시고

차창에 흐르는
한떨기 이름모를 봄날의 꽃송이조차도
수령님 피우신
조중친선의 붉은 꽃이런가
소중히 심장속에 다 품고가신 우리 장군님

아, 자욱자욱
걸음걸음
마음속에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대련과 천진
베이징과 심양
수령님 앞서 걸으신 길을 다 찾아 걸으시며...
수령님과 함께 걸으신 길

환영의 연회장
형제의 나라 벗들이 삼가 올린
축배잔을 기쁘게 받으실 때에도

장군님의 마음속엔 함께 계시었다
빨찌산의 붉은 선혈우에
조중친선의 밀뿌리를 심어주신 수령님
중국의 못 잊을 은인으로
최대의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던 우리 수령님

그래서가 아니던가 우리 장군님
수령님과 한뜻으로
찾으신 도시, 들리신 공장마다에서도
이룩한 성과들을 내 나라의 일처럼 기뻐하시고
따뜻한 고무와 격려로
더 희망찬 앞날을 축복해주신것은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그 축복속에서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무성하듯이
수령님의 뜻—조중친선의 푸른 거목은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으리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래일도 역세계 자라
더욱 청청한 밀림을 펼치리

빛나도다!
불변하는 태양의 자리길처럼
수령님 걸으신 길이면
수천리라도 수만리라도 다 이어가시는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동지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 빛내이신 길이어
우리 장군님 수령님과 함께 걸으신 력사의 길
이어!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혁명전사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시가작품들—

백 두 명 산

1. 하늘을 꿰뚫고 치솟은 명산
평창하고 웅장할사 백두산이라
만천산을 아래 두고 솟은 기상은
억만병을 지휘하는 장군님갈네
2. 차고찬 흰눈을 이마에 이고
시베리아 맹렬한 풍 불어치여도
끄떡없이 거연하게 솟아있으니
왜놈들 호령하는 장군님갈네
3. 푸르고 거센 동해물결 씻어도
그 정기 변할소냐 백두산이라
억만년 흘러가도 불멸의 기개
승리에로 이끄시는 장군님갈네
(길림성 안도현)

※시베리아—씨비리

호랑장군

1. 앞산에서 따웅따웅
뒤산에서 따웅따웅
따웅따웅 호랑장군
힘도 세인 호랑장군
2. 눈이라도 화등잔눈
발이라도 대통대발
허리라도 구시허리
꼬리라도 삼단꼬리
3. 백두령을 오락가락

발바리만 족쳐대는
조선국의 호랑장군
천하무적 호랑장군

(길림성 안도현)

※구시허리—구유같이 생긴 단단한 허리
삼단꼬리—삼을 묶은 단처럼 술이 많고 길이가 긴 꼬리

승리의 소식

1. 에헤 승리로구나 승리
산도 물도 싱글벙글 승리로구나
백두산호랑이 따웅 출격에
일본놈 대갈통이 풀썩풀썩
썩은 호박되어 나딩굴었다네
얼싸 좋네 승리의 소식이로구나

2. 에헤 승리로구나 승리
산새들새 노래하는 승리로구나
백두산호랑이 따웅 출격에
발바리 개무리들 풀썩풀썩
까마귀밥이 되어 나딩굴었다네
얼싸 좋네 승리의 소식이로구나
(길림성 휘남현)

장군님께 보내가자

1. 사래차고 긴긴 밭에
이 농사를 이리 해서
누구에게 보내갈꼬
두말이면 잔소리지
백두밀림 보내가자

장군님께 보내가자

2. 야심하고 긴긴밤에
이 베를랑 이리 짜서
누구에게 보내갈꼬
두말이면 잔소리지
백두밀림 보내가자
장군님께 보내가자

(길림성 안도현)

3. 서럽다 앉아서 울지만 말아라
구국의 영웅따라 총칼을 잡잔다
에라 이것이 투쟁이란다
아하 이것이 살길이란다

(흑룡강성 해림현)

※출하—짐을 내보내는 일. 여기서는 공출을
말함.

※사래차다—이랑이 꼭 차다.

장군님 계시여

1. 혁명의 기세는 나날이 높을 때
백정의 학살도 더욱이 심하다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동무들
테로의 학살에 멈추지들 말아라

2. 감옥에 갇힌자 총칼에 살상자
물노니 동무들 그 얼마이더냐
테로가 아무리 흑심타 하여도
장군님 계시여 붉은 꽃 핀다네
(길림성 안도현)

이것이 살길이란다

1. 풍년이 왔다고 기뻐를 말아라
출하로 바치면 남는게 없단다
에라 이것이 큰일이라네
아하 이것이 야단이라네
2. 철길이 놓인다 기뻐를 말아라
우리의 은금보화 다 실어간단다
에라 이것이 설음이라네
아하 이것이 눈물이라네

용감히 싸우자

금수강산 동반도는 우리 집이요
백의민족 삼천만은 우리 형제다
억눌림을 참아가며 신음만 말고
무쇠팔뚝 휘두르며 용감히 싸우자
장군님이 앞에서 지휘하신다
(길림성 통정시)

노캐가락

1. 파릇파릇 새싹은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요
억압받는 우리네요
장군님 오기만 기다린다
어야라 난다 되여라
유정세월만 바란다
2. 왜쪽발과 부이데긴
살인강탈만 일삼는데
김장군님 부대는데요
백성을 도탄서 구해주네
어야라 난다 되여라
유정세월만 바란다
(길림성 안도현)

※부이데긴—위만경찰

가 사

어머님의 축복

전 광 원

오늘도 백두의 군복을 입고
회령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활짝 핀 진달래 한뼘에 안고
축복의 미소를 보내주시네
아 안으신 꽃송이 이백열여섯
조선의 앞날을 축복하시네

어머님님원은 꽃으로 피여
내 나라 강산은 해빛밝은데
장군님 가시는 선군길우에

축복의 미소를 보내주시네
아 안으신 꽃송이 이백열여섯
조선의 앞날을 축복하시네

구만리 눈부신 패일을 향해
오늘도 어머님 웃고계시네
조선아 봄속에 영원하라고
축복의 미소를 보내주시네
아 안으신 꽃송이 이백열여섯
조선의 앞날을 축복하시네



박 룡 호

1

만경대 찾아가네

...

승용차들은 봄빛이 무르녹는 산기슭을 따라 꽤 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전현지지도를 마치고 숙소로 가시는 길이었다. 길 오른쪽산기슭에는 노란 개나리꽃이며 연분홍진달래며 하얀 살구꽃들이 다투어 피어나 짙은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길 왼쪽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들판에서는 트랙토르들이 툽툽툽 논밭을 갈아엎고 흰구름이 등실 뜬 푸른 하늘에서는 종다리가 지중지르르 봄을 노래하고있다.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꽃이 피는 봄, 약동하는 봄...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봄풍치를 내다보시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가슴이 찢릿해움을 느끼시며 깊은 숨을 내그으시었다.

아침에 해외동포사업을 맡아보는 유정식부국장에게서 보고받으신 그 가슴아픈 사실은 현지 지도를 하시는 오전내내 심중에 무겁게 매달려있었다.

(김만유선생이 어쩌다 그런 병에 걸렸는가, 어쩌다가...)

김만유는 일본 도쿄 한복판에 니시아라이병원을 차려놓고 애국활동을 벌리고있는 고명한 의학박사이다. 이런 그가 《특발성량측대퇴골두괴사》라는 중병에 걸렸다.

크지는 않으나 다부지게 생긴 체격, 지성과 강단이 비끼는 혈색좋은 얼굴... 바늘끝이 들어갈 틈도 없으리라 생각하시였던 그 몸에 병을 얻고 삼륜차에 실려 조국으로 온다고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심중으로 밀려드는 아픔의 파도를 막아내기가 힘드시었다.

사월의 봄빛이 강산에 넘쳐
행복이 꽃피나니
인민은 감사의 정을 안고

저앞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오전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모양이다. 까르르—명랑한 웃음소리도 들린다.

《수령님, 조국에 오니 제일 듣기 좋은것이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웃음소리와 노래소리인것 같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전 학생소년궁전에랑 가보면서 여기야말로 아이들의 지상천국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보한다는 격언도 떠오르면서... 눈물이 자꾸 나오는걸 어찌할수가 없었습니다.》

3년전 김만유를 만나시였을 때 그가 감개한 어조로 하던 말이였다. 그날의 일들이 어제 있는 일처럼 선히 떠오른다.

년말이어서 한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해전투를 설계하느라 몹시 바쁘시던 때였다. 일군들은 새해에 들어가 시간이 좀 생길 때까지 김만유를 기다리게 하겠다고 하였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도리머리를 하시며 한창 하시던 신년사집필까지 뒤로 미루시였다.

《나한테 한가한 시간이 언제 생기겠소. 이국에서 고생하는 동포가 어머니조국을 찾아왔는데 그 선생부터 만납시다.》

일군들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김만유는 수령님을 뵈옵자 인사를 올리기도 전부터 눈물이 글썽해서 황송해하였다.

《수령님, 저같은게 뭐라구... 나라일에 그러럼 바쁘신 수령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수령님께서서는 목이 메어 인사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그를 품에 꼭 안아주시였다.

《보고싶었습니다. 선생과는 초면이지만 오랜 지기가 찾아온것 같이 반갑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웅접탁에 마주앉자 따끈한 차를 권하시며 미더운 눈길로 김만유를 건너다보시였다. 동서방의 제노라 하는 고위정객들도 다 인간

이라는 그 하나의 기준으로만 본다는 자존심높은 눈은 무아경에 빠진듯 행복에 겨워 웃고있었다.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천진해보이기까지 하는 그 얼굴...

한생을 이역땅에서 살아오는 사람이니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는가.

《어서 차를 드십시오. 우리는 선생이 총련결성 초창기부터 총련사업을 성의껏 도와주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평양에 병원을 건설하겠다고 하였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생의 애국충정을 우리 당은 높이 평가합니다.》

김만유는 행복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수그렸다. 차잔을 만지작거리며 황송한듯 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마음뿐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를 하느라 세상에서 제일 못살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되찾아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셨는데... 전 주먹만 한 고임돌 하나 고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조국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치료는 못해주어도 병원만이라도 기증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싶었을뿐입니다.》

《그 마음이 귀중한것입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은 이역땅에서 살지만 마음은 언제나 우리 조국인민들과 함께 이 땅에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건설하고있는셈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김만유와 옆에 앉은 그의 부인 변옥배를 정어린 눈길로 일별하시며 정말 험치 않은 용단을 내렸다고 말씀하시였다.

《참, 선생의 고향이 제주도 모슬포라고 하였지요? 그런데도 선생은 제주도나 서울에 병원을 짓자고 하지 않고 평양에 지을 결심을 하였군요.》

《수령님.》

김만유는 고개를 들었다. 타는듯 한 눈길로 수령님을 우러렸다. 그 눈길에는 심중에 깊이깊이 묻어두고 혼자만 묵새기고있던 인생의 만단사연이 다 깃들어있는듯 했다.

김만유는 한동안 입술을 감빔다가 나직이 한숨을 내쉬고나서 약간 울기를 띤 어조로 말씀드렸다.

《수령님, 저의 고향엔 지금 군용비행장을 비롯한 미군사기자들이 건설되고 양키들이 제 세상처럼 활개치면서 온갖 못된짓은 다하고있습니다. 제주도뿐이 아니라 남조선 어느곳이나 다 같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김만유를 건너다 보시였다. 꼭 다문 입과 억센 턱이 그의 굳센 의지를 말해주는듯 했다.

김만유는 남조선사람들이 제아무리 유혹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고향인 제주도

모슬포와 지형이 유사한 일본의 지바현 에미라는 어촌에 땅을 사고 포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포전을 가꾸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인다는것이다. 그 포전엔 제주도 모슬포에서만 자라는 꽃들도 심는다고 했다.

《선생은 고향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여기 평양을 먼저 생각하는군요. 고향은 조국의 한 부분입니다. 조국은 고향을 포함한 조상대대의 땅전체를 의미하고... 저 남조선에도 한피줄을 나눈 우리 조선민족, 조선사람들이 살고있지요. 외세에 의한 국토분렬로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 선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을 조국에 건설하였으면 합니까?》

김만유는 천천히 일어섰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환희에 찬 어조로 또박또박 말씀드렸다.

《수령님, 저는 도교에 있는 니시아라이병원을 통채로 조국에 옮겨놓고싶은 심정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미더운 눈길로 김만유를 보시다가 앉으라고 손짓을 하시며 현현한 어조로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알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골라 병원을 지읍시다. 새해에 들어가 인차 착공을 해서 3~4년안으로 끝내도록 합시다.》

자리에 앉으려고 엉거주춤했던 김만유가 또다시 허리를 쭉 펴며 얼굴에 활짝 웃음을 피웠다. 변옥배까지 일어나 함께 인사를 드렸다.

《수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총련사업을 성의껏 도와준 그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시어 훈장도 달아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작별때에는 감격의 눈물만 흘리는 그에게 다심한 어조로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김선생, 년세도 많은데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혹시 일이 잘 안된다고 해도 너무 마음쓰지 말고...》

《수령님, 고맙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만유는 조국의 실무진들과 구체적인 토의를 하고 흥분해서 떠나갔다.

수령님께서서는 어쩐지 그의 일이 마음놓이지 않으시였다. 김만유가 사는 곳이 반동들이 욱실거리는 나라 한복판이기때문이었다. 그가 조국에 병원을 기증하겠다고 하면 별의별 횡방군이 다 나타날수 있었다, 반대파들도 있을것이고... 그 모든것을 물리치고 자기 뜻을 실현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것이다.

그때의 수령님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되고있었다. 김만유는 일본반동들과 횡방군들, 반대파들 때문에 고충을 겪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느날 김만유에 대해 알아보시다

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만유가 뜻밖에도 난치의 병에 걸려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김만유선생이 그런 몸쓸 병에 걸리다니... 더구나 놀라운 것은 병원건설이 지금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참을수 없는 의분을 느끼시었다. 유정식을 집무실로 부르신 수령님께서서는 엄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김선생이 자금을 보내지 못한다면 병원건설을 그만두겠습니까? 병원은 인민을 위한것입니다. 명백히 하건대 그 선생이 자금을 보내지 못한다고 해도 병원은 건설해야 합니다. 병원건설도 내밀고 그 동포의 건강도 빨리 회복시켜주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방도를 생각해본것은 없습니까?》

유정식은 자책에 잠겨 고개를 떨구었다.

《아직은... 본인도 의학박사이고 열남매자식들과 두 사위까지 의사들인데도 못 고치고있는것을 보면 여간한 난치병이 아닌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힘있게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물론 의술이 큰 작용을 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본인의 정신상태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치료환경도 중요하고... 예로부터 약절반, 마음절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도 그렇고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에도 그렇고... 병과의 싸움도 강한 정신력이 기본입니다. 김만유동포에게도 신심이 중요합니다. 동무가 그 선생에게 갔다와야겠습니다. 그의 생활환경도 료해하여보고... 그를 도울 대책도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일본으로 떠나갔던 유정식인데 오늘 아침 김만유와 함께 평양에 도착한다는 보고가 왔던것이다. 김만유는 삼륜차에 실린 몸으로 온다고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의사등반이에 몸을 실으시며 어떻게 하면 그의 병을 고쳐줄수 있을가 하고 생각을 더듬으시었다.

차창밖을 내다보시니 연분홍진달래가 활짝 핀 산언덕이 반기며 달려온다. 마치도 산언덕이 그대로 꽃에 묻힌듯싶다. 산굽이를 돌아서자 갑자기 저앞에 넓고푸른 호수가 나타났다.

목화송이같이 하얀 구름이 등실 뜬 하늘과 푸른 송림과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비낀 맑고푸른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이 얼핏얼핏 지나간다.

그 낚시군들을 보니 오늘 아침 책임서기가 이 호수가에 물고기가 많으니 시간을 내어 낚시질을 하며 좀 휴식하셨으면 한다고 간청하던 일이 떠오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김만유의 고향이 모슬포보다

가이니 어렸을적엔 고기잡이도 많이 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드시었다. 그가 물고기요리를 좋아하지는 않을가.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그 무엇이랴도 해주고싶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앞좌석에 앉은 책임서기에게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점심시간에 낚시질을 할수 있게 준비해주오.》

책임서기가 처음엔 잘못 듣지나 않았나 하는듯 의아해서 돌아보더니 이어 병긋 웃으며 성수가 나서 대답을 올렸다.

《알겠습니다. 오후 다섯시쯤부터 하실수 있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오후일정은 변경시키지 말고 낚시질을 점심시간에 합시다.》

책임서기의 눈이 금시에 커졌다.

《그럼 휴식은... 오전에 너무 무리하셨는데 잠시라도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차창밖으로 눈길을 주시며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그렇게 해주오. 오늘 일본에서 김만유동포가 오는데 당장은 만날 시간이 없구만. 그래서 내 손으로 물고기라도 몇마리 잡아보내자고 그러오.》

2

끼익-끼익-

머리우에서는 흰갈매기가 목메여 울며 날아간다.

붕-

배고동소리도 별로 가슴을 친다.

김만유는 삼륜차에 앉은채 갑판우에 나와 멀리 조국의 하늘을 묵묵히 바라보고있다.

《아버님, 날씨가 찬데... 일없겠습니까?》

다섯째아들이 조심스레 다가서며 근심어린 어조로 물었다.

김만유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는 대답을 안했다.

《여보, 선실로 들어가자요. 이러다 감기라도 드시면 어찌겠어요?》

삼륜차의 손잡이를 잡고 뒤에 서있던 안해 변옥배가 걱정하는 말이다.

그 말에도 김만유는 입을 꼭 다문채 대답을 안했다. 표정변화 하나 없다.

근엄한 얼굴로 먼 수평선만을 바라볼뿐이다.

바로 그때 누구인가 《조국땅이 보인다.》 하고 소리쳤다.

《어디, 어디?》

선실에서 사람들이 어푸러질듯 갑판으로 밀려나왔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러 가

는 금강산가극단 배우들의 모습도 보인다.

《저기, 저기를 보오. 저기 저 산밭들을…》

멀리 수령선우로 아물아물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국땅이다, 만세!》

누구인가 만세를 불렀다. 기쁨에 떠서 웨치는 소리들에 갑판이 들썩했다. 조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멀리 이역땅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조국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목이 메이는 순간이다.

김만유의 주름깊은 랑볼로 주르르 눈물이 흘러 내렸다.

저이들은 수령님께 드리는 춤과 노래를 안고 조국땅으로 찾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기쁨이 아니라 근심을 엮어드리고… 수령님앞에서 맹세한것도 지키지 못한채 정녕 조국에 갈 체면이나 있는가.

김만유는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고개를 떨구었다.

무엇인가 딱따구리 부리처럼 날카로운것이 가슴팍을 딱딱 쏘아대는것이 있다.

《만약 원장선생이 북조선에 투자한다면 우리 종업원들은 파업을 일으킬것입니다. 그런 막대한 자금을 조선에 보낸다면 국세청과 은행측에선 원장선생을 끝까지 붙잡겠습니까? 북조선에 보낼 돈이 있으면 종업원들의 로임부터 올려주는게 현명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원장선생은 누구덕에 그렇게 많은 재부를 축적했습니까? 심사숙고하십시오.》

부원장인 우라기리가 선언하듯 위협하는 말이었다. 그토록 믿던 그가 순간에 돌변해버린것이다. 제주도에서 달려온 조카도 눈을 뱅글뱅글 돌리며 검질기게 달라붙었다.

《삼촌은 왜서 태어난 고향땅을 외면하는거예요? 지금 제주도는 홍콩처럼 번화해지고있어요. 관광유흥지로 꾸려지고있어요. 이런 때 모슬포의 땅을 사면 인차 억만장자가 될수 있어요. 삼촌이 못 가겠다면 돈이라도 꾸어주세요. 1년내로 갚아드릴테니… 글썽 북조선엔 안돼요. 말그대로 무상치료제인데 아무리 막대한 투자를 해야 재산을 할수가 있나요? 돈이란 굴려야 해요. 눈덩이처럼 굴릴수록 커지는게 돈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소득세과장이란자가 병원에 와서 장부검열을 하였다. 밝히고 보는 눈에는 무엇이든 걸리기마련이다.

그자는 탈세액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막대한 벌금처벌을 떨구며 이렇게 올려메었다.

《이건 아직 약파요. 검열이 계속되는 파정에 더 큰것이 나타나면… 아마도 징역살이를 각오해야 할게요.》

기업가에게 있어서 국세청은 지옥의 사자와도

같다. 김만유가 잘 아는 세계적인 갑부 모씨도 미국에서 탈세죄에 걸려 1년 6개월 징역살이를 한적이 있다. 김만유가 세무청에서 벌금형벌과 경고를 받게 되자 은행측에서는 이 구실, 저 구실 대면서 자금지출에 응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국세청사람도 대장성은행과장도 다 우리 병원신세를 진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때는 죽어도 이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어쩌면…》

안해 변옥배가 억이 막혀 혀를 차는 소리였다.

김만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라기리나 조카나 국세청, 대장성의 뒤에 무시할수 없는 그림자들이 있다는것을 깨달은것이다. 기가 막혔다. 김만유에게는 그 그림자들이 이 일 본땅을 좌우지하는 위력자이건 저 남조선의 《청와대》 주인이건 무섭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조종을 받는 《송사리때》들때문에 조국으로 약속한 자금을 속히 보내지 못하는것이였다.

조국에서는 벌써 병원건설을 시작하였겠는데… 이를 어쩌면 종단 말인가.

더욱 안타까운것은 자식들까지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것이였다.

《아버지의 뜻은 훌륭하지만 조선과 일본은 적대관계이기때문에 대규모투자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국가권력과 어떻게 맞서겠어요.》

지난 시기 공화국에 자금을 기부한 상공인들중에서 무사한 사람 몇이 있어요? 일본 국세청에선 그들을 탈세죄에 걸어 여러명이나 물어메치지 않았습니까. 자칫하면 우리 니시아라이병원도 그들의 마수에 걸려 파산될수 있어요. 아버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주세요.》

설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앉은 자리에서 자식들중 한 아들이 하는 말이었다. 그뒤를 이은 말은 김만유를 더욱 아연케 했다.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했으면 해요.》

김만유는 가슴이 무엇에 짓눌리운듯 답답해져서 움쭉 쏘파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 열어제겼다. 초겨울의 차거운 바람이 확 불어들면서 창가림천을 기발처럼 휘날리였다.

《아니, 이 추운데 어쩌자고…》

변옥배가 놀라며 다가오자 김만유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로 돌아섰다.

《물론 나도 국가권력이 개인보다 세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제아무리 세다 해도 죄가 없으면 어찌지 못하는 법이다. 장담하지만 니시아라이병원은 누구도 파산시키지 못할것이다. 내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 타격은 좀 받았

지만... 너희들만 정신을 똑똑히 차리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이다. 막내가 우려하는 문제인데 너희들 열남매가 다 의학대학,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의사로 되었는데 그 이상 무엇을 또 바란단 말이나. 너무 돈에 신경을 쓰면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마는 법이다, 속물이 되고말아. 우리가 이만큼 살아올수 있었던것은 다 조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화국이 강하기때문에 해외국민인 우리가 어깨를 펴고 떳떳이 살수 있는거다. 그 은공을 모르쇠한다면 그게 무슨 사람이라 할수 있겠니. 지금 조국에선 대전설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서해갑문건설 하나만 봐도 그렇다. 20리날바다를 가로막는 대단한 공사다. 그뿐인줄 아니? 30만정보 간석지건설, 문수거리건설, 발전소건설...

지금껏 조국을 위해 내가 한 일이 뭐냐? 극히 보잘것없는것이아니나 내 몫으로 병원을 하나 기증하는것인데... 나는 너희들이 이 아버지를 도와나서리라고 믿는다.》

김만유는 속이 좋지 않아 다들 돌아가 자라고 이르고는 자기 서재로 들어갔다. 각종 의학서적들이 가득 꽂혀있는 책장옆 쏘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독감에라도 걸린듯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났다. 어떤 때는 송곳으로 찌르고들어오는듯 한 예리한 아픔도 느껴졌다. 자식들가운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 괴롭기 그지없었다.

김만유는 후하고 모두숨을 내쉬었다. 김만유는 문득 폐부로 스며드는 꽃향기의 류다른 의미를 감촉하며 숨길을 멈추었다. 늘 말던 익숙된 향기이지만 이밤따라 전혀 새삼스레 느껴진다.

김만유는 눈을 떴다. 쏘파옆 창가가까이에 화분이 놓여있다.

버들잎모양의 큰 잎들이 안쪽은 여러겹으로 말려서 둥근 기둥모양을 이루고 사방으로 퍼진 바깥쪽은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뾰족한데 줄기끝에는 우산모양의 꽃차례를 이루고 자름자름한 흰 꽃이 피어 짙은 향기를 풍기고있다. 고향인 제주도의 모슬포 모래불에서 자라던 문주화...

불시에 썸 - 하고 가슴 찢릿하도록 향수가 흘러든다.

김만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어린시절의 젖내 풍기는 추억이 깃든 고향 모슬포가 떠오른다. 가없이 넓은 푸르른 바다, 좌 처절쩍 - 쉬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 그우에 굴러가는 전복이며 해삼을 좇는 해녀들의 웃음소리, 그에 화답하듯 모래불에서 바다바람을 안고 춤추듯 하느적이는 문주화... 그 모든 소중한것들을 짓밟으며 피묻은 군화발이 포구를 어지럽히고 게다짜소리가 제 세상인듯 소란스레 울리기 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바다로 뛰어들던 해녀들, 그우로 공기를 켜며 울리던 총소리, 총소리, 바다를 피로 물들이며 떠오르던 해녀들... 군도를 짚고 시누런 이발을 드러내며 뇌까리던 왜놈 오장의 살기면 목소리. 《너희들은 우리 황군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김만유는 치를 떨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다. 서울도 역시 왜놈들 세상이었다. 걸음걸음이 식민지노예의 설음과 피눈물로 얼룩지였다.

김만유가 서울 보성고등학교에 다니던 1931년 7월 중국 만주땅에서 《만보산사건》이 터졌다. 대륙침략을 호시탐탐 노리던 일제는 만보산주변에 사는 중국사람들과 조선농민들사이에 켜기를 박아 물싸움을 시켜놓고는 조선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만주침략을 합법화하였던것이다.

모략의 희생물이 된 조선사람들은 억울하게도 많은 죽음을 내었으며 분쟁에서 어부지리를 얻은 일제는 만주침략을 더욱 로골적으로 다그쳤다.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청년들이 《만보산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등사기로 뼈라를 밀어 학교들과 거리들에 뿌리는 청년들속에는 10대의 소년 김만유도 있었다.

김만유는 몸이 허약했지만 밤을 모르고 뛰어다녔다. 투쟁열에 몸이 끓었다. 뒤이어 일어난 대대적인 검거선풍, 다음엔 악취나는 경찰서 류치장... 서대문형무소... 너무도 찬서리였다.

감옥에서 놓여나왔을 때에도 왜놈들의 독사같은 눈길은 집요하게 뒤를 쫓아다녔다. 때없이 잡아들여 때리고 묻고 따졌다.

김만유는 몰래 제주도로 내려갔다. 놈들의 마수는 김만유를 따라 고향에도 뻗쳐내려왔다. 《불량선인》, 《위험분자》...

경찰서에서는 때없이 잡아들여 못살게 굴었다. 김만유는 할수없이 21살이 되던 1936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때부터 시작된 지겨운 이역살이... 김만유는 주먹을 부르짖었다.

네놈들이 짓밟을수록 나는 더 보란듯이 일떠설테다.

김만유는 고향으로 도교의학전문학교를 나오고 차그마한 병원까지 차려놓았다. 이를 사려물고 생활을 개척해나갔다.

그러나 해가 바뀔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찌할수가 없었다.

김만유는 마침 기회가 생겨 제주도로 건너간적이 있었다. 모슬포에 가니 뜻밖에도 고향마을이 있던 산기슭엔 미군병영이 틀고앉아있었다. 부모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하도 억이 막혀 어린시절추억이 깃든 바다가로

나오는데 철갑모를 쓰고 카빙총을 걸친 미군병사들 한무리가 제 세상인듯 뭐라고 떠들썩하며 앞을 지나갔다.

김만유는 자기도 모르게 뒤통을 하고 침을 뱉었다. 뺨 돌아서서 자리를 뜨려던 김만유는 갑자기 흠칫 멈춰섰다.

아, 문주화! 문주화가 미군의 군화발에 밟혀 뿌리를 드러낸채 나뒹굴고있었다.

김만유는 무릎을 굽혔다. 두손으로 조심히 문주화포기를 떠올렸다. 손이 푸들푸들 떨렸다. 가슴속에서 참을수 없게 울분이 솟구쳐올랐다.

김만유는 입술을 피나게 깨물며 문주화를 어루쓸었다. 연한 풀색의 둥근 씨앗집이 다행하게도 튀지 않았다. 김만유는 손수건을 꺼내 씨앗을 받았다.

고향에서 돌아온 김만유는 모아두었던 돈을 다 털어 모슬포지형과 류사한 지바현 에미라는 어촌에 자그마한 땅땸가기를 사고 포전을 만들었다.

그 포전에 남새씨와 함께 문주화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었다. 김만유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문주화는 다행히도 그 포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다.

김만유는 문주화를 집의 화분에서도 가꾸었다. 늘 곁에 두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이려 하는 것이었다.

문주화를 보면 볼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가슴을 괴롭혔다. 고향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역땅에 와서 외롭게 피는 문주화가 어떤 때는 쓸쓸하고 측은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빼앗긴 집, 빼앗긴 내 고향, 빼앗긴 내 나라...

김만유가 조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때부터였다.

제 나라가 없어 이처럼 버림받던 재일동포들이 일본땅에서도 공화국기를 내걸고 공화국의 해외국민으로 떳떳하게 존엄높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김만유는 가슴속에 그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그들먹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제 나라가 생겼구나. ... 조국해방전쟁에서 조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김만유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 온밤 잠을 자지 못했다.

아시아의 《맹주》라고 하던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번에는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을 이끌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단만에 꺼꾸러뜨린 것이다.

수령님께서 원썬들이 100년이 걸려도 일어설 수 없다고 하던 폐허우에서 불과 몇년만에 사회주의 새세상을 일떠세우시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이번에는 이역땅의 동포들을 불러주

시였다.

일본땅에 끌려와 마소처럼 천대받던 재일동포들이 너무 기뻐 만세를 부르고 울고 웃으며 조국으로 귀국할 때 김만유는 가슴이 금시 터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아, 수령님! 수령님!... 목이 메어왔다. 그러럼 위대하신분을 한번 내 눈으로 뵈기라도 했으면 싶었다.

김만유는 당장이라도 그들과 함께 조국으로 가고 싶었다. 흥분된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김만유는 그만 병원앞에서 슬며시 멈춰섰다. 병원으로 들어오고있는 환자들 거의 전부가 일본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던 것이다.

그랬다, 지금까지 자기가 치료해준 환자들은 조선사람들보다 일본사람들이 더 많았다. 병원이 도교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것이다. 의학이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인류공동을 위한 가장 신성한 과학이다. 그래서 일단 청진기를 들고 수술칼을 든 다음에는 백인이건 흑인이건, 조선사람이건 일본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오직 하나 인간이라는 그 하나의 기준으로만 대해오던 김만유였다. 술한 생명들을 구원했고 의학 발전에도 적잖게 기여를 했다는 남다른 자긍심을 갖고있었다.

하지만 김만유 자기는 조선사람이었다.

조선사람으로서 조국땅에서 피땀을 흘리며 나라를 지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느라 간고분투해온 조국사람들을 전혀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스러운 감정이 가슴을 치며 파도처럼 밀려드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이제라도 조국땅으로 달려가 벽돌장에 굶힌 로동자의 손가락에 자기 손으로 붕대를 감아주고 싶었다. 로앞에서 땀흘린 용해공의 억센 가슴에 제 손으로 청진기를 대보고 싶었다. 그러나 일본땅에 사는 몸이라 그럴수도 없는 일... 김만유는 지그시 두주먹을 부르짖었다.

자기가 못 가는 대신 병원이라도 하나 기증해서 그 큰일을 하는 조국인민들을 돕고 싶었다.

그때부터 김만유는 한푼두푼 돈을 아껴쓰며 푼전을 모아왔다.

마침내 니시야라이병원만 한것을 조국에 기증할 수 있는 담보가 생기자 김만유는 흥분을 안고 평양에 다녀왔다. 그런데...

김만유는 움쭉 자리를 일었다. 뒤짐을 지고 천천히 서재를 거닐며 주먹을 몇번이나 쥐었다 폈다 하였다.

병원을 기증하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문제인가.

이것은 내 한생의 소원전부나 다름없다. 주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시간이 가느라하면 자식들도

모두 마음을 합치게 될것이다.

김만유는 또다시 두주먹을 움켜쥐었다.

다음날 아침 김만유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대장성은행과장을 또 찾아갔다. 다음날엔 청사가 아니라 그의 집에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날은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사정없이 흘러갔다.

봄철이 와서 이웃들에서 꽃구경을 떠난다어쩐다 하던 날 아침 김만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만 온몸이 으깨어지는듯 한 아픔에 신음을 지르며 나가쓰러지고말았다. 두다리과 두팔이 참을수 없는 동통에 푸들푸들 떨렸다. 안해가 달려오고 만이가 달려오고... 한다하는 박사, 의사들인 자식들만으로도 협의진단은 정확히 내릴수 있었다. 자식들의 얼굴색들이 컴컴해졌다. 딸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김씨의 복조선투자는 망상》, 《김원장의 장래는 어디로!》, 《그는 왜 운신을 못하는가?》

병세는 심해만지는데 불난 집에 키질하듯 신문, 잡지들에는 자기를 비웃는 기사들이 대서특필로 큼직하게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병문안》을 온 우라기리가 《동정》을 표시하며 펼쳐놓은 신문들을 패썹해서 마지막글자까지 꼼꼼히 다 읽어보고난 김만유는 마침내 허허허 웃고말았다.

《사람이 이렇게 돼서 명망이 높아지는가보군, 허허허. 부원장선생, 신문사들에 내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오, 좀더 크게 떠들어달라구.》

우라기리는 아연해서 멍하니 김만유를 쳐다보았다.

《그럼 원장선생은?...》

김만유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떠들수록 더 이름이 날게 아니겠소, 허허허.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는 말이 있지. 한번 하겠다고 결심품고 나섰다가 도중에 주저앉으면야 그게 무슨 김만유이겠소. 70객이 다 되여오는 이 날이때까지 세상풍파란 풍파는 다 겪으면서도 초지를 곱혀본적 없는 이 김만유가 이런다고 주저앉을것 같소?》

우라기리는 쓴입을 다시며 돌아갔다.

저녁에 만아들이 흥분해서 찾아들어왔다.

《아버님, 조국에서 유정식선생이 오셨습나다.》

순간 김만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껏 몇달이 지나도록 약속된 자금을 보내지 못했다는 자책이 채찍처럼 뇌리를 후려쳤던것이다.

김만유는 문안인사를 하는 유정식의 손을 부여잡으며 죄스러운 소리를 했다.

《유선생,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정식은 김만유의 손을 덧잡아흔들며 뜨거운 어조로 말했다.

《김만유선생, 힘을 내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선생의 건강을 몹시 걱정하고계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병을 고치자면 무엇보다도 신심을 잃지 않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선생을 잘 도와주라고 저를 보내주시였습니다.》

《예? 수령님께서 저의 병때문에 선생을...》

김만유는 불시에 눈굽이 찡해지더니 목이 꺾 메여올랐다.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그런 걱정까지 하시게 하다니... 이 무슨 불효막심한 일인가, 꾸짖고 종아리를 쳐도 시원치 않겠는데 오히려 수령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서는 선생이 건설자금때문에 마음 쓰겠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이 건설자금을 보내오지 못한다 해도 건설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습니다. 조국에서 다 도와주겠으니 병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하시였습니다. 억만금보다도 귀중한것이 선생의 건강이라고 하시면서...》

김만유는 놀라도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다. 멍하니 유정식을 쳐다보다가 떨리는 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지금도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있단 말입니까?》

유정식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몇번이나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건 그 어떤 자금의 액수가 아니라 조국을 생각하는 선생의 그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선생의 그 마음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우리가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

김만유는 목메여 그저 이렇게 부르기만 했다. 얼마나 너그러우신분인가, 얼마나 다심하시고 얼마나 뜨거운분이신가.

눈앞에는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것처럼 인자하신 우리 수령님, 뵈고싶었다.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었다.

하지만...

김만유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처지에 어떻게 그분을 만나뵈온단 말인가. 괴로웠다.

《저는 40여년간 의사로 일해오면서 술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 150명의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머리 깎지 못하는 중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걸린 병은 제가 잘 압니다. 말그대로 난치의 병이니 너무 마음쓰지는 마십시오. 이젠 다 늙은 몸이어서인지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

만 럽치없는 일이긴 하지만 한가지 부탁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실수 있습니까?»

《김선생의 부탁이라면야 무엇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김만유는 다시 유정식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조국에 건설한다는… 그 병원건설장을 볼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내가 평양에 기증하겠다고 한 그 병원이 현실적으로 건설되고있는것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저 잠깐… 건설장만 보고 돌아올수 있게 해주시면…》

유정식은 반색을 했다. 손을 잡아흔들었다.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생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평양으로 떠나게 된 김만유였다.

김만유는 주먹으로 이마를 아프게 부비었다. 갈매기울음소리가 마디마디 별로 가슴에 파고든다.

처음에는 수령님은덕으로 한창 건설되고있다는 병원건설장만이라도 보고 돌아서자고 마음먹었는데 정작 조국땅이 바라보이게 되니 이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괴롭혔던것이다. 내 정녕 무슨 체면으로 건설장에 가볼수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는가.

이제 와서 돌아설수도 없었다.

배는 붐— 하고 기운차게 고동을 울리며 항구로 들어서고있었다.

3

평양의 거리거리는 벌써부터 명절분위기로 끓고있었다.

연두색애일들이 파릇파릇 움터나는 가로수들, 그아래로 밝고 화려한 봄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끝없이 흘러가고 흘러온다. 길거리들에는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들이 만발하다. 곳곳마다 펄럭이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발들…

하늘높이 솟아오른 고층살림집 창가들마다 해빛이 번쩍거리고 로대들에는 화분꽃들이 울긋불긋 피어 반겨웃고있다.

승용차들은 살구꽃이 하얗게 핀 모란봉을 굽이돌아 옥류교를 건너자 동문네거리에서 문수쪽으로 길을 잡았다.

김만유는 홀린듯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그림같은 거리에 소박한 건물이나마 이 김만유가 기증하는 병원이 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국의 대지위에 비록 보잘것없이 작은것이라도 자기 흔적을 남기고싶은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다. 어떤 날 밤에는 평양의 한복판에 10층 아니, 15층이나 되는 덩실한 병원을 짓는 꿈까지 꾸곤 했었다. 그런

데 그 소원은 좌절되고 자기는 이렇게 난치의 병에 걸렸으니… 기가 막혔다.

《김선생, 여기가 바로 선생이 기증하겠다는 그 병원건설장입니다.》

옥류네거리에서 다시 사동쪽으로 꺾어들어 얼마쯤 달렸을 때 유정식이 차를 천천히 몰게 하고는 왼쪽 나지막한 산등성이쪽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였다. 이윽고 차가 멎었다.

김만유는 가슴이 찢릿해움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불도젤 두대가 등성이를 한창 밀어내고있는데 한쪽에서는 벌써 본격적으로 고층건물을 짓고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9~10층쯤 올라간것 같은데 그우에서는 철근을 용접하는 불꽃이 꽃보라처럼 활날려내린다. 혼색을 가득 싣고 들어오는 자동차들의 경적소리, 긴팔을 휘두르며 부채를 물어올리는 기중기동음소리, 호각소리… 건설자들의 웨침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 건설장이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여기에 하나의 거리를 형성하는것 같았다. 문득 저렇게 고층병원을 짓는 꿈을 꾸던 일이 생각났다.

김만유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이왕 내친 걸음이라 어쭙게 웃으며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떠들떠들 물었다.

《저… 병원부지는… 어디쯤…》

낮이 뜨끈해져서 김만유는 말끝도 채 맺지 못했다.

《이것이 다 병원건설부지입니다. 지금 10층까지 올라간 저 건물도 병원건물입니다. 16층으로 짓는데 그 건물로부터 이쪽 불도젤이 밀어내는 저 언덕 말뚝표식이 있는데까지…》

유정식이 손으로 가리키며 하는 말을 듣자 김만유는 잘못 듣지나 않았는가 해서 고개를 기웃했다.

《아니, 이게 다 병원부지란 말입니까?》

《예, 김선생이 기증하시는…》

《어…》

김만유는 자기도 모를 소리를 내질렀다. 어안이 병병해졌다. 자기가 조국에 기증하려는것은 일본에 있는 니시아라이병원만 한것인데… 건물만도 16층?… 계다가 부지는 또 얼마나 넓은가. 일추 잡아도 10만평방미터는 넘을것 같다. 내가 아직까지 꿈을 꾸고있는것은 아닌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다. 조국의 실무진과 토의할 때 자기가 한 말이였다.

《생각갈아서는, 욕심갈아서는 평양에 10층~15층 짜리 동양굴지의 병원을 일떠세우고싶습니다, 허허허.》 그 말이 혹시?…

숙소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기 바쁘게 자식들이 김만유부부가 든 방으로 찾아들어왔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섯째아들이 눈이 커져서 성급히 묻는 말이였다.

여섯째아들은 눈을 껌벅거리며 속셈을 해보더니 손을 내저었다.

《도쿄에서 이만한 부지를 얻자면 우리 집 재산의 40배는 되어야 해요.》

김만유는 생각이 깊어졌다. 수도의 명당자리에 이처럼 방대한 부지를 가진 병원을 일떠세운다는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조국에 병원을 기증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그날부터 그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가슴부풀리며 상상속에 그려보곤 하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도쿄에서는 1만평방 얻는것도 하늘의 별 따기이다. 자기의 한 친구는 서울에다 병원을 지어보려다가 땅값이 너무 비싸 손을 들고말았다. ...

(내가 꿈으로 그려보면서도 감히 엄두를 낼수 없었던 일이 정말 현실로 펼쳐졌단 말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난 약속된 자금도 아직 못 보내고있으니...)

김만유는 고개를 기웃했다. 설계문건도 이미 합의 했었고 계약도 그렇게 하였었는데... 무슨 일인가.

마침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유정식이 들어섰다. 마치 오래간만에 만나기라도 한듯 반색을 했다.

《다들 여기에 계셨구만요. 김선생, 어서 식당으로 갑시다.》

《아니, 저... 식사는 좀 있다가...》

김만유가 당황해하며 도리머리를 하자 유정식이 웃으면서도 꼭 젓은 음성으로 말했다.

《다 차려놓았습니다. 수령님께서 선생을 잘 대접해드리라고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예? 수령님께서요?》

김만유도 그의 가족들도 모두 눈이 커졌다.

유정식은 김만유가 탄 삼륜차를 천천히 밀면서 뜨거운 어조로 말했다.

《수령님께서선 생이 조국에 오는데 마중가고 싶지만 바빠서 그러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몹시 아쉬워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선 생이 병중에 있는 몸인데 자신의 손으로 물고기라도 잡아 대접하고싶다고 하시면서 점심시간에 휴식도 미루시고 찬바람이 부는 호수가에 나가 몸소 낚시질을 하시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는지... 그 생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인지 낚시질도 잘 안된다고, 몇마리 안되지만 잘 가공해서 만유선생에게 꼭 대접하라고 하시었습니다.》

김만유는 속에서 불뭉치같은것이 울컥 솟구쳐오르는것을 느꼈다. 눈곱이 뜨거워지더니 랑불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 수령님, 저같은게 뭐라고 수령님께서선 이리도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단 말입니까. 조국과 한 약속도 못 지키고있는 이 못난것을 꾸짖을대신 오히려 수령님께서선...

유정식이 나직나직 하는 말은 김만유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렸다.

《수령님께서선 자신의 건강을 간절히 축원하여 인민들이 삼가 올린 백년 목은 산삼과 록용을 선생에게 보내주자고 하시면서 이제 더 좋은 약은 없겠는지, 줄수 있는것은 다 주어 꼭 병을 고쳐주자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김만유는 울었다. 훌훌— 소리내며 어린애처럼 울었다. 물결치듯 어깨를 떨며 우는 그를 보며 그의 안해도 자식들도 다들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김만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령님을 뵈고싶은 생각에 온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올랐다. 유정식의 말에 의하면 래일쯤엔 평양에 돌아오실것 같다고 한다. 중요 외국대표단과의 면담이 예정되어있다는것이다. 래일은 외국대표단을 만나주시고 모레나 글피쯤엔 흑시... 아니, 외국대표단들은 한둘뿐이 아니다. 4월에는 더더욱 외국사절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는가. 탄생일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려고... 그들을 만나주시자 해도 바쁘실텐데...

김만유는 천천히 도리머리를 했다. 제구실도 못하면서 그분을 뵈는다는것이 얼마나 불손한 일이고 험치없는 소원인가 하는 감정이 가슴을 허비고 들었다.

4

《수령님, 김만유선생을 만나시는건 래일로 미루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너무 무리하시었습니다. 외국대표단들과의 면담도 좀 미루려고 합니다.》

중절모를 들고 집무실을 나서시려던 수령님께서선 문가에 선채 눈물이 글썽해서 서있는 책임서기를 돌아보시였다. 어쩐지 마음이 아릿해지시였다. 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오늘 오전에야 돌아오시였는데 꼭 결론을 주셔야 할 일들을 처리하시기 바쁘게 또 일어서시니 이리도 안타까와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선 그에게 미안한감을 느끼시며 약간 갈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외국사람들과 만나는건 좀 미루더라도 김만유선생은 이제 만나봅시다. 병고에 시달리는 몸으로 조국에 왔는데 빨리 만나 봐야지.》

수령님께서선 김만유가 지금 무엇인가 속에 품고 피로와하고있는것 같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었다. 수령님께서선 그것이 자금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였다. 수령님께서선 그것을 자신께서 풀어주어야 할 일로 여기시였다. 한 동포가 병고에 시달리며 피로와하는데 잠시도 마음편히 쉴수가 없으시였다.

수령님께서선 김만유가 묵고있다는 숙소로 향하

시였다.

차창밖으로는 봄빛이 무르녹는 거리가 흘러가고 있었다. 가로수로 심은 살구나무들이 구름처럼 하얗게 꽃을 피웠다. 짙은 꽃향기가 물씬 물씬 차안에까지 풍겨들어온다. 밝고 화려한 봄옷을 펼쳐입은 사람들의 물결이 활기에 넘쳐 흐르는 거리...

김만유동포도 병을 털고 일어나 이 봄거리를 할 보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싶어 수령님께서서는 나직이 숨을 내그으시였다. 유정식을 통해 알아본 데 의하면 적십자종합병원이나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유능한 의사들도 김만유가 난치의 병에다 나 이까지 많기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아프시였다.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어머니조국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가룩한 마음을 지닌 동포여서 그토록 위해 주고싶으신데 난치의 병이라니 이게 웬말인가. 그를 일떠세우는 약이 저 하늘끝에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약을 가져다 써주고싶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숙소에 이르자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현판으로 향하시였다. 뒤늦게야 연락을 받은듯 변옥배가 미는 삼륜차에 앉아 마중나오던 김만유가 안해에게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방금전까지만도 수령님께서 중요한 국가사업 때문에 외국손님들을 만나고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던 김만유였다. 그이께선 이제 평양에 오셨을가, 오후엔 외국손님들을 만나시게 되어있다고 했지, 그이께선 건강하실가. 아, 한번만이라도 뵈웠으면... 하고 그리움에 젖어있었는데 뜻밖에도 수령님께서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온몸이 뚝뚝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빨리, 어서 빨리...

김만유는 변옥배에게 흥분해서 독촉했다. 허둥지둥 현판으로 향했다. 순간, 아...

정말로 수령님께서 오고계시였다.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웃음에 주위가 확 밝아지는듯 했다. 김만유는 황급히 삼륜차를 세웠다.

《수령님!》

김만유는 목메여부르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감격에 온몸을 떨며 허리를 굽혔다.

순간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놀라시여 주춤 걸음을 멈추기까지 하시였다. 김만유동포가 제발로 일어섰기때문이였다. 너무도 바라시며 마음쓰시던 일이여서 환각이 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드시였다. 다시 보시여도 김만유는 분명 제발로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있지 않는가.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두팔을 벌리시며

반겨 다가가시였다.

《아, 선생이 끝내 일어섰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순간 사람들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제야 김만유가 제발로 일어섰다는것을 의식하고 눈을 크게 떴다. 김만유를 쳐다보다가 불시에 눈들을 습벅거렸다. 지금껏 조금만 몸을 움직이려 해도 동통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며 얼굴을 찌프리던 김만유가 자리를 차고 일어선채, 자기가 일어섰는지 어쨌는지도 의식하지 못한채 울고있었던것이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먼 이국땅에서 병고에 시달리다 온 선생을 인차 만나려 했는데 이제야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김만유도 자기가 지금 서있음을 의식하고 너무도 놀라와 눈을 깜벅이며 꿈은 아닌가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안해 변옥배와 자식들모두가 눈물이 글썽해서 자기를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보고있다. 김만유는 이 모든것이 사실임을 깨닫자 불시에 몸을 떨었다. 갑자기 목이 꺾 메였다.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의 병을 털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김만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변옥배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 오시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설같은 기적이. ...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일본땅에서 걸렸던 마술이 어머니조국땅에 와서 풀린셈입니다, 허허허. 김선생, 이런 기적이 일어난건 바로 김선생의 의지가 강하기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적잠재력이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항일투사들은 산에서 싸울 때 웬만한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것은 그야말로 천어바이를 한자리에 모신 화목하고 단란한 한가정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김만유의 자식들 한명한명 이름을 불러가시며 나이는 몇살이고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 무엇을 전문하는가 알아보기도 하시고 조국에 온 소감을 묻기도 하시였다.

김만유는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수록 그에 보답할수 없는 자신이 죄스럽기만 했다. 이때처럼 자신이 무력함을 통절히 느낀 때가 없었다. 내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저 10만평방부지에 일떠세우는 병원건설자금을 모두 충당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10만평방은커녕 처음 약속된 병원건설자금의 절반의 절반도 못 보내고

있으니...

김만유는 고개를 떨구었다.

《수령님, 전 여기 평양에 와서 건설부지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건설자금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수령님의 말씀을 유정식선생에게서 전달받고서도 저로서는 리해가...》

수령님께서서는 자애에 넘친 시선으로 김만유를 쳐다보시며 헉헉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선생이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실무일군들에게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은 그렇게 하였지만 선생의 소원대로 부지도 몇배 넓히고 병원도 크게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김만유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곱이 찜해오는것을 느꼈다.

《그럼 저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저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선생이 뜻은 큰데 자금때문에 그렇게 계약했다는 말을 들으니 더더욱 그 소원을 풀어주고싶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자금은 걱정안해도 됩니다. 강재와 세멘트를 비롯해서 기본건설자재들은 우리가 다 대주겠습니다. 이 병원은 선생의 명의로 짓는 인민을 위한 병원인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시공은 물론 건설비용과 병원경영에 필요한 비용들도 다 우리 조국에서 대주겠으니 이제 휘방군들의 눈이 둥그라지게 보란듯이 일떠세웁시다.》

《수령님!》

김만유는 가슴속에 산악같은것이 쿵 소리내며 들어와앉는것을 느꼈다. 심장이 몇배로 커지는것만 같다.

인민을 위한 병원...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그랬다.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오직 인민만이 있었다.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수령님이시다. 이 나라를 인민의 나라로 꽃피우고 계신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인민을 먼저 생각했던가. 조국땅우에 자그마한것이거나 나의것을 기증하자는것이 소원이었다. 나의것을 먼저 생각했다.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랑에 합류시킬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 얼마나 얼굴 뜨거운 일이였는가. 가슴이, 심장이 쿵쿵 소리치며 뒹다.

환생을 하는듯 한 기쁨에 김만유는 소리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밤이슬이 내리는 정원에서 김만유는 변옥배가 밀어주는 삼륜차에 올라 천천히 정향나무사이를 누비고있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속삭이는듯싶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그분을 뵈는 순간에

당신이 그렇게 일어설줄은...》

변옥배의 말에 김만유는 감심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에선 백약이 무효였지. 일이 너무 안되어 고민을 하면서 정신적압박감이 생겨 그랬는지... 사실 조국에 오니 조국에 죄스럽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왜서인지 어릴적에 어머니품에 안겼을 때처럼 정신적인 안정이 생기는게 아니겠소. 더구나 수령님의 사랑을 받아안을 때마다 가슴이... 심장이 쿵쿵 뛰는게... 그분의 사랑은 아마도 내 인체내의 모든 세포들까지 다 흥분시킨것 같소. 그래서 혈액순환이 완전히 정상으로 된것이 아닐가.

인간유기체의 내분비선이나 신경계통, 혈액순환계통과 같은 그 모든것이 어떤 때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는가. ... 아마 이것이 내가 풀어야 할 의학계의 새 문제점이 아닌가싶소.》

잠들수 없는 밤... 자식들도 정원으로 나왔다. 너무도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그들이다.

《얘들아, 너희들도 오늘 체험했겠지만 이 아버지는 기껏해서 평양에 일본에 있는 니시아라이병원만 한것을 지으려 했었다. 그것으로 나도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나 했다는 위안을 가지려 했었지. 얼마나 어리석었니, 그렇게 지었다면 얼마나 초라하겠니.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해 동양굴지의 병원을 세우자고 하시는데... 낮이 뜨거워 견딜수가 없구나. 너희들도 들었지? 여기 북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 인민들이 병나도 돈한푼 안 내고 근심걱정없이 치료를 받고있지만 남조선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을 말이다. 그분께서 날보구 말씀하셨지. 남조선에서는 약값, 치료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데 그들을 도와줄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도와주자구... 그들도 다 같은 우리 조선민족이 아니냐구...

우리 수령님은 바로 이런분이시구나.》

모두들 눈을 습벅거렸다. 그 눈들에는 하늘의 별들이 내려 반짝이고있었다.

《아,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이 작은 가슴에 품고 있던 소원까지 다 풀어주시는구나. 꿈으로만 안고 있던것까지 다 헤아려 꽃피워주시는구나.》

5

김만유는 샤쯔바람으로 삼질을 하고있었다. 조국에서부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간단한 로동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치료운동삼아 남새포전에 나와 밭을 일구는 것이다.

여기 지바현 에미에 땅을 사고 남새를 가꾸기 시작한 첫해부터 해마다 씨뿌림철이 오면 바다바

람도 쏘일겸 땅냄새도 맡을겸 포전에 와서 며칠씩 묵곤 하는 김만유였다.

썩— 칠썩 칠썩썩.

멀지 않은 바다가에서는 파도소리가 간단없이 들려온다. 비릿한 해풍이 머리카락을 훑날린다.

옆에서는 문주화가 설레인다. 여러해살이식물이어서 다른 식물들과 달리 벌써 잎들마다 파랗게 기름기가 돌고 청신한 기운을 풍긴다.

고향을 떠나 이역땅에 함께 온 문주화… 이 꽃이 다시 고향으로 갈 날이 언제면 올가.

김만유는 육신이 빠근해움을 느끼며 허리를 폈다. 허리춤에 찻던 타올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훑치는데 승용차 한대가 달려와 포전관리원의 집쪽으로 들어가는것이 얼핏 눈에 띄운다. 누가 오는 모양이었다.

문득 언제인가 집에 찾아왔던 부원장 우라기리 야스오의 검붉은 얼굴이 떠올랐다.

《원장선생,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빛이 나지도 않는 일을 왜 부득부득 하시려우? 선생이 투자하겠다는 자금이 기껏해서 얼마입니까, 평양에 짓는 병원은 어떤거구요?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아닐가요? 이제 후회하지 않나 두고보시우. 선생에게 남는것이 뭐 있겠소?》

김만유는 랭소를 머금었다.

《무엇이 남는가구? 이 랭심이 남는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중히 간직해야 할 이 랭심이 말ियो. 두고보오, 이제 평양에 어떤 병원이 일떠서는가를. … 이 김만유의 평생소원이 풀린단 말ियो.》

조카는 두손을 째 벌려보이며 이렇게 말했었다.

《삼촌, 이 조카가 그렇게도 미덥지 않아요? 우리 고향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도 없어요?》

김만유는 쓰겁게 웃었다. 푹박푹박 째어 말했었다.

《누가 널 여기로 보냈는지 모르긴 하겠다만 가서 일러라. 우리 한 일가나 우리 고향인 제주도뿐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을 한품에 안고 마음쓰시는분이 계신다고…》

협박전화도 때없이 찌뚱거렸다. 국세청에서는 닳새가 멀다하게 찾아왔고 은행과장은 아예 만나 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참으로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일 70돐을 맞는 김만유를 위해 조국에서 축하대표단을 보내주시고 총련예술인들이 축하공연을 하도록 하여주신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한가득 받아 안고 연회장에 앉아 자기를 축하하여 부르는 노래와 춤을 보면서 김만유는 줄곧 울었다. 변옥배도 아들딸 10남매도 아니, 모여온 사람들모두가 울었다. 배우들도 울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것처럼 크나큰 관심속에 사는

김만유…

부원장은 얼굴이 킁킁해져 다시는 마주설념을 못했다. 조카도 돌아가고… 국세청도 대장성에서도 더는 어찌지를 못했다.

병원설립위원들은 성수가 나서 맡은 일들을 해나갔다.

그때부터 찾아오는건 모두 좋은 일뿐이였다.

김만유는 관리원의 집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누가 왔을가. 무슨 일때문에?)

마침내 포전끝 관리원의 집쪽에서 두사람이 나타났다.

순간 김만유는 눈을 홑떴다. 뜻밖에도 만아들뒤에서 걸어오는 연회색제깃옷을 입은 사람이 낮이 익었던것이다.

(가만, 저분이 바로 유정식선생이 아닌가?)

가슴이 후드득 뉘뉘였다. 숨이 가빠졌다.

《유선생!》

《김선생!》

둘은 너무도 반가와 서로 마주 달려와 와락 포옹을 했다.

《김선생,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난 보시다싶이 이렇게 발일까지 합니다. 어버이수령님덕분으루. 그런데 유선생이 어떻게 이 먼길을 오셨습니까?》

유정식은 다시 김만유의 손을 잡아흔들며 흥분 어린 어조로 말했다.

《김선생, 기뻐하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선생을 부르십니다.》

김만유는 눈이 등그래졌다.

《예? 어버이수령님께서… 저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병원개원식을 하는데 주인인 김선생이 빠져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선생을…》

김만유는 더욱 놀라 유정식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병원을… 벌써 다 지었던 말입니까?》

《예, 이번 4월명절을 맞으며 개원식을 하게 됩니다.》

김만유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코언저리가 불시에 시큰해짐을 느끼며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렇게 되었고요. 정말 조국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처음 약속했던 자금도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불효자식이 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김만유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를 떨었다. 유정식은 뜨거운 어조로 말했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선생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병원이름을 〈김만유병원〉으로 짓자고 하시였습니다.》

《예? 뭐라고요? 병원이름을… 어떻게라구요?》

김만유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자기가 잘못 들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렴 어떻게 그 큰 병원에 일개인의 이름을…

조국을 찾는데 큰 기여를 한 이름난 항일투사도 아니고 조국을 지키는데 한목숨바친 영웅도 아닌 평범한 해외동포의 이름을... 어떻게... 분명 이것은 잘못 들은것이다.

유정식은 그러는 김만유의 심정이 이해되는듯 그의 두손을 꼭 잡고 불같이 뜨거운 어조로 말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병원이름을 〈김만유병원〉으로 지어주시었습니다.》

사실이였다. 꿈이 아니였다. 잘못 들은것도 아니였다. 현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는가.

《유선생,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병원을 통채로 기증했다면 또 몰라도... 몇십분의 일도 자금을 대지 못했는데...》

감동에 잠긴 유정식의 얼굴도 불빛해졌다.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였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생각을 헤아려보시고 동무들이 병원이름을 두고 놀라와하는데 사실 김만유선생은 우리 나라 의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짓는것을 발기한 사람도 김만유선생입니다, 돈이 모든걸 좌우하지 않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살면서도 귀한 자금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바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에게 는 수억만톤의 금보다도 그 마음이 더 귀중한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김만유는 갑자기 불덩이를 안은듯 헉 숨을 들이켰다. 유정식의 손을 꼭 부여잡은채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사정없이 물결쳤다. 사실 이 일본에 있는 병원도 내것이지만 내 이름이 아니다. 일본 식병원이름이다. 그런데 평양 한복판의 그 큰 병원에 내 이름을 달아주시다니...

아 수령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뭘 바친게 있다고...

그렇다, 바친것은 너무도 적다. 그저 마음뿐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그리도 귀중히 여겨주시는것이다. 바친것이 하나라면 그것을 열, 백, 천으로 합쳐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는것이다. 우리 수령님은 바로 그런분이시다.

김만유는 목메여 큰소리로 울고 또 울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있는것인가. 그러나 이때까지만도 김만유는 자기에게 어떤 더 큰 사랑과 영광이 기다리고있는지 다는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오찬회까지 마련해주시고 또 얼마후에는 나라의 의학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있었다.

《자 김선생, 이젠 떠납시다.》

유정식의 말에 김만유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들이 탄 승용차는 곧 에미촌을 떠났다.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김만유의 눈앞에 피륙 떠오른것은 자기 집 창가에 외롭게 피어있던 문주화였다. 별로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던 문주화...

김만유는 그 문주화가 어쩐지 평양의 한복판에 피어난것처럼 생각되였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뭘 자리를 찾은듯... 문주화는 김만유 바로 내가 아닐가.

정녕 평양의 한복판에 솟아오른 그 병원이야말로 위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 피어난 한송이 꽃은 아닐가.

승용차는 쾌속으로 달리고있었다.

6

그림처럼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건물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병원내부를 돌아보시고 밖에 나오시자 다시 병원을 향해 돌아서시였다. 두손을 허리에 짚으시고 만족한 눈길로 병원을 바라보시였다.

《병원이 볼수록 멋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도 잘 짓고 설비들도 좋고...》

유정식이 감격에 젖은 어조로 말씀드렸다.

《인민들은 여기 병원에 와보지만 해도 병이 낫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해외동포들이 더 놀라와합니다. 병원이름을 놓고도...》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김만유선생이 인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력사에 남을만 합니다.》

그렇다,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김만유란 이름은 병원과 함께 영원히 불리우게 될것이다. 먼 후세사람들도 《김만유병원》을 두고 김만유가 어떤 사람인가를 추억하게 될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기쁘시였다. 마음이 흐뭇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내세워주고 빛내여주고싶으신 수령님이시였다. 로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 등이 조국땅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지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다 품에 안아갈이 빛내여주고싶으시였다. 조국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잊지 않을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환하게 웃고계시였다. 태양처럼 밝은 그 웃음으로 하여 병원건물은 물론 온 누리가 더욱 빛나고있었다.

동상이 눈물을 흘리다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뜨거운 인정은 산천을 움직이고 깊은 의리는 신명을 감동케 하며 지극한 덕행은 바위도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했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 가면 구내에 중국의 저명한 국가활동가의 한 사람인 주은래총리의 동상이 있다.

주체68(1979)년에 세운 이 동상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운 외국인 동상이다.

바로 주은래총리의 이 동상이 언젠가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지고 있다.

옛 전설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루출현상이 현실에 나타났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저명한 국가활동가로서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깎그리 불태운 주은래총리는 사후에도 자기의 시신을 화장하여 광활한 중국의 대지위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었다.

유언은 그대로 실현되어 주총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드넓은 중국대륙의 그 어디에나 그의 영혼이 어리여 있다.

허나 시신도 묘지도 없으니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애절한 그리움을 안고 마음속깊이 주총리를 추억하곤 한다.

그의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이며 부인인 등영초는 슬하에 일점혈육도 남기지 못하고 먼저 간 남편을 애달르게 추억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못견디게 가슴속에 차오르면 생전에 그와 함께 혁명활동을 벌린 중경이며 남창, 할빈 등 아직도 자기들의 발자취가 력력한 여러 고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마음속으로 그리운 남편을 애절하게 찾곤 하였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나 남편의 정다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나 여기에 있소.》

등영초는 어디 가나 남편과 늘 함께 있는듯싶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주총리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사진과 마주앉아 끝없이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은 등영초가 주은래동지를 처음 만났던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류달리 그리움에 잠겨 그는 그 시절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여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어요?》 하고 조용히 불러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는 지금 조선에 와있소.》라는 말소리가 울려왔다.

《예?!》

등영초는 소스라쳐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착각일까? 아니,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동한 남편의 목소리였다.

설사 착각이라고 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생전에 중국의 대지를 메주밟듯 다닌 주은래총리는 세계 그 어디나 안 가본 나라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가 하많은 나라들중에서도 조선에 있다고 하는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조선, **김일성**주석동지께서 계시는 나라 조선. 등영초의 눈앞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김일성**주석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다.

주총리는 생전에 **김일성**주석동지와 친분관계가 매우 두터웠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주체42(1953)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었을 때 그이를 만난 주총리는 집에 돌아와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참으로 위대한분이시오. 그이의 높은 식견과 비범한 통찰력,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은 그 누구도 견줄수가 없소. 그런 탁월한분을 만나 뵈운것은 나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운이요. 앞으로 세계혁명을 주도하실분은 **김일성**동지이시오.》

그때부터 서거할 때까지 주은래총리가 20여년간 **김일성**동지와 수없이 만나는 과정에 두분의 우정이 끝없이 깊어졌다.

언제인가 국제회의에 참가한 주은래총리는 모스크바에서 주석동지와 한 호텔에 든적이 있었다. 등영초는 남편에게서 들은 그때의 일을 평생 잊지 않고있었다.

어느날 깊은 밤, 자정무렵이었다고 한다.

잠이 오지 않아 궁싹거리던 주총리는 **김일성**주석동지와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그이께서 계시는 호실로 찾아갔다.

조심히 문을 두드리니 그이께서도 주무시지 않는지 《예, 들어오십시오.》 하는 웅글은 목소리가 방안에서 울려나왔다.

주총리는 어쭙은 표정을 지으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미안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혹시 주무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어서 여기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시간차이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야기나 나누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삼경이 지난 깊은 밤에 모스크바에서 주은래총리와 **김일성**주석동지사이에 일정에

도 없던 담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화기에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주총리는 주석동지의 인품에 끌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우리 술이라도 한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엔 술이 없어서...》

수령님께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일없습니다. 나한테 술이 한병 있습니다.》

주총리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 방에 가서 모래주 한병을 가져왔다.

두분은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밤 주총리는 향수에 잠기어 어린시절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이야기며 혁명투쟁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허물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한다.

주총리는 중국 강소성 회안현에서 하급관료학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난지 돌도 되기 전에 11번째삼촌이 급병으로 사망하여 당시 그 지방의 풍습대로 삼촌의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부모들이 그를 양아들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주총리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인 만씨와 길러준 어머니인 진씨 그리고 젖을 먹여준 유모 장씨의 보살핌속에서 성장하였다.

주총리는 남다른 기이한 환경에서 자란 자기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다 말씀드렸다.

시간 가는줄 모르고 프랑스에서 공부하던 류학생시절과 중경에서 혁명활동을 벌인 이야기며 남창폭동과 국공합작때 있었던 일들을 흥이 나서 이야기하는 사이 어느덧 날이 희붉히 밝아왔다.

밤새도록 담화를 나누는 과정에 두분의 정은 한없이 깊어만 졌다.

수령님보다 14살이나 우인 주총리는 오랜 혁명가였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탁월한 정치활동가였지만 김일성동지에 대한 흥미심이 지극하였고 끝없이 존경하였다.

그는 우리 수령님을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을 이끄시는 지도자로 보고 진심으로 아끼고 높이 모시었다.

1960년대초 수령님께서 수술을 받으시었을 때 국사에 몹시 분망하였으나 병문안을 위해 시간을 짜내어 조선을 방문하였으며 주석동지께서 중국동북지방을 비공식방문하시었을 때에도 암수술을 받고 움직이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할빈에까지 가서 주석동지를 자신이 직접 영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주은래총리를 진심으로 존대하시었으며 뜨거운 우정과 숭고한 의리로 대해주시었다.

남편이 마음고생을 하며 시련을 겪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었고 불치의 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마다 불원만리하고 찾아가시여 따듯이 위로해주곤 하시었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주은래총리와 함께 조중

친선의 력사에 그리고 세계혁명을 위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는 나날에 보여주신 혁명적우애는 실로 세계정치사에 류례가 없는 뜨겁고 열렬한 것이었다.

수령님께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나보신것은 주체64(1975)년 4월 베이징의 북해공원안에 있는 정부병원에서였다.

불치의 병에 걸린 주총리는 치료 전기간에 크고 작은 수술을 무려 13번이나 받았다.

수령님께서는 그가 중병에 걸린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위도와 경도를 넘어 찾아오신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주은래총리는 큰 수술을 받고난 뒤여서 운신하기 힘들었지만 누워서 그이를 맞을수 없다면 부인과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새옷을 입고 통통 부은 발에 천신발을 겨우 신고 판례에 어긋나지 않게 갓출것은 다 갖추고서야 주석동지를 맞이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병고에 시달려 몰라보게 된 주총리를 보시자 눈앞이 흐려져 그를 부둥켜안으신채 아무 말씀도 못하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남편과 뜨거운 정을 주고받으시며 오랜 시간 뜻깊은 담화를 하시었다.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은래동지의 병에 대하여 관심하고있는데 빨리 치료를 잘하여 건강을 회복하시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남편을 따듯이 고무해주시었다.

《나는 오래 살아야 다섯달밖에 살지 못할것 같은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김일성동지를 다시한번 만나게 되어 한량없이 기쁩니다. 주석동지를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줄 알았는데 이처럼 찾아주시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시여 먼길을 오신 주석동지께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메여 말하는 남편의 눈곱에서는 뜨거운것이 맺혀 흘러내렸다.

이것이 주은래총리가 김일성동지와 한 마지막상봉으로 되었다.

등영초는 그때의 주석동지의 모습이 망막에 아니, 심장에 깊이 새겨져 일생 잊을래야 잊을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반년이 좀더 지나 남편은 78살을 일기로 한생을 마치었다.

비보를 받고 김일성주석동지께서 너무도 절통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였는지 방금 받은 눈수술에 후파가 미치여 오랜 기간 치료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등영초는 그이의 진실한 의리에 깊이 감심하였다.

남편과 김일성주석동지와와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더듬어보는 등영초는 조선에 있다고 한 주총리의 말이 착각이나 환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가슴속에 언제나 **김일성**주석동지에 대한 생각이 깊이 새겨져있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등영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김일성**주석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올랐다.

불현듯 그는 조선으로 가고싶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조선, 조선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서 주석동지께 인사를 드리고 마음속 진정을 터놓고 싶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맑아질것 같았다.

헌데 이런 신기한 일도 있는가?

김일성주석동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이 한없이 설레이고있는데 문득 외교부의 한 일군이 찾아와 조선방문초청장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인신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등영초동지를 초청하시었습니다.》

《예?!》

등영초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외교부일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일군이 다시한번 말해서야 그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마음이 가까우면 천리도 지척이라 하였건만 지경넘어 먼곳에 계시는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헤아려주시니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주총리가 **김일성**주석동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먼곳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던 말이 조금도 과장이 없는 사실임을 심장으로 느꼈다.

등영초는 서둘러 행장을 갖추고 주체68(1979)년 5월 26일 마침내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다.

그는 평양비행장에 내린 첫 순간부터 놀람과 경탄으로 하여 무아상태에 빠졌다. 국가수반도 아닌 자기를 주석동지께서 친히 초청해주신것만도 고맙고 황송한데 그이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마중하여주신것이다. 더우기 수십만 평양시민들이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달려나와 맞아주는 뜨거운 환영열기에 등영초는 너무도 감개무량하여 솟구치는 눈물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모든 국사를 다 뒤로 미루시고 조석으로 숙소를 방문하여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주석동지의 다심한 사랑은 산천초목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뜨거운 애였고 진실한 정이었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그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주은래동지는 지금 비록 우리의 곁에 없지만 그가 이 땅우에 남긴 친선의 자국은 력력히 빛나고있으며 그는 잊을수 없는 혁명전우로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있습니다.》

연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주은래총리를 잊지 못해하시는 수령님의 변함없는 우정으로

뜨겁게 차넘치였다.

순간 등영초는 조선으로 떠나오기 전에 사진속의 남편이 조선에 와있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나의 남편은 **김일성**주석동지와 그리고 조선인민과 함께 있었구나. 그는 눈굽을 훔치면서 열렬한 환영과 따뜻한 말씀을 일생 두고 잊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눈물에 겨워 답례연설을 하였다.

감격과 흥분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등영초는 며칠후 수령님의 안내를 받으며 함흥으로 갔다.

그날 날씨는 어느때없이 청명하였다.

등영초를 바다가에 있는 숙소에 안내하신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바다바람도 쐬고 해수욕도 하면서 꼭 쉬라고 하시고는 어디엔가 잠깐 갔다오겠다고 하시였다. 다음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디엔가 다녀오시였다.

이틀후 수령님께서는 어느때없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등영초에게 어서 차에 오르라고 하시였다.

잠시후 차는 홍남비료공장(당시) 구내에 들어섰다.

차가 멈춰서자 그는 수령님의 안내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자기를 환영하는 행사려니 생각하면서 주석동지를 따라가던 그는 한곳에 이르자 《아!—》하고 탄성을 지르며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찬란한 해빛속에 주은래동지의 동상이 눈앞에서있었던것이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보!—》하고 주총리를 부르는 그의 두볼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당신 여기에 와있었구려.》

등영초는 울면서 조용히 입속말로 뇌이였다.

그의 곁으로 다가가신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주은래동지의 동상이 그의 실지모습과 비슷합니까?》

목이 짹 잠기여 등영초는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다가 겨우 말씀드렸다.

《동상이… 정말… 정말… 잘되었습니다. 주은래동지가 환생하여 이승에… 돌아온것… 같습니다.》

더듬거리는 그의 말은 자꾸만 끊기였다.

《저 목도리문양도… 꼭 같습니다. … 외투안의 모내의는… 주은래동지가 조선에… 갈 때 날씨가 추워서… 내가 떠서 입힌것입니다. … 소매끝의 문양도 신…통합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아직… 그의 동상을… 세워주지 못했…는데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렇게… 참말 주석님은… 대성인이…십니다.》

자기 조국도 아닌 이국땅 조선에서 가장 친근한 주은래동지의 생동한 모습을 보게 된 등영초는 흘러내리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는 시종 눈물을 거두지 못한채 주석동지께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등영초는 주은래동지가 조선에 와있다고 한 말이 결코 착각이나 환각이 아니었음을 재삼 느끼였다.

사실 이때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주은래동지의 동상을 세운데는 없었다.

일본에서는 주은래총리의 비석을 자그마하게 만들어세우면서도 반년전부터 신문, 방송으로 요란하게 선전하면서 비석 떠들어댔다.

주은래총리가 류학을 한 프랑스에서는 그가 들어있던 고드푸르아려판 16호실을 영구기념호실로 제정하고 그것을 친선의 상징으로 선전하고있을뿐이였다.

조선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의 동상으로서의 처음이였다.

이 사실을 놓고도 등영초는 **김일성** 주석동지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고결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었다.

제막행사가 끝난 후에도 주석동지께서는 주은래동지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깊은 명상에 잠기여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중국손님들과 행사참가자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주은래동지, 잘있으십시오.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마치 산 사람에게 하시듯 작별인사를 하시는 주석동지를 우러르며 등영초는 줄곧 흐느낌을 삼키며 손수건을 부어오른 눈언저리에서 떼지 못하였다. 가까스로 눈물을 거둔 그는 남편의 동상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 주석님이 계시는 조선에 당신이 있으니 마음이 가벼워져요. 내 마음이 자꾸만 조선으로 향하던것이 당신이 여기 계셨기때문이구만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사랑에 의해 주은래동지와 상봉한 등영초는 숙소에 돌아와 안내일군을 통해 주석동지와 **김정일** 장군님께서 남편의 동상 건립에 기울으신 뜨거운 은정에 대한 말을 듣고는 온밤 잠들지 못하고 이불깃을 적시였다.

김일성 주석동지와 **김정일**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주총리의 동상을 세울 자리부터 친히 정해주시고 동상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수십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동상제막을 앞두고 런 이틀동안이나 현지에 나가시여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자그마한 티도 없이 말끔히 퇴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등영초동지를 숙소에서 휴식하라고 하시고 수령님께서 어디엔가 다녀오겠다고 하신것도 바로 그때문이었다.

첫날 현지에 나가시였을 때에는 동상과 그 주변을 돌아보고서 자리가 비좁고 옆에 있는 건물들에 눌러워 한쪽구석에 세운감이 난다고 지적하시면서

생산에 좀 지장이 있더라도 일부 생산건물들을 옮겨 자리를 넓히고 거기에 잔디를 입히고 나무도 많이 심도록 하시였다고 한다.

다음날 또다시 나오시여서는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서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이렇듯 주석동지와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주은래총리의 동상이 파도소리가 쉼없이 들려오는 경치좋은 동해기슭 홍남비료공장 구내의 뜻깊은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다.

조선방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 등영초는 수령님의 하해같은 은정이 너무 고마와 눈물을 거두지 못했다. 이 세상 가장 고귀한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주석동지와 그이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 장군님께 눈물 없이는 읽을수 없는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그후 홍남땅에서는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제막식이 끝난 후 주변을 정리하던 사람들은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찾으신 런 3일간 홍남의 하늘엔 구름 한점 없었다. 날씨가 류별나게 좋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기를 타고나신 수령님이시여하늘도 알아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상대돌밑이 축축히 젖어있는것이였다. 물기가 력연하게 알려였다.

이런 청명한 날씨에 대돌밑이 젖어있다니… 통영문을 알수 없었다.

이때 공장의 한 일군이 송엄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것은 주은래총리의 동상이 흘린 눈물이 분명합니다. 수령님의 대해같은 덕망에 어찌 동상인들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후에도 이런 일은 여러번이나 있었다.

더우기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신 그해 7월, 하늘땅도 비에에 잠겨 눈물을 흘리던 그때, 주은래총리의 동상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비물인지, 눈물인지 가려보기 어려웠으나 그것은 분명히 눈물이라고 단정하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속에 영생하는 주은래총리의 동상이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루출이 아니였다. 그것은 고결한 의리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렇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엔 하늘도 감응하고 산천초목도 감격에 겨워 설레이고 바위도 눈물을 흘린다.

참으로 주은래총리를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로, 고락을 같이하신 친근한 전우로, 가장 가까운 친형제로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그 숭고한 의리의 세계는 삼라만상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김 우 경

대륙만리의 강행군길이어

장 명 길

소문도 없이
조용히 떠나가신 길
얼마나 멀고먼 길이었던가
동북산야를 주름잡아 8 000여리
중화대지를 누비시며 수만리

하루에 몇천리를 달리셨으면
길지 않은 낮과 밤에 만리길을 가셨으랴
내 나라 강도가 끝나고
이 나라 길들이 끝나는 곳에서
또다시 대륙만리에 이어진 장군님의 강행군길

압록강가
내 나라 지경을 넘어
끝없이 이어진 사랑의 길 헌신의 길
그이의 강행군렬차를
너무도 조용히 바래워드리며
잠 못들던 내 나라 북변의 강아

말해다오
조국을 떠나
인민들 생각에 잠 못이루시는 아버지
하루밤에 몇분이나 쉬시였는지
레루이음짬을 넘어서는 잦은 가락에
그 짧은 교요마저 흔들리지 않았는지

가 사

머나먼 그 길에
지나신 강하, 도시와 마을들은 그 얼마
아직은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
대륙의 바람은 차지나 않았는지
장군님 궂은 길을 걷지 않으셨는지

희천의 산발을 넘으시던 그 걸음
강계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인민을 락원의 대문앞에 이끌어오신 그 걸음
조국을 떠나 멀리 외국방문길에서도
불철주야의 로고속에 단 하루도 멈추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길

피로써 뺏어진
조중 두 나라의 우애와 단결을
더 깊고 굳건히 다져주신 역사적인 장정이여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삶이 꽃피나는
내 조국의 평화와 통성변영을 위해
수만리길우에 새겨오신 헌신의 자욱이여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끝없는 그 사랑처럼
장군님 걸으시는 애국헌신의 강행군길
그 길엔 끝이 없구나
조국땅 기슭을 넘어
아득한 대륙만리 한끝까지

백두산을 안고 살자

최 인 덕

그대가 인생의 먼길을 가려면
백두의 눈보라에 마음을 세워보라
그러면 신념과 의지의 영원한 강자로
폭풍길 천만리도 위훈으로 새겨지리
아 백두산3대장군의 기상이 어려있는
백두산 백두산을 안고 살자

그대가 인생을 후회없이 살려면
백두의 천지물에 자신을 비취보라
그러면 순결한 량심의 깨끗한 거울되어

한생의 먼길을 끝까지 비취주리
아 백두산3대장군의 기상이 어려있는
백두산 백두산을 안고 살자

그대가 인생을 참답게 빛내려면
백두의 해돋이에 심장을 불태우라
그러면 영원히 식지 않을 혁명의 불이 되어
강성대국해돋이의 노을로 빛나리
아 백두산3대장군의 기상이 어려있는
백두산 백두산을 안고 살자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무궁할 위인찬가

— 새로 발굴수집된 항일무장투쟁시기 시가작품들을 두고—

서재경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숭고한 리상의 실현을 위하여 변함없이 투쟁의 보람찬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끊임없이 공지를 주고 신념을 주며 단결을 주는 영원한 힘의 원천, 막강한 정신력의 만년초석이 있다.

천리 불길속을 헤치고 혈전만리길을 걸어나가면 서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으로 하여 언제나 사기에 넘치고 용기백배하는 혁명하는 사람들의 긍지, 시련의 천만고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 어떤 역경속에도 흔들릴 줄 모르면서 한번 먹은 마음 끝까지 변치 않는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결한 신념,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을 이루고 수천만으로 뭉쳐 백전백승해나가는 혁명적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단결.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이 긍지, 이 신념, 이 단결을 주는 영원한 힘, 막강한 정신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혁명전통이다.

용융한 대하의 흐름이 땅속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줄기에 마를줄 모르는 시원을 두고있고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가 그 깊고 튼튼한 뿌리에 억센 생명의 원천을 두고있듯이 혁명하는 군대와 인민에게 긍지와 신념과 단결을 주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정신력의 원천은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피줄기인 혁명전통에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간들 우리 인민이 캄캄한 밤하늘에 새별이 솟았다고 《조선의 별》 노래를 부르던 그날의 긍지와 감격을 어찌 잊을수 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힘과 용기를 주고 긍지를 주는 백두산전설과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세상에 태어난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수령관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을 첫째 가는 사명으로 삼았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자기 발전의 첫 시기에 벌써 수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으며 그것을 아끼고 사랑할뿐아니라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고귀한 사상문화적재보인 항일혁명문학예술작품들을 주체

문학의 귀중한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것을 발굴수집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하고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되었던 혁명적인 시가작품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발굴수집하여 지상에 소개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북지방의 항일전구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되었던 시가작품을 수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번에 수집된 시가작품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항일의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흠모하며 따르던 당시 우리 인민들의 주도적인 사상감정과 수령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이 격조높이 칭송되어있다.

새로 수집된 시가작품들은 무엇보다도 항일대전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고계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화같은 흠모심을 진실하고도 생활적인 시적화폭에 담아 레찬하고있다.

항일혁명대전을 선포하신 후 백두산을 무장투쟁의 기지로 삼으시고 험한 산밭을 주름잡으시며 일제침략자들을 족치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은 시가 《백두명산》, 《호랑장군》, 《승리의 소식》에 뜨겁게 분출되어 있다.

뜻깊고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은 시가 《백두명산》에서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하늘을 꿰뚫고 치솟은 명산
굉장하고 웅장할사 백두산이라
만천산을 아래 두고 솟은 기상은
억만병을 지휘하는 장군님갈네

차고찬 흰눈을 이마에 이고
시베리아 맹렬한 풍 불어치여도
끄떡없이 거연하게 솟아있으니
왜놈들 호령하는 장군님갈네

푸르고 거센 동해물결 씻어도
그 정기 변할소냐 백두산이라
억만년 흘러가도 불멸의 기개
승리로 이끄시는 장군님갈네

시가작품에서는 비운에 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건지시기 위한 항일혁명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백두산의 위용과 기상, 정기에 결부하여 격조높이 찬양하고있다.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만리창공에 거연히 솟아 그 위용이 숭엄한 백두산을 가리켜 우리 인민은 조종의 산이라 부르며 숭상하여왔다.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었던 백두산은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님께서 이곳을 중심으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신 혁명의 책원지로 되면서 온 나라 아니, 온 세상에 주체의 기상과 정기를 뽐내주고 삶과 투쟁의 희열을 안겨주는 혁명의 성산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다시말하여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혁명정신, 주체의 신념과 의지, 주체의 기상과 담력을 그대로 체현한 조국해방승리의 상징으로, 고무적기치로 되었던것이다. 이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정신, 혁명업적은 곧 백두의 사상과 정신, 전통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백두산은 수령님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 품모와 인품을 의미하게 되었다.

시가 《백두명산》은 항일의 화불을 높이 휘날리고 신비로운 전설들을 수없이 낳으며 그 이름을 떨치던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곧 우리 수령님이시였던 력사적사실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시적화폭에 훌륭히 담고있다.

시가에서는 첫 편에서 수많은 산을 아래에 두고 하늘높이 치솟은 굉장하고 웅장한 백두산의 웅자를 방불하게 그린 다음 그 기상이 억만군사를 지휘하는 위대한 장군님 같다고 노래하고있으며 두번째 편에서는 만년백설을 이마에 이고 맹렬한 씨비리바람에도 끄떡없이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자태를 왜놈들을 호령하는 김대장의 모습에 비겨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세번째 편에서는 이러한 사상감정을 더욱 승화시켜 만경창과 동해물결에 씻기여도 그 정기 억만년 변치 않는 백두산의 기개야말로 일제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가시는 김대장의 모습그대로라고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조국의 대자연중에서도 가장 숭엄하고 웅장한 백두산과 가없이 드넓은 동해에 비겨 호방하게 터뜨린 서정의 세계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열화와 같은 흠모와 신뢰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우리 인민이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설적인 구국투쟁으로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 항일전의 진두에 서계시는 김대장을 민족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재생의 은인으로 높이 칭송해온 당시 인민들의 진심이 뜨겁게 안겨오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백두산을 하나로 결부하여 호칭한 《백두명산》은 시가가 창작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더욱더 친근하게, 뜨겁게 울려오는 영원한 흠모의 노래, 신념의 노래이다.

이번에 새로 수집된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작보급되었던 시가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시구절마다 굽이치는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수령님을 전설적영웅으로 끝없이 흠모하면서 오로지 수령님 한분만을 우러러모시고 받들어온 당시 인민들의 크나큰 자랑과 긍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이다.

이미 지상에 여러번 소개되었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되었던 혁명적인 시가작품들이 항일의 김대장을 《겨레의 구성》, 《혁명의 수령》, 《항일전의 대장》, 《조선민중의 해님》, 《구국의 영웅》, 《영웅호걸》 등으로 호칭하면서 열렬히 칭송하였다면 이번에 새로 수집된 혁명적시가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산호랑이》, 《조선국의 호랑장군》 등 전설적인 영웅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백두산야를 주름잡으며 일행천리전술과 동성서격의 평활무쌍한 전법으로 일제군경놈들을 삼대배듯 족치시여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겨가시는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우리 인민들은 환희와 기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으며 친근하고 소박한 칭송의 마음을 담아 《백두산호랑이》, 《천하무적 호랑장군》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시가 《호랑장군》에서는 일찌기 동서고금 그 어느 력사도 알지 못하는 비범한 전략과 전술로 백전백승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하무적의 호랑장군으로 높이 우러러 격찬하고있다.

앞산에서 파웅파웅
뒤산에서 파웅파웅
파웅파웅 호랑장군
힘도 세인 호랑장군

눈이라도 화등잔눈
발이라도 대통대발
허리라도 구시허리
꼬리라도 삼단꼬리

백두령을 오락가락
발바리만 족쳐대는
조선국의 호랑장군
천하무적 호랑장군

작품에서는 산중의 제왕인 호랑이, 특히 조선민족의 기개와 용맹, 담력을 상징하고있는 호랑이에 대한 시적화폭을 펼쳐보이면서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신묘한 전법으로 왜놈들을 족쳐대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하무적 호랑장군으로, 조선국의 호랑장군으로 높이 칭송한 여기에는 백두산의 정기를 안으시고 일제놈들을 벌벌 떨게 하시며 승리만을 이룩해가시는 빨찌산 김대장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심과 신뢰의 감정이 뜨겁게 비껴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백두산호랑이로 격조높이 칭송하던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감정은 시가 《승리의 소식》에서도 민족적정서의 흐름을 타고 생활적으로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에헤 승리로구나 승리
산도 물도 싱글벙글 승리로구나
백두산호랑이 파웅 출격에
일본놈 대갈통이 풀썩풀썩
썩은 호박되어 나딩굴었다네
얼싸 좋네 승리의 소식이로구나

에헤 승리로구나 승리
산새 들새 노래하는 승리로구나
백두산호랑이 파웅 출격에
발바리 개무리들 풀썩풀썩
까마귀밥이 되어 나딩굴었다네
얼싸 좋네 승리의 소식이로구나

시가의 구절마다에 어려있는 백두산호랑이 **김일성**장군님의 승전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들의 환희와 기쁨, 산천초목도 그 소식에 접하여 기쁨에 설레이는 정경에 대한 시적일반화는 어깨가 들썩거리고 마음이 흥겨워지게 하고있다.

시가의 한구절한구절 음미해보노라면 일제의 총검이 숲을 이룬 삼엄한 경계망을 헤치고 국내로 진군하여 원쑤의 아성에 불을 지르고 화광이 춤추는 보천보시가의 한복판에 우뚝 서시여 조선은 죽지 않았으며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고 연설하시는 백두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의 열기띤 모습이 보이는듯싶고 전투승리를 경축하여 지양개등판에서 벌린 군민연환대회의 흥겨운 출판이 방불하게 떠오른다.

실로 시가는 백두의 산발들에서 울려오는 원쑤격멸의 총성을 직접 듣거나 전해들으면서 조국해방의 밝은 서광을 비쳐주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선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높이 받들어모시던 우리 인민의 흠모의 열도와 긍지,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느끼게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정서적여운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새로 수집된 시가작품들은 다음으로 백두산에서 울려오는 총성에서 크나큰 힘과 용기를 얻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항일전에 적극 떨쳐나서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의지와 신

념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에서 승리의 총성을 울리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백두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계시는 한 조국해방의 날도 반드시 온다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항일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대전에 적극 떨쳐나서려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양양된 정신세계는 시가 《장군님 계시여》, 《용감히 싸우자》, 《이것이 살길이란다》에 뜨겁게 담겨져 있다.

시가 《장군님 계시여》에서는 우리 인민의 투쟁의지를 꺾으려는 일제의 살벌한 폭압과 만행이 아무리 심해도 **김일성**장군님만 계시면 조선의 해방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신심과 락관이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혁명의 기세는 나날이 높을 때
백정의 학살도 더욱이 심하다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동무들
테로의 학살에 멈추지들 말아라

감옥에 갇힌자 총칼에 살상자
문노니 동무들 그 얼마이더냐
테로가 아무리 흑심타 하여도
장군님 계시여 붉은 꽃 핀다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이 고조되고 전체 인민이 전민항전에 결연히 일떠서는데 질겁한 일제침략자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것을 탄압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민족의 구성이신 **김일성**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굴함없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일떠섰다.

작품에서는 당시의 이러한 시대모습을 시적일반화를 통해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일제의 학살과 만행이 아무리 흑심하여도 **김일성**장군님만 계시면 항일전에서 얼마든지 승리할수 있으며 조국해방의 날도 반드시 온다는 신심과 락관을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시가 《이것이 살길이란다》와 《용감히 싸우자》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강렬하게 흘러넘치고있다.

《이것이 살길이란다》에서는 제 나라, 제땅이 없는탓에 일제침략자들에게 모든것을 빼앗기고 기아와 빈궁, 무권리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처지를 앓아서 눈물만 흘리며 서러워하지 말고 구국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서 총을 잡고 투

쟁에 일떠서야 한다는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으며 《용감히 싸우자》에서도 도란에 빠진 금수강산의 운명을 부들켜안고 신음만 하지 말고 백의민족 삼천만이 단결하여 **김일성장군**님께서 지휘하시는 항일전에 떨쳐나 용감히 싸워나갈것을 격조높이 호소하고있다.

이러한 시형상의 밑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항일대전에 힘차게 일떠설 때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힘차게 맥박치고있다.

새로 수집된 시가작품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 그를 적극 원호하려는 불타는 지향을 생동하고 진실한 시적화폭에 담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인민들의 열렬한 찬양과 기대, 그를 적극 원호하려는 뜨거운 지향과 열정은 시가 《장군님께 보내가자》, 《노래가락》에서 감동적으로 울려나오고있다.

시가 《장군님께 보내가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래차고 긴긴 밭에
이 농사를 이리 해서
누구에게 보내갈꼬
두말이면 잔소리지
백두밀립 보내가자
장군님께 보내가자

야심하고 긴긴밤에
이 벼를랑 이리 짜서
누구에게 보내갈꼬
두말이면 잔소리지
백두밀립 보내가자
장군님께 보내가자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원호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애국의 지성, 애국의 열정의 밑바탕에 맥맥히 흐르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찌기 동서고금의 역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수령님의 비범성, 그 위대성이 가져다준 활력이었고 신심이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한가닥 희망마저 모조리 짓밟개는 가장 악독한 식민지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그 숨막히는 암흑속에서도 다시 솟아날수 있다는 신심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처다볼데가 있었고 의지할데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조종의 산 백두산야를 주름잡으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일제놈들을 무리로 쓸어 넣히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승

전소식은 기울어져가는 겨레의 숨결을 소생시켜주는 희망의 생명수, 마음의 기둥이었다.

되도록이면 철쇄와 총칼로부터 한결음이라도 피해 더 멀리 해외로 떠나는것이 독립운동의 류행으로, 풍조로 되고있던 그때에 제국주의총검이 숲을 이룬 조국땅, 백두산을 타고앉아 조선혁명의 장검을 높이 비껴드시고 무장으로 강도 일제와 피어린 투쟁을 벌리신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 한분이시였다.

사래차고 긴긴 밭에서 농사를 지어도, 깊은 밤에도 벼틀에 앉아 천을 짜도 백두산밀영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원호물자를 보낼것을 먼저 생각하는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열렬한 지향에는 한 인간의 인생체험만이 아닌 우리 인민들이 실지생활을 통하여 폐부로, 심장으로 절감한 력사적체험, 생활체험, 인생체험이 감동적으로 집약되어있다.

작품에서는 백두산에서 승전고만을 울리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 유격대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하던 당시의 벅찬 현실을 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이면서 량만적인 정서에 담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시가 《노래가락》에서도 일제침략자들을 전률케 하는 백두산호랑이부대로 위용떨치며 인민들에게는 언제나 신심과 희망만을 안겨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손꼽아 기다리던 당시의 현실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찬양의 감정, 간절한 기대를 생활적으로 감명깊고 민족적정서가 흘러넘치게 펼쳐지고있다.

참으로 새로 수집된 혁명적시가작품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더불어 용암처럼 끓어번지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열정을 시적화폭에 담아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격조높이 칭송한 혁명적시가작품들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우리 민족이 위대한 수령을 모신 가장 행복한 인민이었음을 자부하게 하고 그 비길데 없는 궁지와 환희를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노래하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적인 시가작품들이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 생명력을 가지는 근거가 있다.

새로 수집된 혁명적시가작품들은 주체문학의 고귀한 전통이며 만년재보인 항일혁명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기치높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끼기 위한 최후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박 승 수

가렬한 전투의 순간에도
눈보라 뼈를 어이는 매복의 밤에도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항시 우리의 마음은 줄달음쳤다
승리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조선인민군전람회》가 열렸을 때 나는
《1211고지》관 해설자로 있었다

그날따라 해살 찬란하고
티없이 개인 가을아침이었다
수령님께서 몸소 오신 그날은 수천수만의 군중
앞에
수백번의 해설을 하여
—인민군대는 어쩌면
저렇게 말도 잘하는지... 하고
칭찬을 받았건만 왜 이렇게 가슴설레이느냐

한없이 고동치는 가슴을 진정하며
나는 해설을 시작했다
원췌의 포탄에 부서지고 깎이며
11메터가 줄어
《1200고지》로 되었다는 상상봉에서
많고많은 원췌의 시체를
함정굴 깊이 쓸어넣힌 승리의 이야기며
원췌의 폭탄은 고지우에 발광해도
아늑한 갯도속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윤택하고
살림은 아담했다고
경애하는 그이께 보고나 하듯이
영웅고지의 전투담을 나는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로운 어버이정도로
구름나무노전에 앉아서 화선악기를 쳐보시더니
내 손의 상처를 보시고
그이는 말없이 쓰다듬어주신다

벅차오르는 감격이여 다함없는 행복이여
이분이 바로 경애하는 우리의 수령이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이분이 우리 민족을 평도하고
이분이 영웅의 군대를 지휘했거늘
우리 어찌 승리하지 못하랴

어쩔줄 모르는 내 어깨에 수령님 손을 얹으시고
미소와 함께 물으셨다
—철갑봉의 저격수
장동무가 잘있소?...
사람들이여 전우들이여!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선동부의 이름없는 봉우리
한 전사의 안부를 물으신다
수령님께서서는 가렬한 전투의 불길속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거니
어찌 우리를 모르시랴

수령님은 우리를 돌격에도
아슬한 육박전에도 항상 승리로 이끌시였고
어버이와 같이 우리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수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전우들은 더욱 용감하였거니
원췌의 짓는 화구를 청춘의 가슴으로 막았고
밀려드는 적땅크를 까부서
언제나 결전에서 승리를 자랑하였다
수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어떤 원췌인들 못 무찌르며
어떤 고난과 시련인들 못 이겨내랴

사람들이여!
전우들이여!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하늘의 태양이 불멸하듯이
승리와 영예 자유와 행복은 언제나 우리의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시면서 나에게 물으셨다
—1211고지 전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자세 갖추어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영웅고지의 전우들의 소원
아니, 전체 조선인민군과 3천만 인민의 념원을
—최고사령관동지의
만수무강을 바랍니다...

실전의 그때를 가슴깊이 회상하며
안개 휘감긴 1211고지를 바라보기
오늘도 벌써 세번째

수령님을 뵈옵거든
내 뚝으로 한번 더 만세를 불러달라던
중기사수동무의 씩씩한 모습을 그리며
한없는 기쁨에 북받쳐
나는 수령님을 뵈옵던
그날의 감격을 이야기한다

(1954)

우리 수령님의 노래

정 영 중

붉은 꽃 정히 안고 만수대 오르니
수령님 우리를 반기여주시네
...

7월의 어느날 아침 방송에서 울려나온 노래의 한 구절이었다.

안해를 재촉하며 방을 나서던 나는 가슴이 뭉클 해졌다. 다름아닌 우리 가족이 그렇게 붉은 꽃을 정히 안고 만수대로 떠나는 길이었다.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울리는 노래, 이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리도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반기여주시길 것이다.

송엄한 생각에 선뜻 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

우리 수령님에 대한 노래가 그리도 많은 이 땅이다.

취재길을 재촉하며 농장벌을 지나느라만 바람세찬 들길을 걸으시며 이 땅의 풍년가을을 안아오신 수령님의 로고에 목메이는 노래가 절로 따라 울리고 석수 쏟아지는 지하천적막장에 들리면 자신께서 나이가 조금만 젊었어도 탄을 캐는 탄부가 되고싶다시던 수령님 생각에 걱정을 터치는 노래가 메아리되어 울리는 땅.

이 땅 어디에 간들 수령님 남기신 사랑의 자옥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노래가 없는 고장이 있으며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그리고 춘하추동 어느 계절에나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노래로 절절히 울리지 않는 단 한순간의 시공간이 있으랴. 노래란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의 심장이 토해내는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의 고백인 것이다.

느닷없이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그때 밥상에 마주앉았던 나는 부엌에서 안해와 인민반장이 《다투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니, 정말 이런 심부름을 자주 시키겠나?》

《내가 무슨 심부름을?...》

《그래 그제도 내가 두번씩이나 찾아오지 않았단 말인가? 문희엄마때문에 식료상점 판매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눈이 까매 기다린다고.》

《아이, 첫물복숭아가 들어왔다고 보채던걸 말이지요? 그건 늦은대로 사왔어요.》

《아니, 그건 남새상점이구... 자, 이번엔 닭알공급이야!》

비로소 《아이구머니, 또 깜박...》 하고 자신의 건망증에 대고 안해가 혀를 차는 소리, 나는 그저 허허 하고 웃고말았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자주 맞다들리는 즐거운 《다툼》이다.

하지만 그 다음순간에는 그 일이 전혀 달리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안해가 범상하게 망각하고 지나보내곤 하는 저 끊임없는 식료품공급, 그속에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하늘같은 사랑이 흐르고있다는것을 과연 안해는, 나는 늘 생각하며 살아왔던가.

지난해 나는 어느 한 대회에 참가한 한 수산사업소일군을 품들여 취재한적이 있었다. 그가 어버이수령님과 류다른 연고관계를 맺고있던 오랜 선장출신영웅이라는 점을 주목했기때문이었다.

반백의 영웅은 이윽도록 침묵을 지키다가 나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었다.

《작가선생은... 우리 수령님께서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었는지 아시우?》

나는 입이 얼어붙은채 눈만 꺼벅거렸다. 너무도 예상밖의 물음이었었던 것이다.

《그렇줄 알았수다.》 하면서 깊은 숨을 토티내리는 영웅의 눈가에 대뜸 뽀얀 물기가 서려올랐다.

《누군들 그 생각을 해보았쥬. 수령님은덕이 고마와 눈물은 흘리면서도 거기까지는... 헌데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이 귀로 직접 들었수다. 수화기로 울려나오는 수령님의 노래를!...》

...어느해 겨울 어장에서 풍어기를 날리며 돌아온 영웅선장은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를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사업소일군의 방으로 달려가 송수화기를 정중히 받쳐들었다. 미처 인사말도 올리기 전에 수화기에서는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나왔다.

《기다렸소. 바다에 직접 나가본 동무의 말을 듣고싶어 여태 기다렸소. 그래 동해어장에 굉장한 명태떼가 밀려들었다는게 사실이요?》

수령님의 음성에서 뚜렷이 감촉되는 류다른 흥분은 영웅선장의 가슴에도 그대로 옮겨왔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굉장합니다. 술한 배들이 배전이 터질 지경으로 잡아올리고 또 잡아올리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너무 반가우시여 거의 환성처럼 말씀을 이으시었다.

《고맙소, 기쁜 소식을 알려줘서 정말 고맙소. 우리 인민들이 물고기를 실컷 먹게 됐단 말이요!》

그다음 느닷없이 수화기로는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흥에 겨운 민요가락이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

영웅선장은 그만 걱정이 사무쳐올라 《수령님!》
하고는 왈각 눈물을 쏟고말았다.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기쁘시
었으면 절로 노래가락을 다 넘기시였겠소. 작가선
생, 그건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만 고동치는
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속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축
복이었다고 난 생각하우!》

뜨거운 축복!...

지금도 영웅선장의 목멘 부르짖음이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쟁쟁 울리고있다.

자연히 안해에게로 생각이 돌아왔다.

때없이 문을 두드리는 해택에 완전히 습관된 탓
에 닭알을 사는 일쯤은 감감 잊고 살아 인민반장
의 지청구를 받은 안해, 그가 우리 수령님께서 장
시간의 현지지도끝에 목이 너무 갈리시어 댁으로
돌아오시자마자 닭알을 찾으시었는데 저택에는 그
닭알이 한알도 없어 끝내 드시지 못했었다는 눈물
겨운 일화를 알고나 있을가.

그때가 바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지도로 만경대며 서포, 두단과 광포 등 나라
의 방방곡곡에 닭공장, 오리목장들이 수없이 일
떠서서 고기와 닭알이 쏟아지던 때였음을...

만수대언덕의 충계를 한단한단 오르는 나의 눈
앞에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이 짝 들어차 안겨
오기 시작했다. 어서 오라 손저어 받기시는 자애
롭고 인자하신 위대한 아버지의 영상이었다. 그
속에 뜨거운 걱정의 노래가 숨엄한 메아리를 일
으킨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찾아주신 내 조국
땅에서 우리 수령님 벼바다 설레이는 협동전야에
가시면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가 그리도 만족
하시여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라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시고 동해어장의 풍어소식을

들으시면 수확기에 대고 건드러진 《바다의 노
래》도 기쁘게 부르시곤 하시었음을 우리 인민은
너무도 잘 안다.

정녕 우리 인민에게 자신의 위대한 심장을 통채
로 주지 않으시고서는 올려나올수 없었을 수령님의
노래였다.

그렇다, 인민에게 한가지, 한가지 복이 더 없혀
질 때마다 그것을 일일이 축복해주시며 수령님 부
르신 기쁨의 노래가 쌓이고쌓여 목메이는 고마움
을 엮은 우리 인민의 심장의 고백 또한 가장 아
름다운 선물로 쌓여 이 땅에 천만가락의 노래가
뜨겁게 메아리치는것이 아니라.

바로 노래많은 복락의 이 땅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에 대한 헌신의 초강도선군장
정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고계
신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칠갑상어는
바다로 나간다고 경애하는 장군님 흥겨운 노래가
락처럼 울조리신 환희에 넘친 현실이 오늘 수령님의
조국에 펼쳐지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리도 바라시던 우리 인민의
모든 이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를 우리는 눈앞
의 현실로 보고있는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인민이 잊지 않
고있는 수령님의 노래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우
리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의 노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칭송의 노래, 영원
히 믿고 따를 충정의 노래로 세세년년 울리어갈것
이다.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앞에 이르니 숨엄하고 경건
한 노래가 계속 울리고있었다.

...

사랑만을 받아온 그 나날들을
가슴속에 못 잊어 정녕 못 잊어
인민은 그이와 심장의 딸 나누네

경구, 격언

- 《작가라고 해서 작가가 아니다.》
-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은 작품뒤에 덧붙
은 구호나 조잡한 군더더기가 아니라 작품속에
반영된 진실한 생활이며 생동한 투쟁이며 고동
치는 맥박이며 사상이며 정열인것이다.》
-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것은 창작사업에
서 아주 효과적이며 본질적인것이다.》
- 《글을 짓는데서 가장 어려운것은 뜻을 찾
는것이며 그것만 다 되면 글귀와 글자를 배
렬하는것쯤은 붓끝에 있을뿐이다.》
- 《책을 태우는건 가장 졸렬한짓이다.》
- 《글 모르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것만 못하
다.》

- 《모방하기에 서두르다가는 알맹이를 찾
을 겨를이 없다.》
- 《정교한 사람만이 정교로운 시를 쓸수 있
다.》
- 《닭을 짓는채로 볶아서는 안된다. 본질
적인것이 아닌 결사실들을 뽑아던지는것을 배
워야 한다. 사실로부터 본의를 잡아내는것을 배
워야 한다.》
- 《정력이 불타지 않는 사람은 녹이 쓴다.
이것은 어길수 없는 법칙이다. 생활의 정력 만
세!》
- 《창작은 아름답고 비상히 힘들고 놀라울
만치 즐거운 로동이다.》

시로 보내는 통고문

한 광 춘

6월의 하늘
동일6.15의 환희가 차넘치던
푸른 저 하늘에 어인 일로
분노의 퇴성이 우는가
증오의 서리발이 날리는가

나는 이 나라의 시인
정녕코 용서할수 없구나
《북 어뢰공격설》을 날조하고
전쟁불사를 떠드는 역적패당의 낯짝에
이 통고문을 폭뢰처럼 던진다

가소롭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
그 무슨 《물증》으로 내놓은
《화약성분》이며 《합금조각》
《어뢰추진체》며 서둘게 새긴 수자 《1번》...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의 거짓을 까밝히는
움직일수 없는 물증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
아무리 사건의 진상을
《북풍》보자기에 감싸고감싸도
이미 낡을대로 낡아 꺾여진
그 구멍으로 보인다
화약을 입에 문 역적패당의 낯짝이

애당초 너희들은
진실을 말해본적이 없다
모략과 날조가 생존방식인 역적패당
오늘은 동강난 《천안》호 《조사결과》에
온 명줄을 걸었구나

민족이 저주하고 세계가 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려는

네놈들의 가증스런 정체를
분별없는 호전광들의 광란을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의 보따리를
유엔에까지 가져가려고 날뛰는 무리
해를 두고 고립과 제재의 광풍을 몰아왔지만
민족의 고립을 당한것은 바로 네놈들
인류량심의 제재를 받은것도 바로 네놈들

전물하라
이 강토의 무심한 돌과 나무도
분노에 치를 떨고 서리발을 세우며
네놈들을 겨누어 총탄이 되고 창끝이 되었다
참았던 그만큼
원췌적멸의 용암이 백배로 치솟아 끓는다

평화와 통일을 질식시키려는 무리
재난과 고통을 낳는 악성종치
겨레는 이미 민족의 명부에서
역적패당의 이름을 그어버렸다
똑똑히 알라, 도발의 도화선은
네놈들의 목을 매는 올가미가 되리라는것을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들에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다
삼천리 끝에서 끝까지 타번지는
분노의 불길로써
전쟁광신자들을 화형하리라

오, 온 겨레의 이름으로
세계의 정의와 량심의 이름으로 판결한다
사형선고!
이것이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준엄한 통고문이다!

난파선 《리명박》호

한 승 길

대대로 물려온 조상의 땅도
영영 두동강내려 피하는자들
민족을 리간하는 미끼로
토막난 배 한척쯤 내던지기는 식은죽먹기

격노한 민심의 파도속에
수장될 처지에 빠진
정치난파선 《리명박》호
쪼각난 《천안》호는
역적패당들이 잔명부지로 부여잡은 《구명대》

허나
인류의 눈초리앞에
들장이 난 거짓말—《북 어뢰공격설》

구멍이 날대로 난 그 광대극이
어찌 《구명대》가 될수 있으랴

피할 길 없는 파국의 소용돌이속에
부대끼며 표류하는
《리명박》호의 구조를 위해
모략의 제물로 삼은 《천안》호도
네놈들의 운명을 건져주지 못한다

서투른 광대극으로
제스스로 죽음의 함정을 판 최악의 무리
해일처럼 밀려드는 증오의 불바다속에
난파선 《리명박》호는 영영 수장되리라

그리움의 세계가 펼친 강렬한 서사시적 화폭

—서사시 《수령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를 두고—

김 봉 민

오늘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의 녀원과 리상이 위대한 현실로 꽃피나는 환희롭고 성스러운 선군시대에 살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리도 녀원하시고 리상하시던 그 모든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행복한 생활로 꽃피나는 시대, 거창한 새 력사의 순간이 우리앞에 도래한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뜨거워지는 우리의 긍지인가. 얼마나 벅차고 위대한 오늘인가.

백두산위인들의 그 숭고한 리상과 녀원이 꽃피나는 오늘의 시대는 거창한 시대정서를 낳았다. 위인들의 녀원과 리상이 실현되는 선군시대에 나날이 쌓여만지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낳았다.

그리움은 노래를 남긴다고 하였다. 그리움은 시를 낳는다고 하였다.

수수천년 흘러온 인류의 장구한 력사우에 그리움이 남긴 노래는 얼마이며 그리움이 낳은 시는 또 얼마나 많은가.

인간의 정, 인간정서의 총체라고도 말할수 있는 이러한 그리움은 오늘 격동의 시대, 선군시대에 와서 인간이 느낄수 있는 가장 높은 정서의 봉우리를 이루었으니 서사시 《수령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김석주, 리창식 작)에서는 이것을 서사시적화폭으로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보다 심도있고 의의있게 보여주는 방향에서 종자를 잡고 사상과 주제를 밝혀야 한다.》

서사시는 억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리움의 세계에서 종자를 잡고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밝힘으로써 서사시의 사상에술적성과를 독특하게 발휘하고있다.

1. 그리움은 무엇인가

그리움은 느끼는 마음, 따르는 마음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가지는 그리움의 일반적개념이다.

서사시는 그리움의 세계를 펼침에 있어서 보통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정서로가 아니라 보다 숭엄

하고 깊이있으며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시대적인 정서로 폭넓게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렬한 정서세계를 이렇게 펼치였다.

...

온 한해 강행군으로

천가지 만가지 리상을 꽃피우신

우리 장군님

이해의 날과 날들을 더듬어보시는

그이의 마음속엔

더더욱 그리워지시는 수령님 생각...

...

한가슴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짊어지고 온 한해를 수령님의 녀원과 소원을 풀어드리시기 위해 초강도강행군의 날과 날로 보내오신 우리 장군님을 뜨겁게 우러르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강하게 엿보인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정적주인공이 느끼는 위대한 그리움의 세계에 대하여 음미해본다.

더없이 소박하면서도 거룩하신분, 그지없이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면서도 숭엄한 위인의 정서가 아니던가.

서정적주인공은 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한다. 변이 난 해 주체98(2009)년의 한해를 다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찾았다. 아니, 찾았다기보다 심장으로 깨달았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위인의 정서—그리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다함없는 충정이었고 또 그 충정으로 불타는 위대한 심장박동의 메아리였다는것을.

이것은 곧 그대로 시의 종자로 되었다.

깊은 사색끝에 무게있게 얻어낸 시의 종자는 깊은 철학을 안고 작품의 서정도를 한결 심원하게 둔구어주었고 시인의 정서적열정을 강렬하게 촉발시켰다. 강한 촉발로 일구어낸 서정의 열정이 그리움의 정서로 노래되는 웅건한 서사적화폭을 펼치였다.

위인의 끝없는 충정과 위대한 심장의 박동에서 철학적인 종자를 얻어내고 그 종자로부터 가장 위대한 인간의 정서를 그려보인 작품은 첫시작에

서부터 독자들을 작품세계에 강하게 끌어당길수 있었다.

2. 그리움, 체험 그리고 서정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101(2012)년으로 줄달음쳐달리고있는 우리가 오늘 새해 주체99(2010)년의 또 한계단을 당당히 밟으며 지난해를 자랑스럽게 돌이켜본다.

변이 나는 해, 가슴벅찬 환희로 물결친 주체98(2009)년이며, 너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해였던가. 얼마나 많은 변이 일어나 세계를 깜짝 놀래웠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었던가.

생각만 해도 가슴벅찬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비롯한 세계를 또 다시 깜짝 놀래운 자랑스러운 성과들, 최첨단의 경지 CNC기술의 성과적인 개발, 성장에서 쏟아진 주체철폭포의 장쾌한 불보라!...

실로 가슴벅찬 한해였다. 승리와 자랑으로 빛나는 한해였다.

서사시에서는 승리와 자랑으로 조국청사를 물들인 한해, 변이 나는 해 주체98(2009)년의 자랑스러운 시대모습을 가슴벅차게 노래하고있다. 그러되 서정적주인공은 시대를 객관적으로 보는 관조자로서 아니라 시대속에서 시대를 느끼고 시대를 체험한 시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애쓰고있다. 그 바탕에 바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진하게 채색되어있어 작품은 그리움으로 시작되고 그리움으로 온 한해를 보내온 지난해의 서정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강렬한 체험으로 노래되는 그리움의 정서를 이렇게 펼쳐치고있다.

...

수령님 바라시는 래일을
하루빨리 당겨오시려
10년을 달려온 그 거리를
이 한해에 주름잡아오신 우리 장군님
얼마나 많은 날을 렬차행군으로 보냈으면
렬차가 집갈고
집이 러관처럼 느껴진다 하셨으랴

...

그리움의 체험이 펼친 또 다른 그리움의 세계라

고 말할수 있다.

아버지수령님이 너무도 그리우시여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래일을 하루빨리 당겨오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지극한 충정의 세계, 정녕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위대한 그리움이였다. 이 그리움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체험이 또 하나의 그리움의 세계를 낳았다. 바로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끼니도 제때에 못 이으시며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을.

이렇게 그리움의 체험으로 뜨거운 정서세계를 펼치고 또 그것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정서세계를 펼친 시는 그 체험을 더욱 승화시키고있다. 하여 보다 정서적이며 눈물겨운 느낌을 자아내는 《그늘》과 《아래목》이라는 극히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정서적체험과 흥남에서 락원으로,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희천, 김철 등 조국땅 방방곡곡에 위대한 령도의 자욱을 찍어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대한 체험 등에 대한 비상히 강화된 시적정서를 펼쳐보이고있다.

끝없이 새겨가시는 초강도강행군길에 대한 정서적체험, 거기에는 수령과 군대와 인민사이에 오가는 간절한 그리움과 이 그리움이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선군시대의 위대한 현실이 깃들어있다.

시에서는 이렇게 그리움의 세계를 정서적인 체험으로 펼쳐보이다가 그 체험속에서 그리움에 대한 보다 인민적이며 시대적인 주정을 터치고있다.

...

좋은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일복을 타고난 가문이라고
인민을 위한 일감이 많이 생길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는 장군님

그래서 자신의 한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 하셨으니
사람들이여
우리 인민의 마음을 다 쥐여짜면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만 남지 않으랴

...

그리움의 체험이 펼친 시대적서정—고마움! 그것은 그리움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체험한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열정의 산

물이었다.

서정적주인공은 시대를 눈으로만 보지 않았다. 심장으로, 온 가슴이 바라보고 느낀 시대에 대한 열정의 체험이 바로 그리움은 곧 군대와 인민의 고마움이라는 시대적정서를 낳은것이다.

그렇다.

우리 시대에 차넘치는 그리움의 세계는 우리 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인간의 정이기 전에 군대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과 또 그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께 시대가, 조국이, 인민이 드리는 최대의 감사이고 고마움의 마음이었다.

그리움의 체험으로 시대적정서를 감동깊게 펼쳐 보인 시는 그저 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움이 낳은 전인민적송가였고 그리움으로 충만된 시대의 찬가였다.

3. 그리움의 서정과 서사적 요소로서의 그리움의 결합

서사시에서는 작품의 서정으로서의 《그리움》과 서사적요소로서의 《그리움》의 밀접한 결합으로 작품의 사상예술적성파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있다.

작품은 정서적양상의 서사시로서 보다 서정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서사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면서 작품의 품위를 돋구고있다.

서사성이 없는 서사시를 생각할수 없다. 하여 작품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주정과 함께 서사성을 살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있다. 이러한 서사성은 작품의 서정성을 강렬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말하자면 작품에서는 종래의 사건위주의 서사시들을 지배하던 사건발전의 일관한 체계가 아니라 그것을 사건, 일화, 세부 등 다양한 서사적토막들로 분리시키고 그것을 서정적주인공의 주정토로를 위한 밑바탕으로 적극 활용하고있는것이다.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작품에서 서사성의 제1요소는 영원땅에 건설된 만년대계의 언제를 바라보시며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치하하시면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말씀을 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에 대한 서사적형상을 통하여 제시되고있다.

이 경우 서사성은 작품에서 사건선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이 사건선을 통하여 서정적주인공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온 가슴을 짊

채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을 짊막한 시형상속에서 감동깊게 서사화하고있는것이다. 이 서사적요소로 하여 시에는 깊고 풍부한 그리움의 정서적체험을 펼칠수 있는 일정한 계기가 마련되고있다.

서사성의 제2요소는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의 녀원과 소원이 어려있는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위인상에 대한 서사적형상을 통하여 제시되고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그리움으로 일관된 사건선을 이루면서 그것으로 하여 언제나 우리 수령님을 그리워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심중의 세계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파헤치도록 서사화되고있다.

이렇게 그리움으로 충만된 서사적요소들이 작품의 곳곳에 삽입되어 우리 시대에 가장 팽배하게 차넘치는 그리움의 서정을 철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나가는데 적극 도입되고있다. 또 그것들은 우에서처럼 사건선뿐으로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일화로, 필요에 따라서는 생활세부로 리용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의 세부적인 종합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작품에서는 이것들이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선, 주정선과 밀접히 유기적으로 련결되면서 변이 나는 해 주체98(2009)년 한해의 거창한 시대적화풍을 폭이 있게 조형해낼수 있었다.

이야기들의 다양한 형상규모, 이 규모의 서사적요소로서의 재치있는 리용 등은 서정적주인공이 노래하는 그리움의 서정을 아름답게 채색하여주었다.

이처럼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주정과 서사적요소들로 장비된 서사성과의 조화로운 통일로 하여 작품은 그리움이라는 인간정서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자기의 성과를 올려세우고있다.

이상에서 서사시 《수령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의 사상예술적성파에 대하여 보았다.

다정다감한 주정과 설화로, 때로는 양양된 토로로 격정에 넘쳐 우리 시대의 기본정서, 그리움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감동적으로 밝힌 서사시는 작품이 내뿜고있는 향기와 색채로 하여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성과작으로 되고있다.

올해 우리에게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어버이수령님의 우리 인민을 위한 그 숭고한 념원이 더 활짝 꽃피게 해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작가들이 그 어느때보다 올해 제시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더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도 하고 창작사업도 벌려 더 좋은

애국렬사묘앞에서 외 1편

김명옥

늦어 모를 낸
한배미의 눈을 두고
그리도 마음 무거워
스스로 오르는
우리 마을 애국렬사묘

보탑을 잡은채
원쭉의 기총탄에
발머리에서 숨졌다는
마을 녀맹위원장어머니
가슴치며 나에게 묻는듯
—어떻게 지킨 땅이라구...

가슴에 말뚝을 박히우면서도
애국미 묻은 곳 대지 않은
그날의 세포위원장아저씨도
—어떻게 우리가 목숨과 바꾼 땅이라구...

아 가슴을 파고드는
렬사들의 심장의 웨침
전세대가 내 가슴에
불뭉치마냥 짝 채워주는 말

그날엔 그들이 피로 지켜준 이 땅
오늘은 지키는것만이 아닌
가꾸는것도 피를 바치고
넋을 바쳐야 함을

그 준엄한 50년대가
내 가슴을 쿵쿵 두드리는 말
고향의 벌 한가운데
나를 일떠세워주는
오 우리 마을 애국렬사들이여!

땅에도 숨결이 있다

내 숨결이 흐르다
문득 끊기운듯
이삭이 설레이지 않는 땅

바쁜 모내기철이라고
씨앗을 묻지 못하고고
무심히 스쳐지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마을 구석진 곳

보는 사람
탓하는 사람 없어도
가을날 내 가슴을
말없이 파고드는
량심의 아픔이여

잡풀만 무성해진
땅의 침묵
나의 피로움인듯

온몸에 흐르던
나의 피줄 한줄기 끊어져나간듯

바라보면
대대손손 태를 물었다고 고향땅이라
찾을 땐 피를 흘리며
목숨과 바꾼 땅
투사들 그 숨결 오늘도 들리는 땅

성스런 그 땅우에
이삭의 설레임소리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녕 숨죽은 땅

넋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진정을 깡그리 쏟아바치며
이 땅 한끝까지
날과 달을 이어 농민이 이삭과 맺고사는
참다운 숨결 아, 땅에도 숨결이 있다

~~~~~  
작품들을 창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수령님의  
그 념원, 우리 장군님의 리상을 현실로 실현하  
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작가들은 자기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그

리고 또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만족해  
하시겠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너도나도 인민생활향  
상에 이바지하는 명작들을 창작해냄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  
데 힘있게 이바지하자.





# 병사의 어머니

림 봉 철

## 1

《조선인민군군사우편 제198-3117(人)에서 복무하는 리철경동무의 어머니가 읍습니까?》

## 2

어머니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다. 발이 땅을 짚는것이 아니라 땅이 훌쩍훌쩍 튀어올라와 발에 닿는것만 같았다.

(넘어지겠어. ...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새콩, 말굴레풀따위에 자꾸만 발을 걸채이며 휘구부정 드러누운 활매등판의 등허리를 한달음에 넘어섰다. 3월에 잡혀들면서 겨우내 까등까등 말라버렸던 대지에도 갇힌갇힌 숨이 오르기 시작했다. 느릿느릿 봄가지개를 켜는 풀판이 한열으로 돌아앉고 반기듯 다가선 울타리숲이 머리위에 줄줄이 지나가고있을 때 어머니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조잘대며 흘러드는 산골물소리가 마음의 한구석을 물감처럼 곱게 적셔주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는 잡자리를 잡으려 가던 소녀시절처럼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 다치면 금시 녹아버릴듯 하이얀 버들개지를 한손에 따들었다.

(한해가 지났구나!...)

아들 철경이가 이 아카시아숲을 지나 초소로 떠나간지 한해가 지난것이다. 그날 어머니는 철경이의 팔을 꼭 끼고 한가닥 오솔길이 산골물과 의중게 어울려서 굵거니사귀거니 읊으로 뻗어간 시오리 동구길을 꿈처럼 걸어갔었다.

《에그나, 네 군복에 꽃이...》

분장마을을 떠나올 때 누군가가 달아준 종이꽃이 어느결에 흩날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얼핏 난색이 되었던 아들은 길옆 아카시아나무에서 포도송이처럼 츠렁츠렁한 꽃을 한송아리 푹 따서는 군복

웃주머니에 꽂아넣었다. 그리고는 《날 좀 보세요.》 하고 뽐내기라도 하는듯 장하니 뒤집까지 척지고 서서 싱긋싱긋 웃어보였었다. 다 자란 자식이건만 그때는 왜 꼭 철부지로만 여겨지던지... 어느덧 아담한 분장마을이 저쪽에 내려다보인다. 등나무줄기가 치렁치렁 드리운 나지막한 병풍바위를 등에 업고 새빨간 기와를 씌운 예닐곱채의 살림집이 띠엮띠엮 서있는데 그것들은 마치 이 세상의 인가가 여기서 슬그머니 끝납니다 하고 줄임표를 찍은듯 푹푹푹 찍혀져있었다. 막상 집에 들어선 어머니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리고있을 때 짹대문에 매여달린 방울이 팔랑팔랑 울리더니 《있나?》 하는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에는 툇이며 망치, 널판자따위를 옆구리에 궁겨안은 손로인이 병글거리며 들어서고있었다.

《아주버니가 어떻게?...》

《어떻게라니, 허허... 내 다 들었다니. 뭐 평양에서 기자선생들이 온다며?》

《예, 〈병사의 고향소식〉을 찍는대요.》

《경사야! 촌아낙들이 텔레비에 다 나오구. 이 활매등판이 열려서 이런 일은 처음일세. 헛-흠...》

로인은 헛기침인지 반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연방 터치며 토방우에 털썩 눌러앉아 입담배를 비벼말았다. 기본목장으로부터 한나절길이나 떨어진 여기 활매등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30리등판에 펼쳐진 잡판목숨을 자연풀판으로 개조하면서 별도 칠래 부업반을 하나 따로 조직하였다.

이틀테면 그 책임자격이라고 할수 있는 손로인은 아마 자기의 손바닥이나 다름없는 이 심심산골 외토리동네가 텔레비존에 나오게 됐다니 참 믿어지질 않아서 이집저집 순방을 하던 모양이었다.

《아주버니, 마침 잘 오셨어요. 참말 우리 분장에 기자선생들이 올가요?》

《허허, 온통 그 소리라니, 우리 활매분장이 어째서? 텔레비에 나오고도 남지. 그러구… 이 등판에 그래 후방가족이 어디 철경이 예미 하난가?》

《하긴 그런데…》

《웁다마다. 임자만 해두 아무 살불이 없는 이 산골에 이사를 와서부터 언제한번 손 마를 날이 있었다. 참 일이야 많지도 했지. … 글썄 우리 목장에서 만드는 요그르트가 평양에까지 실려간단니까.》

로인은 비록 자기들이 사는 고장이 보통지도에는 이름조차 올라있지 않는 심심산골이지만 하는 일로 보면 너무도 장하고 손꼽힐만 한 곳이었어서 평양이 다 알고있다고 굳게 확신하고있는듯싶었다.

《이제 저 울타리숲언저리에 들어앉힌 벌통들에서 꿀까지 푹푹 떠낼 때쯤이야, 흐흐…》

로인의 입이 벅글서 열리려는데 어머니는 《그런데 말이예요.》 하고 자못 걱정스럽게 말머리를 뻗었다.

《난 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옷을 입으면 좋을가요? 말도 몇마디 해야겠지요? 아이구 원, 속이 다 떨려서…》

《넌장, 이제 기사선생들이 오면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해라 하구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으리요.》

《그래두… 철경이가 보겠는데…》

정말 자기의 모습을 아들이 보고 그의 지휘관들이 보고 또 온 나라가 다 보게 될거라고 생각하니 어머니는 벌써부터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여 진정할수가 없었다. 어느새 잎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난 손로인은 《아차, 이 정신 좀 보지.》 하고 토방돌우에 망치자루를 탁탁 그루박으며 말하였다.

《신발장을 좀 수리해야겠네.》

《예?! 무얼 수리해요?》

어머니가 어리둥절 되받아물었으나 손로인은 대답대신 망치자루에 감아가지고온 가느다란 실꾸리를 뱅글뱅글 되돌려 풀어내고있었다.

《그건 뭘데요?》

《보아하니 이 집 철경이도 군대생활을 충실히 하고있는 모양인데 혹시 알겠나. 래일이라도 문득 표창휴가를 오게 될런지. … 그러니 신발장의 칸칸이 그 애 군화보다 낫지 말아야지.》

불시에 가슴이 뭉클해진 어머니는 손잡이가 반질반질한 쟁기들을 주련이 벌려놓고있는 로인의 혼연스런 모습과 혈쫄한 왕골모자를 그렇게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아주버니…》

밤색라크를 칠한 석단짜리 자그마한 신발장이 마당에 들려나왔다. 손로인은 풀어낸 실오리로 이

뽕저뽕 마름을 해가며 거퍼 두단을 올려팔 잡도리였다. 매끈하게 대패질한 두번째 단을 신발장우에 올려놓았을 때 어머니는 손을 내밀며 간청했다.

《참, 그 망치 제게도 좀 주세요.》

《망치는 왜?》

《내 손으로도 못 하나 쳐야지요.》

《뭘 임자가?!》

그러거나말거나 어머니는 반 억지다싶이 망치를 앓아들고는 못쌈지를 뒤통거리다가 한참만에야 그중 반짝거리는 못 하나를 집어들었다.

《형, 남정네가 망치질하는 아낙의 곁을 들다니, 쫓쫓…》

그러면서도 손로인은 못을 칠 자리에는 손톱으로 표식을 그어준다. 못끝에는 침을 발라서 쳐라 까근까근 잔소리를 해주었다. 그러나 기름기가 반질거리고 대가리가 동글동글한 두세개의 못들이 연거퍼 땀시나게 쭉쭉 들어가 박히는것을 보자 눈이 둥그래지는것이였다.

탕 탕 탕…

망치소리는 어머니의 가슴속에 이름할수 없는 찌릿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다가들듯 더 크게 들려왔다. 그것은 아득히 흘러가버린 옛시절 혼련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뒤뜰 창문가로 다가와 새벽문을 두드리던 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하였고 또 언젠가 이사집을 가득 실은 자동차의 기관실뚜껑을 탕 탕 내려치면서 무섭게 차를 세우던 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하였다.

그래… 이제는 참 오래전의 일이다. 지금은 분장사무실이며 진료소가 자리잡은 저 앞기슭에 한때는 토피로 쌓은 여섯동의 군인사택이 있었다.

처녀시절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민속연구사로 일하던 어머니가 여기 분계연선마을에 시집을 왔을 때에는 갓 신설된 공병대대가 총동원되어 우불구불한 달구지길을 토사도로로 확장하던 때였다. 공병들은 그 길을 아스팔트도로 못지 않게 닦아놓느라고 하였지만 아직 그 길우에는 어머니가 살던 도시에서처럼 유리창이 번쩍거리는 시내빠스도, 《물매미차》 들도 아무것도 오가지 않았다. 이따금 인상좋은 후방부대대장을 태운 《태백산》호 자동차가 트림을 하듯 압축공기를 북—북—내뿜어대며 어디론가 달려갔다가는 쌀과 된장, 미역파위를 가득 싣고 다시 나타나곤 하였다.

그 시절에야 비로소 어머니는 호미질, 낫질을 배웠고 제 손으로 장작도 빼개보았다. 처녀시절에는 그네뛰기와 널뛰기, 제기차기며 윷놀이와 같은 민속놀이연구가 유일한 일감이였던 어머니의 두손바닥에 어느덧 물집이 가라앉고 장알이 박힐무렵 남편은 어데선가 새 솥들을 하나 가져다가 부뚜막우에 슬그머니 놓아주었다. 새벽밥을 지으러 일어났던 어머니는 망연히 턱을 고이고 앉아 그 차거

운 돌덩이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어쩐지 야속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설 부대의 드바쁜 생활은 찌지 뚫은지 미처 그 맛을 음미해볼 사이도 없이 어머니의 결을 날아지나가 고있었다.

철경이가 세살잡이던 해의 생일날이었다. 겸사 대대참모장으로 임명된 남편도 축하할래 아침부터 판가마에까지 불을 지펴놓고 떡을 빚는다, 지짐을 지진다 신바람이 났는데 일이 안될세라 부대에서 긴급지시가 떨어졌다.

모든 세대들이 당장 이사집을 꾸러놓고 차가 도착하면 즉시 떠날수 있게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부대가 새로운 방어구역으로 통채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창 꼬질꼬질 지짐판을 달구어가던 판가마마에는 물이 들썩워졌다. 손가락을 입에 문 철경이가 혼나간듯 해담비는 어른들의 모습과 식어가는 지짐판을 번갈아 쳐다보며 울음이라도 터뜨릴듯 비죽거렸다.

그런데 집집에서 기르던 돼지며 염소들을 밀몰아 한차에 싣고나니 차가 한대 모자랐다.

그때 숙경이네 집(대대장의 가족이었다.)과 철경이네 집이 들어서 한차에 《동거집》을 싣기로 했던 것이 일화를 창조했다. 사실 친동기처럼 어깨 나란히 줄지어선 군관사택마을의 녀인들은 서로 나이도 어금지금했거니와 살림살이형편도 고루 고루했었다. 두 집도 기실 한집에라도 쫓아질 것 같던 살림이었으나 정작 집을 꾸리자고보니 별게 다 귀하고 손때묻은 보물같아서 자꾸자꾸 쌓아올린 것이 결국은 이사집이 아니라 《이사탑》이 되었다. 젊은 안해들은 자기를 보기에 민망스러워서 허리를 부여잡고 깔깔거리는데 안될세라 남편들이 나타났다.

철경이 아버지와 함께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한 날한시에 군관이 된 최정목대대장은 대번에 눈을 부라리며 자기 안해를 닦아세운다는데 결불에 놀란 녀인들이 적재함에 달라붙어 손에 닿는대로 잡동사니들을 끌어내리느라 야단법석을 치는 판이었다. 오직 한사람 어머니만이 못박힌듯 그 자리에 서있었다. 갑자기 어머니의 발치에 분홍빛꽃보자기에 싣것이 철썩덕 하고 떨어졌다. 그 째에서 금시 썩넌 갸진갸진한 송편떡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나왔다.

(?!...)

다음순간 자기 남편이 적재함우에 올라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뭘 멍청해있소? 시간이 없소. 시간이...》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거나말거나 모자끈을 늘려어 턱에 건 남편은 비좁은 《철경이네 집구간》을 여기저기 맴돌면서 무슨 적지

뢰라도 해제해내는듯이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마구 뽑아던졌다.

《이것두 내리오!... 또 이것두!》

《탑》은 낮아졌다. 내려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이쪽저쪽 짐들을 살펴보던 남편은 부릉 하고 발동이 걸리는 순간 기관실뚜껑을 탕탕탕 두드리며 다급히 소리쳤다.

《잠깐!》

그리고는 이미 남긴 것이 없는 빈집으로 총알처럼 날아들어갔는데 다시 나타난 그의 손에는 언젠가 부뚜막우에 슬그머니 놓아주었던 그 솥돌이 들려져있었다. 너무도 닳고닳아서 부러질듯 허리가 다 잘록해진...

어머니는 대번에 귀뿌리가 빨개졌다. 이랬든 저랬든 남편이 가정에 마련해놓은 첫 《재산》이고 신살림의 애뜻한 표적이 아니던가. 허나 그때 남편의 마음에는 허리 잘록한 그 솥돌의 의미가 다만 그뿐이었던가. ...

그것을 어느 구석에다 박아넣을지 훌쩍 차바퀴를 딛고서서 두리번거리던 남편은 왜서인지 그냥 내려서고말았다.

《저, 그걸...》 하고 어머니는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없이 자기의 손수건으로 솥돌을 꼼꼼스레 감싼 남편은 어깨에 걸쳤던 전투가방을 확 끄당겨 열고는 그속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었다. 남편의 몽툰한 엄지손가락이 가방뚜껑에 달린 맞단추를 꼭 누를 때 그 소리는 마치 두터운 철문이 영영 닫아버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차에 오른 어머니는 어린 철경이의 머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그 때때때끔한 머리칼에 축축한 두볼을 비비고 또 비볐다.

(난 왜 그때 한마디 말도 못했을까. ... 남들은 모두 일어서서 빨리 뒤따라오라고... 그렇게 손을 저어줄 때도 난 그냥그냥 철경이를 붙안고 울먹이고만 있었지. 그래서 철경이... 철경이는 아버지의 마지막모습마저도 못 보지 않았던가. 죄를 지었지, 죄를...)

이렇게 어머니는 이따금 홀로 있을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하곤 하였다.

(철경이 아버지도 떠나가는 우리를 향해 손을 저어주었을까? 다른 남편들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그런데 어떤 때에는 꼭 그랬을거라고, 또 어떤 때에는 그저 훌쩍 돌아서서 가버렸을거라고 종잡을수 없는 생각이 뒤바뀌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새로운 거주지에 도착해서 이사집도 채 풀어놓기 전에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대장 최정목이 남편이 쓰던 전투가방만 하나 무겁게 들고 어머니앞에 나타났다. 손수건에 정히 싸넣은 그 솥돌을 다시 보는 순간 어머니는 왈칵 쏟아지

는 눈물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떠나간 다음… 그가 나를 찾아왔더구만요. 오늘이 철경이 생일인데 자기가 너무했노라구… 그러더니만 불쑥 이 손수건을 펼치고는 〈정목이, 이 솥돌 말이야. 허리가 잘록한게… 거우리 집사람갈지 않아?〉 하지 않겠습니까. 난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끔찍한 애처가인줄 알았더니 하필 비길데가 없어서 그따위 돌망구에 비기는가고… 그랬지요. 했더니 그 친구… 철경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바로 군관의 안해지. 이 솥돌에다 칼을 갈고 낫을 버려서 못해본 일이 있더라구. 자기는 다 닳아 없어지면서두 총칼만 서슬푸르게 버릴수 있다면 그것이 여한없는 행복이어서 웃으며 사는것이 바로 우리 안해들이거던, 안 그런가?〉 하겠지요… 그날 밤 적들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우린 놈들이 뿌려놓고간 지뢰를 해제하러 나갔었는데 그가 글썽… 어찌면 글썽이 가방만 남겨놓고는…》

어머니는 이렇게 남편을 잃었다. 하지만 그가 못다하고 간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무럭무럭 자라고있는 철경이의 모습속에, 남편이 바라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밤마다 솥돌을 보던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는 언제나 살아있었다.

똑똑똑…

모양이 다 잡힌 신발장을 다시한번 두드려보는 손로인의 망치소리에 놀란듯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어느덧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굳게 자리잡고있음을 느끼었다. 손로인이 돌아간 뒤 집안에 들어선 어머니는 옷방구석에 놓여진 수수한 나무궤짝앞에 다가섰다.

이제부터 이사를 많이 다니려면 어디에 내굴러도 등탈이 없는 든든한 《짐함》들이 많아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짜놓았던 나무궤짝이다. 세월과 함께 마르고 터갈라져서 언젠가는 새노란 장판종을 곱게 발랐던 그 밤나무궤짝, 신희시절 하얀 데트론실로 코바느질을 하여 꽃이며 금붕어까지 새겨넣은 가림보가 씌워진 그 나무궤속에 한생의 온갖 귀중한것들이 다 들어있었다.

(여보, 철경이 아버지! 이제는 제가 마음놓고 당신의 유물을 펼쳐볼수 있을가봐요. …)

달그락, 빗장이 벗겨지는 소리가 그때…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어머니의 가슴에 들려왔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언젠가 소학교시절 철경이가 지었던 동요의 한구절을 조용히 읊어보았다.

엄마의 뽀뽀는  
술술 간지럽고  
아빠의 뽀뽀는  
꼭꼭 찢러요…

노란 민들레꽃이 다문다문 피어난 산자드락길로 연꽃색야전승용차가 달리고있었다. 차에는 달포나마 이어진 출장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총참모부의 한 장령이 타고있었다. 뒤자리에 앉은 그는 자는지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눈을 지그시 감은채 차가 흔들리는대로 몸을 맡기고있었다. 키낮은 콩크리트다리를 건너선 승용차가 짝지발처럼 뻗어나간 갈림길어귀에 들어서자 운전사는 슬그머니 속도를 죽이면서 실내경으로 장령의 얼굴을 훑듯 훑듯 쳐다보았다.

《왼쪽으로…》하고 장령은 눈도 뜨지 않은채 지시했다.

운전사의 갸웃한 얼굴에 웃음이 병긋 스쳐지나다. 사실 지금 그는 장령의 요구에 따라 평양으로 가는 기본도로를 우회하여 갈래 모를 초행길에 들어섰던것이다. 차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을 때 장령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무엇을 찾는듯 차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 꾸레미는 제 옆좌석 뒤주머니에 있습니다.》

촉기빠른 운전사가 제격 튕겨주자 이번에는 먼도자리가 푸릿한 장령의 불편에 웃음이 병긋했다. 기회를 놓칠세라 차안의 따분한 공기에 지루함을 느꼈던지 운전사가 말꼬리를 이어놓는다.

《중장동지가 이번에 거기 섬초소에 가서 정냥이를 수태 하신 모양입니다.》

《정냥이라?... 그 말이 참 그럴듯해.》

가늘게 쪼프린 장령의 눈에서는 세간난 자식들의 집에 나들이라도 갔다오는듯 한 그윽한 정이 넘쳐났다. 이번에 그는 총참모부의 긴급조치에 따라(아직은 모두가 그렇게 알고있었다.) 조국의 최북단 초계령통신중계초소며 전선동부의 《60고지》(그것은 그곳 병사들이 고지의 경사각도를 따서 붙인 이름이었다.), 서해 한복판에 떠있는 귀도를 비롯하여 생활조건이 불리한 구분대들을 돌아보았다. 지금 무릎우에 놓인 문건가방속에는 그에 대한 종합된 보고자료가 들어있었다.

《글썽 식당근무를 서던 그 어린 병사가 말이요, 내가 배 발판우에 막 올라서려는데 취사복을 입은채로 달려와서는 〈중장동지, 중장동지는 제가 입대해서 처음으로 우리 섬에 찾아온 장령동집니다. 이 전어구이는 우리 섬초소의 특산인데 기념으로 가지고 가주십시오.〉 아, 이러더라 말이요. 막 공개적이더라니까, 하하...》

《그래서 꼼짝 못하고 받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당장에 울것 같은데두, 허허...》

그는 다시 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귀도

라...》 하고 나직이 불러보았다.

귀도, 그 섬이 더욱 말밭에 오르게 된것은 지난해에 있는 해일피해를 입은 후부터였다. 그래서 떠날 때까지만 해도 그곳 구분대의 생활형편을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정작 가보니 예상외로 랑만적이었다. 그 섬에 제일 흔한것은 아카시아나무였다. 군이 또 꼽으려든다면 구렁이가 많은것이 또한 화제거리였다. 경험많은 구대원들은 그것들이 움직이는것을 보고서도 에누리없이 바다날씨를 알아맞춘다는것이였다. 하기는 귀도라는 섬 모양자체가 동서로 시오리, 북남으로는 몇백메터 지어 몇십메터폭으로 구불구불 뻗어있는것이 좋게 말해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청룡상이라고 들 하였다.

병사들속에는 별의별 피차들이 다 있었는데 그가 편락선을 타고 도착하는 날 섬방어대적인 착상경연에서 1등을 하여 스무키로짜리 문어를 상으로 받았다는 병사는 글썽 《벼락축전지》를 창안해냈구나... 말하자면 지금까지 벼락이 칠 때 생겨나는 막대한 전기를 잡아서 쓰지 못한 리유는 《그것을 담아들만 한 그릇이 없었기때문》이라는 것이였다. 그래서 궁리해낸것이 바다를 통채로 《축전지》로 쓴다는 터무니없는 착상이였다. 전기가 철철 넘쳐나는 그 병사의 상상화밀에는 바다물속에 무진장하게 풀려있는 알카리금속들은 어찌어찌하고 또 연, 염기 등은 어찌어찌해서 그것들을 전해액으로 하는 《초대형갑문식알카리축전지》를 만든다고 《기술적해제》까지 달려있었다. 어느 한 초기복무사관은 비록 염도가 높은 땅이지만 수년세월 꾸준히 노력하여 남새농사를 성공시켰다. 아직은 그곳에서 자란 남새들이 잎이 두텁고 거뭇거뭇한게 뽕은 맛도 좀 있지만 그것으로 첫 절임을 담그던 날 병사들은 자못 엄숙한 토의끝에 《귀도1호》라는 어마어마한 이름까지 달아주었다.

그런 섬초소에서 하루밤을 보내게 된 그는 습관되지 않은 파도소리에 종내 새벽잠을 깨고말았다. 대충 외투를 걸친 그가 씨늘한 바다바람을 맞으며 병영마당을 거닐고있을 때 두런두런하는 말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쫓아 취사장문을 병싯 열고 들어섰을 때 식당근무를 서던 두 군인은 밥국통우에 칼도마를 가로 얹어놓고 그것을 식탁삼아 이른 아침밥을 먹고있었다. 바지에 시벨전 줄을 띄우고 목소리가 와롱와롱한 장령이 문가에 떡 버티고 나타나자 어린 병사는 입에 물고있던 밥도 미처 넘기지 못하고 눈만 때부룩거리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놀라긴!》 하고 그가 한쪽눈을 찡긋해보여서야 병사는 한입 물고있던것을 꿀꺽 삼키며 어줍게 웃어보였는데 불우물이 축축 패이는것이 여간만 귀엽지 않았다. 벼

에 걸린 그림자가 등잔불이 흔들거리는데 따라 너불너불 꼬리춤을 추고있었다. 그때야 내려다보니 칼도마우에는 맹물에 말아놓은 밥 두그릇이 땡그라니 놓여있었다. 그는 놀라서 물었다.

《동무들은 왜 맹물에 밥을 말아먹소?》

그러자 두 군인은 대답대신 서로 마주보며 시죽시죽 웃기만 하는것이였다.

《동무가 구대원이지?》

《옳, 3포장 허석진!》

《그럼 말해보오.》

《이건 사실... 식당근무들에게만 차례지는 별식입니다.》

《별식이라구?!》

《예.》 하고 대답한 중사는 그때까지 등뒤에 감추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가뭇가뭇한 물고기껍질같은것이 올라있었다.

《소금에 물어두었던 전어입니다. 가을에 우리 섬주변에서 잡은 전어는 기름이 너무 저서 염기가 깊이 먹어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걸 출고반아서 찬감으로 쓸것은 하루밤 쌀씻은 물에 담그어 놓습니다. 그리구 그전에 식당근무성원들이 〈휘딱〉 할게 있는게...》

이때 중사는 또 한번 시죽 웃어보였다. 이번에는 보조개가 흠뻑흠뻑 패이는 애송이병사가 무슨 큰 요리경연장예라든 나선듯 빠져대는것이였다. 《찬찬히 보십시오. 장령동지, 이건 물고기의 밑배부위를 칼로 쪼—옥 따낸것인데 여기가 그중 살폭이 얇고 기름기도 많습니다. 이걸 좀 더 꼬둑꼬둑 말린 다음 성냥불을 척 그어대면 제김에 파란불이 팍팍 번쳐지면서 구워진다는데 히야, 물에 말아먹으면 기딱칩니다.》

《허허, 그러니 오늘 아침 내 찬그릇엔 절반짜리 전어가 오르겠구만. 응?》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제 뚝으로 차례진것만 〈휘딱〉 합니다.》

얼마나 바빴던지 자기 구대원의 말투까지 따라하며 두손을 내젓는다. 그 모양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장령은 《예끼!》하고 불기를 철썩 두드려주었다. 그리고는 오래간만에 구수한 밥김도 썰어보고 칼장단도 울리면서 취사장안을 어울려돌다가 기상시간이 다 돼서야 잠자리로 돌아왔다. 그런줄도 모르고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 동안 섬방어대장은 식탁에 오르는 때 찬별로 자랑거리를 꺼붙여내느라 설새없이 입을 놀렸다.

《이 소라는 직일포성원들이 근무를 교대하고 돌아오다가 따온겁니다. 아, 그렇다고 뭐 나무열매처럼 매달려있다는건 아니고... 썰물이 지면 섬 주변 바위들이 몽땅 드러나는데 거기엔 미처 물을 따라잡지 못한 이런 주먹같은 멍청이들이 더덕더덕하답니다. 아파, 이번에는 펄펄 끓는 숭어국입

니다. 허허… 우리 전사들은 이걸 〈방치승어국〉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니 해마다 이맘쯤이면 눈먼 승어들이 구름처럼 모여와 섬기슭에 바글바글 끓습니다. 그러면 바지가랭이를 걷어붙인 우리 최사당번들이 침병침병 뛰어다니면서 방치질로 한밥국통씩 걷어낸답니다.》

정말로 방치질이라도 해대는듯 팔굽관절을 접었다 폈다하면서 한바탕 연설을 해대는 방어대장에게 장령은 슬쩍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래두 진짜특산만은 내놓지 않는걸 보면 난 아무래도 환영할만 한 인물은 못되는가보지?》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대의 눈썹이 경충 뛰었다.

《거 있지 않소, 성냥구이…》

장령의 입에서 《성냥구이》라는 말이 나오자 지휘관들은 물론 주위의 병사들까지도 입이 딱 벌어졌다. 한참만에야 짚이는데가 있는지 몸을 돌린 방어대장은 네모배기구멍에 조롱조롱 매달린 식당 근무성원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보였는데 기다린듯 식당안에서는 와— 웃음이 터져올랐다. 그 광경을 보느라니 장령은 문득 여기가 총참모부에서 항상 걱정하며 마음을 쓰는 곳이 아니라 어느 옛말이야기에 나오는 동화적인 섬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었다.

(랑만적이거던, 우리 병사들이 용해!)

이렇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밖을 내다보고있던 그는 갑자기 운전사쪽을 향해 다급히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다.

《가만, 가만!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모오.》

승용차는 노를 저어가듯이 속도를 폭 늦추고 소잔등같이 밋밋한 산등성이를 굽이돌아가고있었다. 창유리에 얼굴을 맞대다싶이한 장령이 산중턱의 흰 옷 입은 여인을 발견한것은 이때였다. 몇그루의 노가지나무가 오종종 둘러선 양지바른 곳에 금시 파랗게 살아나는듯 한 잔디를 띄이고 해묵은 묘소 하나가 솟아있었다. 연푸른 숲속에 옥같이 박혀있는 그 흰 옷 입은 여인을 다시한번 창유리를 비비고 살펴본 장령은 소리쳤다.

《세우시오, 빨리!》

문을 열고 막 내려서는 순간 장령모가 무엇엔가 걸려 데그르 굴러떨어졌지만 그는 주을념도 하지 않고 곧바로 달려갔다. 개암나무, 잔솔가지… 다치는대로 잡아채며 산중턱 그 묘소 가까이에 다가섰을 때!

인기척을 느낀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당겨서 겨우 뽑아내는듯 한 목소리가 장령의 입에서 먼저 울려나왔다.

《아주머니… 철경이 어머니!》

《아니?!… 혹시… 내가 잘못 보는건 아니겠지요?》

갑자기 여인의 목소리가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명… 옳지요? 대대장동지, 숙경이 아버지!》

《알아보시는구려. 내 불륜한 최정묵이올시다. 스무해가 다되어서야 이렇게… 이렇게 찾아왔소그려, 어허허…》

여인의 눈에서는 뭉클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그들은 수십년세월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를 마치 처음으로 알게 된듯 반백이 덮인 서로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쳐다보며 잠시 덤덤히 서있었다.

봄날의 파스한 해빛이 그들 두사람의 그림자를 묘소우에 비스듬히 늘어놓았다. 옛 대대장 최정묵은 제 손으로 떠올렸던 전우의 무덤앞에 고개를 숙이고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이젠 그만…》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최정묵을 흔들었다.

그제서야 최정묵은 현실로 돌아온듯 의혹질은 목소리로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난 여기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될줄은…》

《뚝뚝이테지요. 실은 제 삼년전에 철경이를 데리고 다시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요?!》

최정묵은 저도 모르게 여인의 말을 되받아외었다. 사실 남편이 전사한 후에도 부대에서는 그들을 한식술처럼 따듯이 돌보아주었고 뒤뜨락 넓은 터밭을 가로막아 소원대로 피복수리소도 꾸려주었다. 이태후 최정묵이 군사대학으로 떠날 때까지도 그들 모자는 별다른 생각이 없이 그곳 군인사택마을의 영원한 거주자인양 정을 고이 물으며 살아가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라니…

《놀라실테지만 제가 한사코 우겨서 끝내…》

이렇게 말머리를 댔 여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언젠가 철경이가 지었다는 동요 한구절을 읊는 것이었다. 워낙 서툰이 넘어서야 가정을 이룬데다가 다른 집들에서는 둘째, 셋째들이 연방 태어나 밥상밑을 벌렁벌렁 기여다닐 때에야 첫 자식을 본 그들내외는 말그대로 불며 빨며 아들을 키웠었다.

시를 들으면 철경이의 짧은 기억속에 어설프게나마 남아있는것도 역시 그 시절의 아버지인듯싶었다. 하지만…

《난 그게 두려웠습니다. 육체는 비록 자라고있지만 것처럼 훌륭한 아버지에 대한 표상은 이 동요의 세계로만 남아있을것 같아서… 정말 겁이 더러 나더구만요. 그래서 그 애의 고향이고 또 아버지의 피가 스민 이곳의 물을 한두해 더 먹여서 군대에 내보내고싶어 되돌아왔지요.》

그 앤 여기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지난봄에 군복을 입었습니다.》

최정묵의 손에서는 마른 술방울각지가 툭툭 부서져내리고있었다.

지난봄이라면... 그래, 우리 장군님께서 다박술초소를 찾아주시였던 사연도 많은 1995년 그해의 봄이다.

《그렇게 됐구만. ...》

《참, 숙경이 어머니랑은 다 잘 있나요?》

《예, 그 새침데기도 이젠 할머니가 다된걸요. 그러구 우리 숙경인 비행사한테 시집을 가서 아들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장수지요! 어찌나 세찬지 난 그 녀석들을 〈폭격기〉라고 부른다우.》

그들은 등굽은 소나무밑을 빠져 차도로로 내려섰다.

차가 그들쪽으로 후진하여오는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있는것 같던 최정묵은 갑자기 몸을 돌리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렇게 갑자기 온걸 보면...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은 하기 힘들었던 말을 먼저 물어주니 고마운듯... 그러면서도 한사코 옷섶에 감싸두려고 했던 사연을 헤쳐묻는것이 야속스러운듯 알수없이 뒤섞여지고있었다.

《편지를 받았지요. 철경이한테서... 그 첫 편지를 받고보니 애아버지한테 그걸 읽어드리고싶은 생각이 나서... 한데 그만... 읽지를 못했어요.》

《예?! ...》

최정묵은 의아한 눈길로 녀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 편지를 저도 좀 봐도 될가요?》

《예...》

편지를 받아들자 무심결 결봉에 씌여진 우편대호부터 훑어보던 최정묵의 눈이 쏘아박은듯 딱 굳어졌다.

《아니 이런! 이게 분명 철경이의 우편대호가 옳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원 이럴데라구야. 내가 이번에 그 부대에 갔었습니다. 가만가만, 그 애가 웃을 때 보조개가 콕콕 패이겠지요?! 맞지요?》

최정묵은 묻는것이 아니라 간절히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실망한 녀인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자 펑 김빠진 소리가 한마디 입새로 흘러나왔다.

《그- 래요?...》

최정묵은 머뭇해서 다시 편지를 펼쳐들었다.

《어머니! 보고싶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 공을 세우기 전에는 편지를 쓰지 않겠다던 이 아들이 너무도 뜻밖의 기쁜 소식에 접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는 온통 감탄부호를 뒤집어쓰다싶이 되어있

었다.

그래서인지 편지를 읽으며 시종 빙글거리던 최정묵의 얼굴이 어느 대목에서부터인가 저르기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날 텔레비존에 나오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기룡수동지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활매등판우에 척 올라서시여 패이고패인 숫돌에 낫을 가시더라구...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릴번 하였습니다. 어머니! 분명 그 숫돌이 옳지요?! 제 어찌 아버지의 그 유물을 잇을수 있단 말입니까!...》

최정묵은 자기의 심장이 점차 불안하게 높뛰고있음을 느끼었다.

귀도... 등잔불... 철경이... 그 모든것들이 마구 뒤엎켜 편지의 글줄들이 뿌옇게 가리워지기도 하였다.

《...헌데 정말이었을가요? 우리 포장동지가 하는 말이 〈병사의 고향소식〉과 같은 특별프로들은 꼭 반복하여 내보낸다는것이였습니다! 참, 말이 낫으니 우리 포장동지의 별칭이 뭔지 압니까? 〈휘딱〉입니다. 참 재미나는 말이지요. 그건 무슨 일이나 재빨리, 맵시있게 해낸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우리 포장동지는 물속에서도 마른 돌을 건져온다는 수완가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는 어떻게 하나 발전기를 돌린다면 〈132호〉기관장을 찾아가 디젤유를 〈휘딱〉하려던 것이 문제가 되어 그만 순번의 식당근무를 서게 되었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 〈132호〉는 정비를 끝내고 총참모부의 장령동지를 태우러 가야 했거든요.》

최정묵은 깜짝 놀랐다. 《휘딱》이라구?! 그때그때, 취사장에서 만났던 그 중사가 분명하다. 그러니 그 포장이 〈나때문에〉 순번의 식당근무를 서고있었던 말인가. 저도 모르게 글줄을 되밟아 《총참모부의 장령》이라는 구절을 다시 읽어보는 순간 그의 입새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정묵은 너무도 큰 충격에 떨리는 몸을 어쩔수 없었다.

귀도! 귀도의 병사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온밤 속궁냥을 쌓다가 아들을 위해 촬영기앞에 나섰을 어머니에게 마치 제 잘못인듯 용서를 빌고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뭔가, 《용해, 용해! 생활이 있소!》 하면서 떠나는 나를 바라보며 그곳 병사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뭐, 동화적인 섬이라구?! 우리 병사들은 타고난 락천가들이라구?! 바로 그 랑만속에 숨겨진 사연, 가리워진 고통을 나는 왜 못 보았던 말인가, 나의 그속을 들여다보았더라면 나 어린 보조개병사가 취사복을 입은채로 나를 찾아 달려오지 않았을것이다, 결국

나는 갔으나마나한 유람객이 아니었는가.

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것을 느꼈던지 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정목을 불렀다.

《우리 철경이가… 그 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 최정목은 금시 튀어나올번 한 섬이라는 말을 가까스로 씹어삼켰다. 철경이도 편지에서 그것을 숨기려고 애쓴것이 헛동했던것이다.

《운전사동무, 거 있지? 이리 좀 가져오오.》

최정목은 운전사가 가져온 전어꾸레미를 다 찌고짜 녀인에게 안겨주며 거의 명령하듯말하듯 말했다.

《잡수시오, 꼭 잡썰보시오!》

그리고 덧붙여 몇마디 인사를 남기고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 문을 후려닫았다. 차가 출발했다. 그때까지도 꾸레미를 가슴에 꼭 껴안고 이속도록 길가에 서있는 녀인의 모습이 후사경에 비쳐지자 최정목은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웨쳤다.

(용서하시오, 철경이 어머니! 그 애를 다른 부대로 옮겨놓겠다는 말이 목끝까지 치밀어올랐지만 나는 차마 그럴수 없었소. 바로 당신과 같은 어머니들이 애지중지 키워낸 수많은 아들딸들이 거기에 있기때문이요. 지금 나에게는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식당근무를 서던 포장도, 그 이름모를 보조개병사도 모두가 귀중한 전우이며 살붙이들이요. 대신 약속하오. 아니, 맹세하겠소. 내 꼭 어떻게 하나 새 발동발전기를 구해서 귀도에 보내주겠다는것을 말이요!)

#### 4

어머니는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자기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왔는지는 더욱 몰랐다.

땡땡 저녁종을 울리는 시계탑밑에서 어머니는 그 소리에 맞추어 일곱점을 췌다. 그다음은 손에 쥐고있던 들가방을 내려놓고 한순간 멍청히 서있었다.

그러느라니 평양으로 떠나올 때 역홈에까지 따라나온 책임비서가 손에 차표를 쥐여주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아무튼 좋은 일일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평양역에 도착하면 그저 꼼짝말고 계십시오. 마중나오는 사람이 있을테니까요.》

차바퀴밑에서 제동이 풀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덜컹덜컹 열차가 출발하자 책임비서는 잊고있었던 열차를 따라오며 웨쳐댔다.

《전화, 돌아올 때 전화를 하시오!》

허나 그 목소리는 역구내를 벗어나는 기적소리

에 놀리워 인차 사라져버리고말았었다.

(누가 날 마중한다는걸가?!… 참, 난 도대체 여기에 왜 왔을가. …)

그때 등뒤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어머니를 불렀다.

《혹시 활매등분장에서 오신 어머니가 아십니까?》

그 소리에 무등 반가움이 앞서 돌아섰던 어머니는 얼굴이 동그란 생면부지의 안내원처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니… 날 기다린다는 사람이 처녀가?!》

《아니예요. 저기…》 하면서 처녀가 막 손을 들어 가리키려는데 불쑥 솟아오른듯 단긴깃양복을 입은 점잖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다. 어머니는 그에게 이끌려 역전공원앞에 대기하고있던 승용차에 올랐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길을 스쳐지나는 궤도전차안에서도 밝은 불빛이 흘러나와 차도로를 쓸며 지나갔다. 뒤좌석에 앉은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무엇때문에 이런 호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 꼭 남의 잔치상에 앉은 사람처럼 속이 재물재물했다. 한참만에야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저…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차는 벌써 어느 아담한 2층건물앞에 멈춰서고있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꼭 쉬십시오. 래일 아침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 단긴깃양복을 입은 사람은 깍듯이 인사까지 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을 어머니는 꼬박 뜯눈으로 새우다싶이 하였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그 낮익은 일군과 함께 어느 한 군부대청사로 들어서고있었다. 차를 타고 정문을 통과할 때 깍듯이 차렷자세를 취하는 보조병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것이다.

잠시후 어머니는 진한 밤색문과 잇닿아있는 아늑한 대기실에 앉아있었다. 바로 문결에 보통살림집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세운 옷걸이가 놓여있었다. 무심중 그 옷걸이를 바라보던 어머니는 거기에 걸려있는 솜옷이 참 낮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서려는데 눈앞의 문이 가만히 열리더니 불쑥 어머니를 안내하던 그 일군이 나타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르십니다.》

《?!》

처음에 어머니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자 제게… 그게 무슨 소리인지. …》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시고계십니다.》

갑자기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맨눈으로



태양을 마주본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속에 방금전에 보았던 낮익은 솜옷이란 매일이 다싶이 텔레비존에서 보왔던, 바로 장군님께서 입으시던 그 야전솜옷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눈이 어두울수 있단 말인가! 망령을 했지, 망령이 들었어.

장군님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그때였다. 문이 쪽 열리고 청신한 새벽공기를 타고 울려 오는 듯 쟁한 웃음소리와 함께 **김정일** 동지께서 대기실로 나오시었다.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온 세상이 품에 안겨진것만 같아서 혼자서는 도무지 그것을 떠안고 일어설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눈에 띄게 걸음을 재촉하시며 어머니앞에 손을 내미시었다.

《왜 이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장군님!... 이 눈먼게 장군님곁에 온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오히려 더 깊이 엎드리며 그이께 큰절을 드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끝끝내 어머니를 부축하여 일으켜세우시고는 마음을 녹잡혀주시려는듯 말머리를 돌리시는것이였다.

《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목장에 나가신다지요. 어떻습니까, 힘에 부치지 않는습니까?》

《아닙니다. 기운 쓸 일들이야 젊은이들이 다 맡아하는거구... 저흰 그저 따라다니면서 허드레일이나 가끔 들어줄뿐입니다. 우리 분장에선 작금년간에 염소마리수를 배나 불굴 계획을 하고 성수가 나서 일들을 하고있는데 참, 올봄부터는 별도 치자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큼직한 단지를 하나 구해두었다가 어머니네한테 꿀을 좀 얻으러 가야겠구만요.》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어머니의 가슴은 후터워올랐다. 장군님께서 나를 보고 어머니라니, 내가 무슨 영웅의 어머니라도 된단 말인가!

나는 그저 보통병사 리철경의 어머니일뿐이 아닌가. ... 어머니는 송구스러움에 고개를 떨구며 말씀을 드렸다.

《장군님, 어쩌면... 저같은 촌녀인을 어머니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야 단발머리처녀교원앞에서도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소에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그가 누구이든 다 어머니라고 불러주고싶은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이께서는 어서 덧옷을 벗으라고 따뜻이 이르시었다. 정작 덧옷을 벗어든 어머니는 그것을 어

째야 할지 몰라 망설이였다. 그이의 솜옷이 걸려있는 옷걸이에겐 차마 손이 나가지 않았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손수 어머니의 덧옷을 받아 자신의 솜옷곁에 나란히 걸어놓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방으로 향한 문까지 몸소 열어주시며 《자, 오늘은 내가 배울것이 좀 있어 어머니를 청해온것이니 어서 들어갑시다.》 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섰다. 순간 누런 금빛전장에 주먹같은 왕별들을 주련이 달고있는 장령들이 마치 어머니를 영접하듯 정중히 일어서는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당황하여 눈길을 건사하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그러는 어머니를 자신의 앞에 내세워주시며 장군님께서는 정이 폭 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인사를 하시오. 병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뜨거워났다. 자기를 어느 산골 분장의 풀깎는 녀인이 아니라 병사의 어머니라고 소개하시는 그 다심하신 인정미에 또다시 목이 메였던것이다.

장군님의 활달하신 음성이 또다시 울리였다.

《이젠 모두 자리를 잡고 앉읍시다. 군단장동무는 나와 이렇게 마주앉고... 그옆에는 최정묵동무가 앉으시오.》

최정묵이라니?!... 어머니는 놀라서 주위를 살펴 보았다. 둘러섰던 장령들속에서 최정묵의 모습을 찾아보았을 때 불시에 심장이 푸드덕거리기 시작했다.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 힘든 예감이 어렵듯이 머리를 쳐드는것 같았다.

(설마하니... 그래도 혹시?!...)

그이께서 지적해주시는대로 방 한가운데 놓인 정방형책상둘레를 따라 여섯명의 장령들이 둘러앉았다.

끝으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어깨너머 뒤자리에 의자를 하나 더 가져다놓게 하시더니 그 자리에 어머니를 불러주시는것이였다.

송구함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장군님 가까이로 다가가던 어머니는 발밑에서 쪽무이바닥 밟히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바람에(사실은 그렇게 느껴졌을뿐이였다.) 와플 놀라 멈춰설번 하였다. 진땀이 돌아나는것 같았다.

(편리화를 신고 왔어야 하는건데... 촌아낙네 체면이 뭐 그리 큰거라구 이렇게 부잡스럽게 구두를 신고왔담.)

어머니를 안내한 그 일군이 옆에 큼직한 두루마리종이를 끼고 다시 나타났다. 그 두루마리가 책상우에 쪽 펼쳐지자 장령들은 구미가 동하는듯 저마다 몸을 수그리고 달라붙었다가 어리둥절해서 나앉았다. 거기에는 그 무슨 등고선이며 화살표 같은것이 그려져있는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웃놀이판

이 그려져있었던것이다. 지어 한 장령은 혹시 거 기에도 어떤 감추어진 군사작전안이 있을지도 모 른다고 생각했는지 매 자리점들을 푹푹 살피 가며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오직 한분 장군님께서만이 시종 미소를 지으시 고 금시 만들어가지고온듯 반짝거리는 웃짝들을 웃판우에 척 올려놓으시였다.

《왜들 그렇게 놀랍니까? 내가 오늘 동무들을 부른것은 함께 웃놀이를 해보자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민속연구사로 일한적도 있는 어머니도 모 셔온거구요.》

장군님께서 뒤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 실 때 어머니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정말 웃 놀이를 하시자는걸가?!...

그이의 말씀에 제일먼저 팔을 걷어붙이며 나선 것은 되려 제일 무뚝뚝하게 보이는 한 상장이 었다.

《최고사령관동지, 할바에는 연합부대 쌍방훈련 처럼 한번 본때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평 원> 도 세워놓고 말입니다.》

《허, 태동무는 집에 들어가서 손주들 성화에 웃짝깨나 만져본 모양입니다. 되게 으름적엔...》

그러자 당장 눈섭밑에 대고 대포를 쏘아도 꿈쩍 았을것 같던 무관이 대변에 귀뿌리를 벌겋게 달구 며 어쭈게 웃어보이는것이였다.

《거 웃놀이라는게 대보름날 그네뛰기처럼 녀 자들이나 하기 좋은 놀음인가 했더니... 우리 지휘 관들일수록 집에 들어가서는 생활도 있고 정서도 있어야 한다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시 지 않았습니까. 그래 전번 휴식일에는 우리 집사 람과 며느리가 한편이 되고 저와 아들이 한편이 돼서 그 웃놀이라는걸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 하고 말꼬리를 길게 끌어놓은 장령이 더 말하기가 멎한듯 뒤더수기를 어루쓸자 장군님께서 는 빙그레 웃으시며 되짚어물으시였다.

《왜, 별로 흥미가 없던가요?》

《그런게 아니라... 거 총을 쏘는것처럼 웃짝을 던지는데도 무슨 묘기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집사람과 며느리는 그냥 흥이 나서 두숨이야 세숨 이야 해대는데 우린 그만 빼꼭소리 한번 못 내보 고 번마다 지고말았습니다.》

《아니, 그래 숨 한번 못 쳐봤단 말입니까?》

《숨이 다 뿜니까. 뿌리는 족족 후도인데 오죽 했으면 우리 집사람이 총쏘는 자랑만 하지 말고 웃재주는 나한테서 좀 배우시우다 이랬겠습니까. 에에...》

무엇이나 지고서는 못 견디는 성미인지 목덜미 가 다 벌개져서 입을 다시는 그를 보며 모두가 즐겁 게 웃음을 터뜨렸다.

의자등받이에 몸을 한껏 가져다붙이며 즐겁게

웃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피륙 몸을 돌려 어머니를 찾으시였다.

《좀 보십시오. 욕망뿐이지 모두 이렇게 엉터립 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머니가 감독점 심판사업 까지 다 맡아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세상만사를 다 잊은듯싶었 다.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하여 어머니는 지금껏 살 아왔던것 같았다. 어머니는 멀리, 이제는 참으로 저 멀리 사라져버렸는가싶던 기억을 애써 더듬으 며 나직이 말머리를 뺐다.

《웃놀이는 삼국시기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입니 다. 옛 문헌자료들에서는 이것을 웃짝을 던지 면서 하는 놀이라고 하여 <사회> 또는 <척사> 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웃놀이는 두 편으로 나뉘어 승부를 다투는것이 상례로 되어왔 었는데...》

듣고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눈길이 세가 지 색깔로 나뉘여진 말쪽들에 와서 멎어서자 선선 히 응해나서며 대답해주시였다.

《예, 그건 나도 알고있습니다만... 이렇게 팀을 서너개쯤 무으면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가 시킬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 어떻습 니까. 우리 다같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더 많은 사람이라니... 도대체 얼마만한 수자를 념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걸가?!)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새 경기는 시작 되었다. 맨먼저 웃을 던진 장령이 후도를 내는 바 람에 좌중에서는 아까보다 더 큰 웃음이 터져올랐 다. 웃짝이 몇고패 돌아가고 잡는다 업히운다 말 들이 오가기 시작하자 장령들은 언제 웃놀이를 하 찡게 대했더냐싶게 열들이 올라 승부를 다투기 시 작했다. 어머니는 어려움도 잊고 장군님께서 말을 쓰실 때마다 이따금 혼수도 들군 하였는데 그때마 다 그이께서는 참 신통하다고 무릎까지 치시며 번 마다 다 받아주곤 하시였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는 사실 장군님께서야말로 민속놀이들에 더 깊은 파악을 가지고계신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이께서 지나가는 말씀처럼 《이런, 최정목 동무는 단고기장냄새도 못 맡는다더니 또 개를 냈 습니까?》 하신다거나 《허허, 저 말이 모발과 뒤 꽃이를 지났으니 이제는 하는수없이 제일 먼길을 에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것을 보 면 웃말들의 어원은 물론 《천원지방설》에서부터 기원되었다는 웃판의 구조까지도 훤히 알고계시 는것이 분명하였다. 먹임밭에서부터 만들어놓은 앓은석동이 제일 빠른 동지길을 따라 열두점만에 나가게 되자 그이께서는 즐거우신듯 옛 시의 한구 절까지 조용히 외우시는것이였다.

방바닥을 치면서 도다 개다 떠들고  
말은 스물아홉 말밭을 잘도 달리네

어머니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복이 흘러나왔다. 이 땅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다 안고계시는분, 아직은 헤쳐넘으셔야 할 고난의 언덕이 눈가루를 펄펄 날리며 첩첩히 다가서고있음을 가장 선두에서 다 내다보고계시는분, 하건만 이 시각 가웃가웃 번져지는 옷짝들을 보시며 저렇듯 제일 밝게 웃으시는분, 웃으실수 있는분!...

드디어 장군님께서 잡으신 마지막말이 결승선을 통과해나가는가 했더니 청색편에서 모와 결을 려속 내는 바람에 그만 잡히우게 되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이런, 외아들이 남게 되었군.》 하시며 비스듬히 어머니쪽으로 시선을 보내시었다.

《외아들을 건사하기가 조런치 않겠지요?》

《글쎄... 아무렴 장군님께서 잡으신 말인데 사 람들이 그렇게도 야박스럽게야 굴겠습니까.》

그러자 승벽을 닦듯 장령들이 편심이니 뭐니 법석 뿜어대는통에 장군님께서 두손을 들어 좌우를 녹작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보셨지요? 최고사령관의 체면도 봐주지 못 하겠다는겁니다. 하하하...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제 자식 귀하기야 내남이 다를라구요.》

웃으시나 의미깊은 그이의 말씀이 편이어 어머니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렇게 귀중한 아들딸들이 나에게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이 나에게 맡긴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집보다 나은가, 어머니품만 못하지는 않은가. ... 멀리 있는 병사들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일부 애로를 겪고있는 병사들도 있다는데 마음같아서는 그들의 어머니들을 모두 만나서 사죄라도 하고 싶습니다.》

너무도 꼭진하게 울리는 그이의 말씀에 어머니의 눈빛이 흠칫 떨렸다. 이 무슨 말씀이신가. 그러니 내가 무엄하게도 장군님의 저 아프신 말씀을 받아들이려 여기에 왔단 말인가! 그러자 처음 이 방에 들어와 《병사의 어머니입니다.》라고 소개를 받던 그때처럼 또다시 가슴이 불안하게 높뛰기 시작했다. 정말 장군님께서 철경이를 알고계시는것은 아닌가. 이제 옷놀이가 끝날쯤 문득 《철경이의 편지를 받았는지요?》하고 꼭 짚어 물어보실것은 아닌가. ... 어머니는 남모르는 이 속썩임에 언제 옷놀이가 끝났는지조차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다.

꿈같이 흘러간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장군님의 바래움을 받으며 숙소를 향해 떠났다. 그이께서는 몸소 현판밖에까지 따라나오시어 어쩌다 평양에

왔겠는데 며칠동안 폭 휴식을 하면서 극장구경도 하고 평양랭면맛도 보라고 다정히 이르시는것이였다. 차안에서 어머니는 자꾸만 눈물이 나와서 울고 또 울었다.

자기의 몸을 포근히 감싸고있는 덧저고리를 쓸어보며 울었고 어쩌다 장군님께 마련된 그 짧은 휴식의 한때마저 온갖 성의를 기울여 지켜드릴대신 못나게도 아들생각에 움해있는 그게 참을수 없어 울었다.

바로 그 시각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실 때마다 그러하듯이 가슴우에 두팔을 엮이시고 창문가에 서계시었다. 창턱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속을 태우던 그 새빨간 외토리말이 놓여있었다.

## 5

바다! 바다는 과연 얼마나 깊은가. 하늘의 높이는 그 얼마이며 떠가는 구름아, 바람아, 흘러가고 흘러오는 길에 네가 보고 들은것은 또 몇몇이더냐... 서해에 배 한척 뗏다. 그 깊은 바다를 둘로 쪼개일듯 세찬 격랑을 일으키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날... 바다는 결코 깊지 않았다. 하늘도 정녕 높은것이 아니었다. 바람도 구름도 입을 다물었다.

모든것이 고요했다. ...

## 6

그때 손로인은 새로 까나온 새끼벌들을 쫓아다니며 벌잡이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누런 왕벌을 중심으로 몇백, 몇천마리인지 모를 새끼벌들이 돌개바람처럼 꿈틀거리고 타래를 치면서 허공을 헤매이는데 입이 송편모양이 된 로인은 하냥 흐뭇한 웃음을 빼어물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뭘, 새끼벌이 정오에만 깨어나와? 흐흐... 글쎄 벌박사는 없단니까.》

로인은 피나무껍질로 바가지를 만들고 그안에다가 밀랍과 사탕가루를 녹여서 만든 끈적한 액체를 술술 문다져 바르고있었다. 벌떼는 점차 밀집대형을 짓고 뭉그러낸듯 푹푹 감쳐돌아가더니 바위벽으로, 잣나무가지로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다니기 시작했다. 왕벌이 자리를 잡으려는것이였다. 때가 되자 손로인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장대기끝에 그 피나무껍질바가지를 매여달고 애끓은 통신병처럼 날래게 잣나무를 타기 시작했다. 한길쯤 나무를 탄 로인은 바오래기로 몸을 든든히 고정한 다음 장대를 뺄쳐 바가지를 벌떼 가까이에 슬그머니 가져다댔다. 조금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스라한 잣나무우듬지에 자리를 잡았던 벌들

이 장대기끝에 거꾸로 매여달린 그 바가지안으로  
요술을 부리듯 기여들기 시작했던것이다. 얼마  
나 많은 새끼벌들이 까나왔는지 바가지가 듬뿍 차  
고도 모자라서 그말에까지 데릉데릉 매달렸다.

《호호호, 글썄 벌박사는 없다니까. ...》

손끝이 부쩍 달아오른 로인이 막 허리바를 풀  
려는데 와시력과시력 풀썩이 흔들리더니 어머  
니가 불쑥 나타났다. 평양에 다녀온 뒤로는 세월  
도 거꾸로 흘러드는지 나날이 젊어지기만 하는 모  
습이다.

그때 장군님을 뵈옵고 그이와 옷놀이까지 두고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지금은 이 아근에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싶이 되었다. 철없는  
조무래기들까지도 《송할머니, 송할머니야.》 하  
면서 꿈무늬를 쫓아다니는판이었다. 지어 저기 두  
무지봉일대를 짚어본다는 탐사대에서는 어느날  
밤 수십리 산발을 타고내려와 어머니의 집마당에  
장작불을 지펴놓고는 상봉모임이라하는것도 벌려  
놓았었다.

그런 어머니가 사나와질대로 사나와진 벌무리속  
으로 서슴없이 접어들려하자 로인은 덴겁을 하며  
어서 냉큼 물러서라고 손짓을 해댔다. 하지만 어  
머니는 그냥 덩뎡뎡뎡 다가들기만 하였다. 손에는  
낫을 천채로였다.

《아주머니,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넌장, 내려가진 어딜 내려간다구 그래, 재  
필이녀석 낫질했다는 꼬락서니를 보구서두 그러  
나. 그루터기를 그렇게 높이 베어뒀다간 분장염소  
배가족에 상채기 아물 날이 없어.》

로인은 휘윽히 구부러든 나무가지에 넘죽 옆드  
린채 내리흔시를 해댔다.

그러는새 어머니는 벌써 나무밑에 다가들었다.

《금방 런락이 왔는데 분장회관에서 새 영화를  
돌린대요.》

《뭘, 영화를?!》

로인의 눈썹이 미끄러질듯 쳐들렸다. 아직도 해  
가 중천에 걸렸는데 무슨 새빠지게스리 영화타령  
인가 하는 인상이다. 그도 그럴것이 영화구경이라  
면 지금껏 휴식날이라든가 혹은 안주인네들이 저  
녁식사거둠까지 깨끗이 끝낸 다음 돌리는것이 상  
례로 되어왔었다. 한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마당  
에 모여앉아 회관담벽에다 대고 영사기를 돌리기도  
하였다. 그런터에 로인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슬며시 안달이난 어머니는 《군당에서까지  
간부들이 내려왔대요.》 하고 덧붙이였다. 그 말이  
확실히 효력을 보았는지 손로인은 엉금엉금 배밀  
이로 땅에 내려섰다. 새끼벌들을 새로 만든 벌통  
안에 집어넣고나서 두루 뒤거둠까지 하고 산을 내  
렸을 때에는 몇석 안되는 회관관람석이 짝 들어찬  
뒤였다. 여기 분장문화회관은 예술소조공연도 하

고 영화관람도 할수 있게 꾸려져있었는데 량쪽벽  
면에는 참나무껍질로 방음장치까지 해두른 산골치  
고 보기드문 멋쟁이회관이였다. 조금 있더니 짙은  
밖으로 흰히 보이는 마당가에 야전송용차가 한대  
들이닥치고 좌우에서 필립통을 든 군관들이 내려  
섰다. 사람들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영화를 돌리기에 키썰이 늘씬한 군관들이 필  
립통을 들고 왔다갔다 하느냐 하는것이였다. 조금  
있더니 군당책임비서며 분장일군들이 들어와 자리  
를 잡고 앉았다. 불이 꺼졌다. 때를 같이하여 영  
사실에서부터 눈부신 백광이 쏟아져나왔다. 아  
직도 자리를 못 잡고 서성거리던 누군가의 머리가  
영사막에 얼싹했다.

《거 앞에서들도 허리를 좀 낮추시다래.》

자리가 모자라 관람석통로를 빼곡이 메우고있던  
사람들속에서 누군가 짜증을 부린다. 어머니도 급  
히 허리를 굽히며 맨바닥우에 그대로 눌러앉고말  
았다. 화면이 바뀌자 일망무제한 바다 한복판에  
그 무엇인가를 두팔 벌려 막아서있기라도 하는듯  
길게 굽이쳐간 하나의 섬이 부감화면으로 비쳐졌  
다. 세찬 포말을 휘뿌리며 섬기슭의 바위를 한입  
에 넣کم 삼켜버렸던 파도가 깜짝 놀라 뒤걸음치며  
그것을 다시 뱉아놓는다.

《여기는 우리 병사들이 지켜서있는 조국의 섬  
귀도...》

해설원의 목소리와 함께 어슴푸레 밝아오는 하  
늘을 배경으로 강철포신들이 의젓이 고개를 쳐  
든다. 갑자기 화면에 쌍안경을 든 병사가 나  
타났다.

바야흐로 금빛해살에 불덩이같이 솟아오른 그는  
멀리 수평선을 향하여 빙그르 반원을 그린다. 그  
가 들고있던 쌍안경을 내리우는 순간 객석 어디에  
선가 《저런, 아니 저게 철경이가 아니요?!》 하  
는 놀란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속에서 우- 하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여  
기저기에서 불끈불끈 머리들이 치솟아올랐다. 어  
머니는 앞사람의 등에 가리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옆좌석에 앉았던 손로인이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팔을 뻗쳐 엉거주춤 일어서있던 그 못난이  
를 힘껏 잡아챘다. 잠판목 그루터기들을 되는데로  
베어버렸다고 손로인이 탈탈거리던 그 재필이다.  
바로 그때 검푸른 바다가 쇠물빛으로 지글지글 끓  
어번치며 태양이 솟아올랐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  
호성이 터져오르고 최고사령관기, 공화국기가 펄  
럭인다. 아카시아꽃이 만발한 섬기슭으로, 포진지  
와 교통호들로 메일듯 병사들이 쏟아져나온다. 갑  
자기 영사막이 몇 배로 커지는가싶더니  
아버이장군님께서 이리로, 객석으로 막 걸어나  
오신다. 만세의 환호성은 화면속에서도 객석에  
서도 동시에 울리고있었다. 격동된 해설원의 목소

리가 이른새벽 풍랑세찬 바다길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병사들이 보고싶다 하시며 장군님 찾아 오시였음을 알린다. 어머니는 갈래없이 뒤설레이는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자꾸만 발돋움하며 《장군님, 장군님!...》 하고 목메어 불렀다.

온 천지를 떠돌듯 한 환호성속에서도 어머니의 그 낮익은 목소리를 분명 가려들으신듯 화면속의 장군님께서 객석으로 문득 몸을 돌리신다.

순간 어머니는 보았다. 자기의 덧저고리와 나란히 걸려있던 그 야전솜옷을... 바다바람이 얼마나 차갑고 세찼으면 저렇듯 야전솜옷까지 입으시고 병사들을 찾아오시었으랴. 화면에는 또다시 철경이가 비쳐졌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오래동안 비쳐졌다. 철경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뱉뱉 문대며 장군님을 우러러 만세, 만세를 웨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그의 곁으로 다가가신다. 동행한 최정묵이 장군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릴린다. 그이께서는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철경이의 넓어진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신다. 그러시고는 또 한동안이나 철경이에게 무엇이라고 따 뜻이 말씀하신다. 환호소리에 그가 잘 듣지 못할 가봐 넘려하신듯 허리까지 굽히시고... 어머니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다만 뿌옇게 굳어진 망막속에는 장군님품에 얼굴을 거의 묻고 소곤소곤 그 무슨 이야기가를 아뢰고있던 철경이의 행복한 모습만이 영원한 사진처럼 떼어서있었다. 이윽고 화면에는 병사들의 혼란모습이 비쳐졌다. 힘있게 포탄을 그러쥔 장탄수리철경이가 월미도의 용사처럼 부각된다. 식당에서는 보조개가 쪽쪽 패이는 병사가 그이의 앞에서 음식솜씨를 보이고있다. 놀랍게도 전기로 밥도 짓고 국도 끓인다. 떠들썩 웃놀이경기도 벌어졌다. 자그마한 종이장우에서가 아니라 한마당 가득히 흰금을 그어놓고 병영구내를 통채로 웃판삼아 떠나갈듯 와와 기세를 올린다.

병사들이 웃는다. 장군님께서도 웃으신다!

어머니는 언젠가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킬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였구나! 그이의 가슴속에는 비단 철경이만이 아닌 그와 똑같은 수천수만의 자식들이 언제나 간직되어있었던것이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가슴속에 음지쪽 찬눈처럼 한응름 남아있던 그 작은 근심마저 다 녹여주시려 그이는 그토록 열화와 같은 해살을 뿌리시는것이다.

아, 장군님!... 어버이장군님...

불이 켜졌다. 하지만 누구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뚜벅뚜벅 누군가 무대우에 올라선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방금전에 화면에서 장군님을 수

행하던 일군임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어머니는 알아보았다. 그는 최정묵이었다.

《동지들!》 하고 웅글은 목소리가 장내를 흔들었다.

《동지들이 방금 보신 그 섬초소에서는 전번 해 일피해로 발동발전기가 고장나 일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초소에 선 아들이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진 〈병사의 고향소식〉도 보지 못하는 가슴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 무책임했던 저희들이 뒤늦게야 작성한 그 실태보고서가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대우에 오르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최정묵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였다. 떨리면서도 끊기면서도 그는 마디마디를 가다듬어 그날의 사연을 전하려고 애썼다.

뚜벅... 뚜벅... 개나리꽃 휘늘어진 정원길에 무겁게 울리던 그이의 발자욱소리.

《그러니 그 병사가 바로 십여년전 동무의 무를 베고 숨진 전우의 아들이란 말이지. 리철경이... 얼마나 아쉽고 마음이 아팠겠소, 얼마나...》

허리춤에 가져다대신 그이의 손에서 문건종이가 서서히 우그러진다.

최정묵의 심장도 함께 쪼그라든다. 돌각담처럼 무너진다.

《최고사령관동지. ... 어떻게 하나 출력이 센 발동발전기를 해결해서... 섬에...》

《발동발전기란 말이지. ...》

그이의 목소리는 너무도 무겁게 가슴을 허빈다.

《내 오늘 마음이 무거워 잠을 들것 같지 못하구만. 아마 그 병사의 어머니도 아들의 편지를 받고 밥술을 들지 못했을거요. 최정묵동무, 동무가 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그의 어머니라고 생각해봅시다. 한번만, 다시 한번만 더...》

회관안은 비어버린듯 조용했다. 오직 최정묵의 거친 숨결만이 바람소리처럼 들려왔다.

《전기! 전기를 글썽 망망대해 그 한복판에 배로 실어 날라가겠습니까, 비행기로 실어다가 뿌려주겠습니까. 이런 고충으로 모대기던 어느날 저는 또다시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이께서는 한 여인을 앞세우고 들어서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글썽 함께 웃놀이를 하자고... 동지들, 그 여인이 바로 섬초소의 이름없는 병사 리철경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사람들은 자기네 분장의 한 평범한 여인이 장군님과 그렇듯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 이렇듯 온 나라가 다 아는 사람으로 된것이 자랑이며 또한 길이 전할 전설같은 이야기여서 걱정속에 박수를 치고 또 치었다.

《그가 돌아간 다음 우리를 부르신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사실 동무들이 올린 보고자료들을 읽고 어느때든 그 섬초소에 꼭 가볼 결심을 하였습니다. <병사의 고향소식>을 보지 못하였다는 그 병사에게 내가 직접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주면, 그러면 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것 같아서 이 자리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오,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니까. 돌아갈 때까지도 내앞에서 아들걱정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등잔밑불에서 편지를 쓴 병사를 놓고 최고사령관인 내가 무슨 말을 어머니에게 할수 있단 말입니까. ... 그 병사가 바다를 통채로 전기저장고로 쓰겠다는 착상을 했다는데 그렇게 해줍니다! 바다밑으로 전기가 흘러가게 해줍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듯 자금이 좀 들더라도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우선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주자고... 병사들이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너무도 기쁘시여... 아침식사마저 잊으시고 바다길을 달려가시었던것입니다!》

최정묵은 더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가 혁 소리를 내며 연단에서 물러서자 객석에서 군대책임비서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날 새벽 촬영가들을 부르신 장군님께서는 이제 섬에 도착하면 나보다도 우리 병사들을 더 많이 찍어야 한다고, 편집이 끝나면 제일먼저 여기 분장마을에 필름을 보내주어 철경이의 어머니와... 그리고 고향사람들모두에게 보여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손로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름패인 눈가에 물기가 질벅했다.

《예끼, 이 못난 사람들아! 장군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병사의 어머니가 바로 여기 있

네, 여기에 앉아있어!》

로인은 사람들을 헤치고 다가와 울고있는 어머니를 자리에서 일으켜세웠다.

관람석 여기저기에서 《어머니다!》, 《어머니, 여기로 오십시오!》하는 웨침소리들이 연방 터져나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어디로든 한발자국도 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책임비서가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하여 자기 자리에 앉혀주었다. 그리고는 최정묵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모두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한번 더, 다시 한번만 더 뵙게 해주십시오.》

영화는 다시 시작되었다.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바다길을 달려오시고 철경이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감격의 환호를 터치고 또 터친다. 웃음넘친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도 시름을 다 잊으신듯 기뻐하시고 자, 어머니시여! 내 품에 말긴 당신의 아들을 좀 보시라 불러주실듯 객석을 향해 다가오신다. 우리모두에게로 다가오신다! 눈부시도다! 눈부시도다! 저기 태양의 빛발이 정녕 오다가 힘들다고 되돌아간적 있었던가, 쉬어서 오고 에돌아서 오고 타산하며 온적이 있었던가. 누구도 몰랐다. 그때 평양에서는 새로 짜는 텔레비존방송순서에 사연깊은 《병사의 고향소식》이 다시 오르고있었음을...

다만 여기서는 목메인 웨침과 감격의 눈물뿐...

영화는 또다시 시작되었다. 병사의 어머니는 이 나라 병사들의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르고있었다.

7

《조선인민군 군사우편 제198— 3117(人)에서 복무하는 아들 철경이에게...》

가 사

## 어서 말을 떼세요

김 철

내가 쓴 편지를 받았으련만  
왜 아직 회답이 없으시나요  
조국이 아끼고 사랑하기에  
순결한 내 사랑 고백했어요  
어서 말을 떼세요 영예군인동무  
내 진정 아시고 말을 떼세요 사랑한다고

나의 앞길에 짐이 될가봐  
아직도 대답을 피하시나요  
날 키운 부모도 승낙했는데

동무만 좋다면 그만이에요  
어서 말을 떼세요 영예군인동무  
내 진정 아시고 말을 떼세요 사랑한다고

조국을 위하여 피를 바친 몸  
그래서 동무를 더욱 사랑해  
내 한생 그대의 길동무 되어  
혁명의 먼길을 함께 갈래요  
어서 말을 떼세요 영예군인동무  
내 진정 아시고 말을 떼세요 사랑한다고

# 인사에 대한 생각

장 동 일

인사란 말에 대하여 물어보면 그 새삼스러움에 누구나 다 의아롭게 생각할것이다. 이렇게 인사란 가장 평이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과례절의 규범을 폭넓게 품어안고있는 가장 통속적인 말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명절은 물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자식은 부모에게, 학생은 선생에게 또 동지들 호상간에 깨끗하고 친근한 마음으로 인사를 주고받는다.

그중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영생과 더불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삼가 올리는 인사를 최상의 영예로, 첫째가는 도덕으로 간직하고 산다.

이 인사에 대하여 나는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말하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다.

그날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나날들중의 하루였다.

그날 저녁 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에서는 전례 없는 승엄한 의식이 진행되였다.

도당책임일군이 내려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임에 의하여 그이께서 오랜 설계가들에게 주신 인사를 전하는 모임이였다.

나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에 불뭉치가 안겨지는것 같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사를 받아안은 행운을 지닌 내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였다. 내가 제철시험로에 나가 현실체험을 하는 기간 아주 친숙해진 사이인것이다.

한생을 강철구조물설계에 바친 강철설계연구소 설계가들인 장동무, 오동무, 민동무, 양동무들은 받아안은 영광으로 해서인지 한 10년은 젊어져보이는 불깃불깃한 얼굴들로 나를 찾아왔다.

장동무가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작가선생, 사실 저희들은 쉬임없이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를 맞으며 그이의 건강을 축원하여 삼가 인사의 편지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썽 그이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인사를 보내주시다니... 저희들이 어떻게 위대한 장군님의 인사를 받을수 있단 말입니까? 작가선생이 한번 대답해보시오.》

나 역시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나는 걱정으로 끓어오르는 가슴을 안은채 주체철용광로를 찾아나갔다.

주체철용광로앞에 서니 자연히 경애하는 장군님

찾아오셨던 12월의 그날이 떠오른다.

김철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2월의 찬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오래도록 주체철용광로앞에 서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위원회 책임일군으로부터 강철설계연구소 설계가들이 집체적지혜를 총동원하여 우리 식 주체철용광로를 일떠세우고 여러차례의 간고한 시험끝에 마침내 100%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로 철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해설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크게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철용광로의 착상을 아주 기발하게 하였으며 설계도 독창적으로 하였다고, 우리가 100% 우리의 원료와 연료로 철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위대한 자력갱생의 생활력으로 증명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주체철용광로의 설계를 맡아한 주설계가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설계가들에게 보내신 인사!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받으셔야 할 인사를 먼저 전사들이 받는셈이 아닌가.

둘이켜보면 저 주체철용광로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행군길의 로독을 푸심이 없이 김철의 로동계급을 찾고 찾으시여 지펴주신 불길이였다.

지난해 2월에도 장군님께서 대형산소분리기 앞에서 2강철직장의 산소전로를 부감하시면서 저전로에 폭스로 끓인 쇠물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원료와 연료로 끓인 쇠물을 넣어야 한다고 선군조선의 로동계급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였다.

그 믿음이 있어 김철의 로동계급과 연구사, 설계가들모두가 산악같은 힘으로 펼쳐일어난 것이다.

설계를 재검토수정보충하고 컴퓨터모의시험을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노력한 결과 로의 모든 요소들이 질적으로 보수정비되었으며 여러차례의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주체철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 또다시 김철을 찾아주신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는 김철의 과학자, 로동계급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빛나는 전

# 동 북 산 야

김 남 호

달리는 렬차의 차창에  
런런히 비껴오는 동북의 산야  
가슴에 첩첩 쌓인 그리움을 없으시며  
장군님은 뜨겁게 바라보신다

언제나 잊지 못하신  
우리 수령님의 청춘시절이  
사무치게 새겨진 항일의 옛 전구  
빨찌산의 붉은 피로 맺어진  
조중친선의 뿌리가 내린 동북땅

네 줄기줄기  
푸르러 무성한 가지를 잠시 거두어  
보여다오  
20대의 빨찌산 청년장군이 새기신  
고귀한 혈전의 옛 자취를

우리 장군님 걸으시여라  
걸음걸음 사선의 고비를 넘으시면서도  
조중친선의 기치 높이 드신 수령님  
중국의 전우들과 어깨걸고 혈로를 헤치며  
천만산악을 뚫었던 항일전의 그 총성을!

오, 포연탄우속에서  
정의로운 이역의 벗들을  
전우로 조중친선의 투사로 되게 한  
수령님의 숭고한 단합의 그 리념  
그것이 사상이기 전에 피를 나눈 정이였고

생사를 같이하는 의리였으니

그 정과 의리  
억년뿌리로 깊이 내린 동북산야여  
너의 머리우에 펼쳐든 청청한 그 푸르름은  
숭고한 그 의리 못 잊어 떠받든  
우리 수령님의 영원한 청춘이 아니냐

바라보실수록 바라보실수록  
우리 장군님 가슴 뜨거우시었다  
조중친선의 위대한 선구자  
빨찌산 김대장의 모습으로  
거연히 안겨오는 동북산야

너는 빨찌산의 붉은 피로 맺어진  
조중친선의 증전자!  
공동의 위업을 향해  
어깨걸고 나가는 두 나라 후손만대가  
길이길이 삶을 비쳐보며 것처럼 살아야 할  
가장 맑은 의리의 거울!

친선의 두줄기 궤도를 따라  
달리는 렬차의 차창에 비껴오는 동북산야여  
새 세기의 앞길에  
반제평화의 창창한 하늘을 떠받들고  
조중친선의 참의미를 자욱자욱 깨우치며  
후손들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 빛나리라

통을 이어 일을 잘하였기때문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인민, 위대한 조국, 위대한 당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사를 로설계가들만이 아닌 김철의 모든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주시였다. 그것은 위훈 뿔친 인민에게 령도자가 안겨주는 크나큰 믿음이며 표창이다.

장군님의 그 믿음과 표창이 있어 김철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활활 타번지고있다.

그 기세로 김철의 로동계급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전투적호소를 높이 들고 앞장에서 달리고있거니.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곳곳을 찾으시여 자그마한 성과도 크게, 대견히 여기시고 인

민들에게 보내시는 가슴뜨거운 인사를 받아안을 때마다 내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사기충천하고 용기백배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기적이 창조되고 온갖 리상이 하나, 둘 꽃피나고 있다.

나는 믿는다.

머지 않은 앞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정스런 우리 인민이 장군님 그어주신 설계도대로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훌륭히 건설하여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리리라는것을!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사이에 오고가는 숭고한 인사!

나의 가슴이 송엄함과 걱정으로 더없이 그들먹해진다.



## 《분 화 구》

최 상 기

광산을 찾으면서 《분화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것은 정말 뜻밖이었다.

하지만 기적이 기적을 낳고 변이 변을 낳는 우리 조국땅의 현실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 정초에 뜨거운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재령광산에서 나는 뜻밖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장약작업이 끝난 뒤였다.

우리는 위험구역을 벗어나 높은 등판에 섰다.

광구장과 나란히 서서 팽팽한 긴장이 서린 광구 하단을 내려다보는 나의 가슴은 쿵쿵 뛴뛰었다. 이제 지심을 흔들며 대발파가 터져올것을 생각하니 흥분이 치밀어올랐다.

나의 들뜬 기분을 감수한듯 광구장은 빙긋이 웃었다.

《화산이 분출하는것을 보지 못했지요? 하긴 나도 피차일반입니다만 우리의 대발파를 거기에 비길수도 있습니다.》

《화산분출이요?》

《예, 어떻습니까? 책 보기에다 우리 광구가 분화구같지 않습니까?》

나는 두눈을 크게 떴다. 그의 비유가 아주 멋들어지고 신동했던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로 전변된 재령광산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별들중의 하나인 재령나무리별에 자리잡고있다. 이 무연한 지대에 깊숙이 내려앉은 로천광산은 그 모양새가 정말 갈데 없는 분화구이다.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광구 바닥, 하늘가를 향하여 아아히 치솟은 박토산봉우리들...

《하지만 자연이 내뿜은 분화구는 아니지요.》

광구장의 의미심장한 말을 무겁게 새겨들으며 나는 문자그대로 거대한 광구를 내려다보았다.

분화구!... 그러나 자연의 분화구는 아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발파의 시각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나는 1년어간에 이 분화구에서 터졌던 화산들을 떠올렸다.

첫 분출,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산을 다녀가신 지난해 3월 광구들에서는 백수십개의 소갱들이 동시에 폭파되는 극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광산로동계급들이 자기들의 정신력의 분출이라고 은근히 자부하던 소갱들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철광석광산이 아무리 중요해도 로동자들의 안전과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수 없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하여 광구들의 여기저기 벌등지처럼 뿔려있던 소갱들이 일시에 하늘로 날아나는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화폭이 펼쳐졌다.

광, 광, 광, 광

사방에서 터져오르던 흙기둥들, 광구를 진동하는 요란한 폭음들...

온 광산이 만세의 도가니로 뿔어번지였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인간이신 어버이장군님께 진정으로 매혹된 로동계급의 걱정과 폭발이기도 하였다.

한달후 광산에서는 또다시 화산이 솟구쳤다.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대로 광산 로동계급이 기존능력으로는 두달도 더 걸려야 한다던 물푸기전투를 20여일만에 끝내고 광구를 복구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날에 터쳐진 분출, 이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하나로 이어진 광산로동계급의 역센 기상과 과시였으며 장군님만 계시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과 긍지의 폭발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결사 관철한 광산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성과를 보고 받으시고 세계최첨단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작정기와 대형화물차들이 도착하는 날 광산에서는 또다시 화산이 분출하였다. 군고군은 광석층을 무른 흙층처럼 수월히 뚫고들어가는 작정기의 작업모습을 보며 그 누구나 환희와 경탄의 찬사를 터치였다. 발파구멍을 단 몇시간동안에 뚫어내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이날에 온 광산에 일어난진 환희와 경탄의 파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있다는 확신의 일렁임이었다.

그러나 올해 정초, 소한의 강추위가 광란을 부리고 폭설이 쏟아지는 이른아침 다시 광산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왔을 때 온 광산 사람들은 할말을 잊었다. 화창한 봄날도, 열매가 무르익는 가을날도 아닌 엄동설한에 차디찬 눈바람을 다 맞으시며 험하고 미끄러운 얼음길을 헤쳐오신 그이앞에 인사말조차 감히 잊었었다.

오로지 눈물, 눈물... 눈물만이 모든것을 대신하였다.

그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1년도 못되는 기간에 현대화를 실현한 광산의 모습이 참으로 기쁘시였다.

# 맹세로 불타는 아침

김 춘 길

싱그러운 바람결에  
꽃향기 실려오는 이 아침  
해살처럼 퍼지는  
우리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이여  
가슴부푼 이 걱정 이 환희여

이 아침의 하늘은 류달리 푸르고  
이 아침의 땅은 류달리 더 넓어진듯  
소문없이 조용히 떠나셨다가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고  
아 소문없이 돌아오신 우리 아버지

그이 안녕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감격의 눈물속에 서로 마주잡은 손과 손  
어디서나 그이 소식이다  
장군님 다녀가신 먼 이역만리를  
마음속에 자욱자욱 따라서보며...

그이의 숭고한 국제주의정신  
한없이 고결한 품모에 매혹되어  
얼마나 많은 중국의 벗들과 인민들이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했던가  
불멸의 그 화폭 눈앞에 그려보며  
그이 위대함을 더 뜨겁게  
가슴마다 새겨안은 마음들이여

그이 소식으로 들끓는 우리의 일터마다  
쌓인 피로 푸시라 기쁨드릴 마음들이  
노을빛석물의 불보라를 터쳐올린다  
비료폭포 끝없이 쏟아지고  
설레이는 밀보리도 류달리 푸르른 전야  
기름진 옥토마다 농민들은 기쁨의 씨앗 뿌려간다

이 나라 산과 들 그 어디서나  
떠나면 길 다녀오신 우리 장군님  
문득 우리 공장 우리 일터 찾으실것만 같아  
어디서나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높이 울려가는 강산이여

더 가슴후더웁게 느끼노라  
그이 계시여 저 하늘의 노을은 저리도 불타고  
우리의 봄이 이렇듯 아름답고 화창함을  
그이 계시여 인민의 행복이 있고  
내 나라의 찬란한 미래가 있음을

아, 세계가 우러르는 아버지장군님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 잘 더 높이 모실  
그 맹세로 불타는 아침이여  
내 조국의 뜨거운 아침이여

침수되었던 막장이 복구되고 최첨단설비인 착  
정기들이 품위높은 광석밭을 틀지게 타고앉아 호  
박에 동침 찌르듯 정대를 누벼가는데 굴착기들이  
힝힝 쇠돌을 퍼실어주면 대형화물차들은 광구  
길을 썩썩 치달아오르고 아득히 뻗어올라간 함  
드레에서는 광석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광산구  
내와 마을은 또 얼마나 번듯하게 환하게 변모되  
었는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하신 웃  
음을 지으시었다. 태양처럼 온 하늘을 짝 채우며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미래에 대한 축복인양 떨기  
떨기 안겨지던 존귀하신 그이의 미소...

...불현듯 광구장이 나의 팔목을 짊 그려쥐었다.

순간 광구하단에서 산악같은 흙기둥이 치솟아올  
랐다. 이어 천지를 드르릉 울리는 거대한 폭음,  
정녕 화산의 분출이라고밖에는 달리 부를수 없는  
장쾌한 화폭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온 넋을 잃고 활화산이 된 광구를 내려다  
보았다.

오, 다시 또다시 지켜보건대 이는 분명 단순한  
광석의 폭파가 아니다.

이 땅우에 기어이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  
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 사회주의강성대  
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  
과 의지, 그이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  
는 인민의 마음이 혼연일체로 만장약되어 세계를  
향하여 분출하는것이다.

나는 눈길을 높이 들어 태양이 빛나는 푸른 하  
늘아래 끝없이 화산을 뿜어내는 《분화구》를 보  
았다.

온 나라 도처에 이런 《분화구》들이 우후죽순  
처럼 솟구쳐 강성대국의 그날은 더 빨리 앞당겨지  
려니 조국이여, 보다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  
쳐 나아가자.



조인영 그림 김정화

저녁노을이 비낀 령너머 전선쪽에서 둔중한 포 소리가 쿵쿵쿵 지심을 흔들며 들려왔다.

명사마을 북판의 들메나무에 달아맨 폭탄깅지종이 여운을 길게 끌며 울려 퍼졌다.

진옥양은 샘물에 깨끗이 뻥 배자루에 방금 뜬 들인 흰쌀밥을 한가득 담아서 배낭에 넣어가지고 등에 졌다.

1211고지쪽의 하늘이 평국평국 마른 번개질이라도 하듯 끝없이 명멸하였다. 낮동안 찢물쿠던 해가 꺼진지도 이슥했다. 후끈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명사마을 전선원호대원들은 길떠날 차비를 하고 동구밖 느티나무아래에 줄지어섰다.

거울진 체대에 목청이 거센 성찬규서기장이 고지에 오를 마을사람들의 차림새를 하나하나 깐깐히 여겨보면서 이르곤 했다.

《신들메를 든든히들 하시우. 짐꾼들은 바싹 조이구. 땀수건들은 잊지 않았겠지요.》

그러던 그는 얼굴을 약간 돌리고 서있는 진옥양이앞에 이르자 《하, 오늘도 또 따라나섰수? 나 많은이가 그 짐을 지고 어떻게 직동령을 넘겠다고 그러시우? 어서 떨어지라구요.》하고 약간 짜증조로 말했다. 하나 옥양은 굳게 박힌 뺨돌처럼 끄떡없었다.

《천만에요. 내가 서기장아주버니 잔등에 업히올가봐 그러시우? 무슨 야간습격조라도 내보내듯 찬찬스럽게두 하십니다, 원. 어서들 떠나자구요. 내 걱정은 말구요.》

옥양의 배포유한 대답에 결의 사람들이 빙글거렸다.

《정 이러시겠소?》

말주변으로는 옥양을 당할수 없었던 성찬규는 목청을 높이었다.

《같이 가요, 아버지!》

성찬규의 딸 명순이가 옥양이를 편들었다.

《넌 늘 보아야 〈누에엄마〉 편이로구나. 이 길이 무슨 산놀이가는 길인줄 아느냐? 안돼.》

성찬규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옥양이 한걸음 다가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주머니가 날 어떻게 보구 그러시우. 내 이래봐두...》

성찬규는 옥양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아챈듯 지레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다.

《됐수다, 됐어요. 내 아주머니앞에서는 두손 들었수다. 마음대루 하시우. 하여튼 남들한테 짐이 되여선 안되우다.》

《그런 걱정은 마시라구요. 원 안할 걱정을...》

성찬규는 어쩔수 없다는듯 고개를 흔들며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자, 모두 내 구령을 들으시오. 다들 떠납시다. 어두워오는데 조심하면서 떨어지지 말구요.》

모두 성찬규의 구령을 따랐다.

수십명의 전선원호대원들은 탄약상자와 밥함지를 이고지고 직동령을 향하여 걸음을 다그쳤다.

옥양은 대오에서 서너걸음 떨어졌으나 용기를 내어 뒤따라왔다.

명순은 마음고운 옥양을 걱정해주는건 좋지만 대오에서 떨어어놓으려는 아버지가 야속해났다. 그래서 슬그머니 걸음을 늦추어 옥양이와 함께 걸었다.

《어머니, 노여워말아요. 율아버지의 꿈은 성격을 잘 알지 않나요.》

명순이가 사죄하듯 말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너의 아버지야 전선원호대를 책임지지 않았니. 걱정이 돼서 그러는거지.》

옥양은 대수롭지 않다는듯 빙그레 웃어보였다. 명순은 대범하게 말하는 옥양이 돋보였다.

어둠속에서 옥양의 얼굴이 유난스레 환하게 보였다. 새각시적에 마을에서는 그를 미인이라고들 했다. 옥양이 시집오는 날 모두들 그를 보고 감탄했다고들 한다.

동백기름으로 윤을 낸 머리북판에 곱게 탄 흰가리마와 달빛같이 환하고 동그스름한 이마며 대칭으로 곱게 그어진 검고 가느다란 눈썹밑에서 영채도는 어글어글한 쌍겹눈은 한마디의 아름답다는 말로는 다 그려낼수 없으리만치 사람들의 마음을 끄당겼다고 한다. 발그레한 뺨뺨처럼 작고 도톰한 입술, 그윽한 미소가 보조개를 곱게 파놓은 양볼은 산촌의 정기에 함초름히 물젖은 한떨기의 옥잠화를 방불케 하였다.

한가지 아쉬운것은 그처럼 아릿다운 새각시가 가난한 탓으로 잔치날에도 거친 석새베옷을 입고있었다는 점이었다. 하기는 어떤이들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가 더 곱게 보였다고도 했다.

하나 이것은 이미 오래전 새각시적 옥양의 모습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은 그 녀인을 새롭게 단장시킨듯 했다.

해빛과 초연에 가무스름하니 그윽은 옥양의 얼굴에도 어느새 굵고 가느다란 주름살들이 확연히 자리를 잡았고 함함하고 칠칠한 머리에도 흰오리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허나 전쟁의 시련은 그의 아름다움에 한가지를 더 보태여주었으니 그것은 시련의 나날에 그가 보다 역세고도 낭만적인 녀인으로 변모된것이였다.

고요하고 잔잔하던 그의 성격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것은 세 아들을 군복입혀 미제놈들을 무찌르는 성스러운 싸움터로 떠나보낸 뒤부터였다. 그때로부터 하루의 많은 생각은 줄곧 아들이 이기고 돌아올 래일에 대한 그리움으로 치달아오르곤 했다. 그날을 위하여 그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고 전선원호에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가지가지 시련을 웃으며 이겨내곤 했다.

이렇듯 전쟁이라는 가혹하고도 준엄한 나날속에서 그는 오히려 보다 담차고 락관적인 성격으로 세련되어갔던것이다. 게다가 그는 점차 익살스러워지기도 했다.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자기도 많이 웃고 남들을 웃기기도 했으며 노래도 즐겨 불렀다. 그는 같이 늙어가는터에 《나많은이》라고 하면서 늘쌍 자기를 뒤전에 세우려는 성찬구를 리해는 하면서도 고깝게 여겼다.

8월의 무더운 밤.

등에 진 뜨거운 밥배낭이 옥양의 몸을 화끈 덥히며 목덜미에서는 줄땀이 흘렀다. 그는 헉헉 단김을 내뿜으면서 남정네들과 젊은 녀인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입술을 옥물며 걸음을 다그쳤다.

고지에서는 인민군전사들이 하루에 강냉이 한이삭으로 끼니를 예우며 바위를 굴려 미제놈들을 함정굴에 처넣는다고 했다. 그런 전사들속에 아들도 있는것이다.

포성이 점점 가까와지자 옥양은 은연중에 아들들 생각을 하였다. 잘 싸우고들 있는지, 혹 부상이나 당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용감한 전사에게는 총탄도 피해간다는 말을 굳이 믿고 살았다.

이제 멀지 않아 승리한 그날에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끝끝한 용사로 자란 아들이 돌아오리라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짝 차있었으니 그 확신으로 하여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으며 래일에 대한 기다림이 곧 그의 생활의 락이였고 기쁨이었다. 그러한 기다림이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된 삶이야말로 보람있는 삶이 아닌가. 그러한 래일에 대한 굳은 믿음이 없다면 무엇때문에 헉헉 단김을 뿜으며 극한점을 이기면서 위험하고 험한 경길을 어두운 밤에 넘으랴. 누가 이끈다고 이 길을 가며 누가 시킨다고 하루밤에 열두가마나 군대들의 밥을 지었으랴. 전선에서 우리 아들이 끼때를 건느면서도 양코배기들을 족치고있는데 내 배를 뚫더라도 더 많은 식량을 고지에 보내주어야지...

그래서 밤 밝혀가면서 발방아로 옥백미를 찧어 밥을 지어가지고 떠난 옥양이다.

《옥양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명순은 가쁜숨을 할딱할딱 툴으며 물었다.

《나라고 왜 안 힘들겠니, 참고 견디지.》

진옥양은 짧고 강단있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텃 불었다.

《빨리 돌아서야 할텐데. 누에들이 석잠을 자게 됐는데 아무래도 뽕잎이 모자라겠어.》

앞마당 가설막에서 무럭무럭 자란 누에들이 눈앞에서 서물거렸다.

길 떠나기 전에 뽕잎을 듬뿍 주었고 또 명순이 어머니에게 밤중에도 한두번 밤먹이를 주라고 일렷지만 자꾸만 누에들이 속에 걸리었다.

옥양은 자기를 늘 가까이 하고 속마음을 헤아려주는 명순이에게 자신의 희로애락을 숨기지 않고 터놓곤 하였다.

진옥양은 명순이를 옥돌처럼 단단하고 땃힘새있는 처녀라고 늘 칭찬했다. 키가 꺾두룩하고 어텐가 무뚝뚝한 아버지의 성미와는 달리 매사에 찬찬하고 인정미가 있어 옥양은 명순이를 딸처럼 귀애했다. 부잡스럽고 덜통스럽던 세 아들을 키우면서 은근히 딸이 부럽기도 했던 옥양은 명순이가 자기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걸 무척 기뻐했다.

스물두살 꽃나이로 한창 피어나는 그를 은근히

만아들과 나란히 세워보기도 하는 옥양이었다. 《자, 바짝 다그쳐 걸읍시다. 령을 넘어가면 군대 동무들이 마중나올거웨다.》

성찬규는 탄약상자를 두개나 지었다. 그의 거친 목청에서도 썩썩 단김뽀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일행은 모두 힘에 겨워했다. 옥양은 힘겨웠지만 이를 악물고 걷고 또 걸었다. 그는 직동령을 넘을 때마다 이것은 곧 자기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미제놈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것은 녀성의 연약한 육체적힘만으로는 이길수 없는 간고한 싸움이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려움에 맞설줄 알며 쓰러질 지경으로 확확 겨볼 내를 뽑게 하는 극한점에서도 웃을줄 아는 정신적힘이 있어야 했다. 하나 옥양은 늘 자신의 일 욕심에 비하여 힘과 인내력이 딸리는것을 느끼곤 했다.

령마루를 얼마 앞두고 옥양은 다리가 휘친거리고 땀이 비오듯 흘러 더 걸을수가 없었다.

떠나기 전까지 뽕을 따느라고 가파로운 뒤산을 세번이나 오르내린 옥양이다.

그는 마을사람들로부터 점점 뒤떨어졌다.

《명순아, 난 아무래두 좀 앓았다 가야겠구나. 공연히 따라와서 애를 먹이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쩐지 네 아버지한테 미안하구나.》

옥양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럼 나하고 같이 한숨 돌리고 따라가자요.》

명순이도 갖가지 부식물이 담긴 배낭을 벗어놓으며 말했다.

《너의 아버지가 찾으면 어찌겠니? 나야 없으면 떨어진걸루 알겠지만 네가 없어봐라. 뒤돌아서서 찾아떠날게다. 네 아버지가 아무리 힘이 장사래두 새벽부터 밤중까지 잠시도 앓을새없이 들달리자니 오죽 겨웁겠니? 넌 어서 가보렴.》

《그럼 내가 빈몸으로 달려가서 알리고 올테니 기다려요.》

명순이가 발딱 일어나자 옥양은 다급히 밀막았다.

《그러지 말어. 네 아버지가 예까지 와서 내 짐이랑 덧지구 가면 내 꼴이 뭐가 되니? 이제 네가 없는걸 알고 부를 때면 대답이나 하고 따라가자꾸나.》

옥양의 말에 명순이는 앓고말았다.

×

미제놈들의 온갖 폭탄과 포탄으로도 다 불태울수 없었던 험준한 직동령의 숲속에서는 한창 커가는 돌배에서 풍기는 씩쓰레한 냄새며 새파란 머루다래송이가 풍기는 짜릿하면서도 새콤한 향기가 숲의 훈향에 뒤섞여 가슴 후련하게 실려왔다.

옥양이와 명순이가 마음을 조이며 잠시 앉아 숨을 돌리는데 그들이 지나온쪽에서 두런두런 말소

리가 들려왔다. 전지불이 번뜩이는걸 보니 군대들인가 보았다. 군인들은 잠시후에 옥양이네가 쉬는 곳에 이르렀다.

《아니, 이거 진옥양아주머니가 아닙니까?》

전지를 든 군관이 반색을 하였다.

진옥양은 늦은 봄날에 낮을 익힌 인민군협주단의 작가를 알아보고 기꺼이 인사를 했다.

키가 크고 두눈이 어글어글한 종군작가는 옥양이가 고지로 간다는 말을 듣고는 못내 감탄하면서 그의 배낭을 앓아지고는 어서 가자고 이끌었다.

《누에만 먹이재도 힘드시겠는데 이렇게 힘겨운 길을 떠났구만요. 그런데 누에들이 잘 자라고있습니까?》

종군작가는 큰키를 낮추며 물었다.

《덕분에 잘 크고있답니다.》

옥양은 미안해하면서도 반기며 대답했다.

그는 봄누에가 갓 까나온 4월 중순경에 명사마을에서 종군작가를 만났었다.

그때 옥양은 누에가설막안에서 방금 까나온 어린 누에들에게 잘게 썬 뽕잎을 고루 뿌려주고있었다. 종군작가는 포연이 가실날 없는 전선마을에서 농사일도 하고 전선원호도 하면서 누에를 먹이는 진옥양을 대견해하면서 그의 생활을 깊이 관심하였다.

《어이구, 눈에두 잘 뜨이지 않는 잘디잔 벌레들이 뽕잎을 잘도 먹는구만요.》

학습장크기만 한 종이장에 촘촘히 붙은 알에서 까나와 뽕잎을 먹고있는 누에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종군작가는 신기해했다.

《작가어른, 고것들을 벌레라구 하지 마슈. 나한테는 고것들이 귀여운 아기나 같답니다. 고 귀여운 아기들이 날이 다르게 자라 고치를 틀 림박에는 뽕을 입으로 들이대어도 모자랄 지경이랍니다. 그래도 늘쌍 굵기만 한걸요.》

진옥양이 설명하자 종군작가는 자기의 실언을 뉘우치듯 빙그레 웃으면서 《정말 귀여운 아기처럼 애지중지하시는군요. 이 전쟁통에도 용케 누에를 먹이는 옥양아주머니의 소식을 전선의 군인들이 알면 모두 좋아할겁니다.》 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제발 소문을랑 내지 마시우. 촌아낙네가 해마다 버릇처럼 굳혀온 일을 하는게 뭐가 그리도 장해서 그러십니까.》

옥양은 겸손하게 대답했었다.

그런데 정말 종군작가는 돌아간 뒤 전선신문에다가 진옥양이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면서 누에를 정성껏 먹이고있다는 소식을 실어서 군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이어 그 사연을 적은 만아들 석철이의 편지가 옥양이앞으로 왔는데 봉투안에는 그 신문기사도 들어있었다.

자기의 보잘것없는 소행이 무엇이길래 군인들이 그다지도 기뻐했던 말인가.

옥양은 쪽스러움과 함께 기쁨으로 일렁거리며 후더운 가슴속에 전선신문의 기사를 고이 간직하고는 누에를 더 직심스레 먹이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옥양은 그달음으로 60리밖에 있는 읍에 달려나가 누에알 몇장을 더 가져왔었다.

그랬던 누에가 이제는 고치를 날이 머지않았다.

《옥양아주머니, 누에가 집지을무렵엔 내 쪽 들리겠습니다.》

종군작가는 걸걸한 음성으로 다짐했었다.

그렇게 만났던 종군작가를 한밤중에 험한 령길에서 만난 옥양은 마음이 기쁘고 든든했다.

종군작가일행은 서넛이었다. 종군기와 종군촬영가도 있었다.

《오늘 때맞추 길떠났습니다. 련대화선악기조동무들의 공연이 있는데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재두 하고 영화도 찍으러 가는 길입니다.》

종군작가의 설명에 옥양은 은연중 가슴이 설레었다. 언젠가 만아들 석철이가 탄피금이라는걸 창안해가지고 소문을 냈다는 편지를 받은적 있는데 혹시 무대에서 그를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옥양아주머니,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코배기놈들이 요즈음 사방에서 얻어맞고 혼쫓이 나고있습니다. 함정골에서 무더기로 녹아나고 전전선에서 물리우고있는 판입니다. 전선과 못지 않게 후방에서도 모두 일떠나서 옥양아주머니처럼 분발하고있는데야 대양 건너온 승냥이놈들이 건딜 재간이 있습니까. 옥양아주머니가 먹이는 누에도 놈들을 쏘아잡는 총알 맞잡이인셈이지요.》

종군작가는 맨 앞장에서 씨엉씨엉 걸으면서 험걸차게 말했다.

그의 말에 옥양의 마음속에는 든든한 기둥이 뿌리내린것만 같았다.

우리가 이길 날이 머지않았던 말이지. 그러니 더 힘을 내서 다그쳐 걸어야 할게 아닌가.

옥양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종군작가의 등에서 배낭을 벗겨내려고 두손으로 배낭끈을 잡아 쥐었다. 갈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안 종군작가는 옥양의 심정을 헤아려주었다.

《옥양아주머니, 내 봄철에 약속한대로 누에 고치를 팔 때 꼭 들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만납시다.》

종군작가는 련대정치부에 들리기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옥양은 종군작가를 령길에서 만난 일이 꿈만 같았다. 그가 은연중에 힘을 주어 어느 사이에 령을

넘었는지도 몰랐다. 또한 자기가 하고있는 별치 않은 누에치는 일에도 것처럼 관심을 돌려주는 종군작가가 더없이 고마와 더 큰 고치를 따리라 마음 다지게 되는 옥양이었다.

성찬규서기장은 옥양이가 끝내 뒤따라온것을 보자 장하다는듯 혼연히 미소를 지어보였다.

원호물자와 탄약상자를 인계한 그들은 련대의 후방경도로 안내되었다. 경도엔 무대가 설치되어있었다.

×

드디어 화선악기조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끝끝한 인민군용사들이 전투의 여가에 만든 화선악기들을 가지고 무대에 나오자 명사마을 사람들은 너무도 기뻐서 박수부터 보내었다.

옥양이는 만아들 석철이가 끼끗하고 장대한 체격으로 맨 앞줄 가운데에 나와선것이 너무나 대견하여 어쩔줄을 몰랐다. 석철이도 어머니를 알아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눈인사를 보내었다.

명순이의 얼굴에도 발긋하니 흥조가 떠올랐다.

어린시절에 석철이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따준 머루다래를 맛나게 먹던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석철은 열성껏 탄피금을 두드렸다.

명순이는 옥양의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들었다.

그는 석철이와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정겹게 눈인사를 보내었다.

《조국보위의 노래》, 《진군 또 진군》과 같이 힘있고 박력있는 노래들이 연주된 다음에 정서적인 전시가요들인 《우리 님 영웅되셨네》, 《샘물터에서》가 연주되었다.

전사들이 창작한 화술소품들도 공연했는데 석철이가 출연한 만담 《소원》이 제일 인기있었다.

석철은 익살스럽고도 능청스러운 표정을 짓고 무대에 나오더니 자신만만하게 만담을 시작하였다.

《에— 인민군대한테 된벼락을 맞은 미군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장교놈이 별별 펄면서 졸병놈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병들, 인민군대가 우리를 사방에서 포위해 들어오고있다. 나의 소원은 우리모두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인민군대의 총알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자는것이다. 그래 제군들은 어떻게 죽기를 소원하는가?〉

그러자 졸병놈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장교님! 우리는 늙어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석철은 세련된 화술과 익살스러운 손짓, 몸짓이며 얼굴표정으로 미제놈들의 물골을 방불하게 그려보였다.

만담이 끝나자 즐거운 웃음과 함께 요란한 박수

소리가 울리었다. 화선악기조의 공연은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명순이도 옥양이도 속이 후련하게 웃었다.

떠날무렵에 석철이는 어머니를 따로 만났다.

《어머니, 좀 축값군요. 조금만 참자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제놈들이 무릎을 꿇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오냐, 나도 알고있다. 내 걱정은 말아라.

명순이 아버지랑 마을어른들이 도와서 땅을 한 치도 묵이지 않고 누에도 친단다. 참, 명순이랑 인사나누렴.》

옥양은 자리를 비켜서며 명순이를 가리켰다.

《석철오빠, 안녕했어요?》

명순이가 명랑하게 말했다.

《명순인 포연속에서도 시들지도 축가지도 않고 싱싱한 산나리꽃처럼 피어나는구만.》

석철은 명순이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옥양은 한없이 미쁜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한 눈에 담으며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았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림름한 세 아들이 빛나는 혼장을 가슴팍에 번쩍거리며 돌아오면 좁은 품에 다 나라의 영웅들을 어찌 다 안아주랴 하는 생각이 그를 기쁘게 했고 그래서 그의 심장은 마구 뼉 박질하는것이였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옥양은 세 아들이 무력무력 자라던 평화시기의 나날을 추억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부러운것 없던 행복한 시절이였다.

끝날같은 세 아들에 기둥같은 남편이 있어 옥양은 언제나 마음이 든든했다. 옥양은 남편과 함께 성인학교에서 선참으로 문맹퇴치를 했고 시집와서 처음으로 령너머 친정어머니에게 설날의 문안인사를 엽서에 적어서 보냈었다. 아이들도 중학교를 마치고는 읍에 있는 농업학교에 가서 농학과 축산, 과수학을 배우겠다고 저마다 푸른 꿈을 지니고있었다.

생활은 나날이 윤택해졌다. 해마다 애국미를 선참 내고도 독마다에는 옥백미가 가득했다.

새끼낳는 검정암돼지에 알낳는 닭이 열댓마리, 염소와 양도 너댓마리나 있었다.

뽕잎같은것은 걱정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늘 승벽내기로 싱싱한 뽕잎을 따가지고 오곤 했다. 맏이인 석철이는 한밤중에도 슬그머니 일어나 누에가설막으로 들어가서는 덧뽕질을 해주곤 하였다.

그렇게 온 집안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누에고치를 나라에다 바치면 식구들에게 새옷을 해입히고도 돈이 남아 공채를 사고 저금도 흠뻑 했었다.

그 모든 즐겁고 보람찼던 생활을 미제놈들이 짓뭇개고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결코 빼앗길수 없는 생활이였다. 그 모든 행복을 지켜내고

더욱 꽃피워야 했다. 이것이 옥양의 소원이였고 그를 분발케 하는 정신력이였다.

×

마을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성찬규가 거친 목청으로 소리쳤다.

《자, 이제 얼마후엔 동이 트겠는데 귀쪽을 말아베고 얼른 잠간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일손들을 잡읍시다.》

《귀쪽을 말아베다》는 말은 이즈음에 성찬규가 지어낸 말이다. 베개를 베고 편히 잠에 들었다면 해가 궁둥이를 지질테니 잠간 쪽잠이나 들자는 소리였다.

옥양은 잠시 선자리에서 서성거리였다.

고치집 지을 때 들리겠다던 종군작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오디골에 들어가서 뽕을 한입 따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슬그머니 뒤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얼마쯤 멀어져가자 옥양은 슬며시 오디골로 들어섰다. 그는 험한 지형을 돌아오르면서 은근히 명순이가 따라올가봐 걱정했다.

떠나올 때부터 뽕잎이 적다고 그앞에서 시름겨워했으니 뒤를 밟아올지도 몰랐다.

미제놈 폭격으로 수림마저 적지 않게 타버렸건만 오디골에는 포탄과 폭탄이 덜 미치여 요행 숲이 푸르러있었다. 쪼각달빛에 희웁스름한 하늘을 배경으로 산릉선쪽을 올려다본 명순은 옥양의 자태를 띄여보았다. 옥양은 손더듬으로 낮추 드리운 뽕나무가지를 휘여잡아 달빛에 반들거리는 두툼하고 탐스런 뽕잎사귀를 부지런히 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옥양은 문득 인적을 느끼며 소리쳤다.

《사람이냐, 짐승이냐?》

명순은 그 소리에 까르르 웃음을 터치였다.

《누에엄마! 저예요, 명순이!》

처녀는 스스럼없이 옥양을 《누에엄마》라고 불렀다. 옥양은 그 부름을 반가워했다.

《아유, 간떨어질번 했네. 근데 왜 뒤를 밟아왔니? 네 아버지 말대로 빨리 가서 귀쪽을 말아베고 한잠 잘게지.》

《둘이 따면 더 빠르지 않나요. 그런데두 날 때 놓구 슬쩍 빠져서...》

명순은 일부러 실쭉한 인상을 지었다.

그리고는 헤덤비며 뽕잎을 따기 시작하였다.

뽕집이 다 차자 그들은 손목을 꼭 잡고 비탈길을 내리였다. 몇번이나 미끄러져서 지치면서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고 뽕집과 함께 한두고괘 굴기도 하였다. 발을 조심히 옮겨디디며 내려오던 그들은 그만에야 땅이 푹 꺼져 달아난듯 한감을 느끼면서 낭떠러지아래로 허양 떨어져내렸다. 영문을 몰

라 눈을 꼭 감고있었던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들은 분명 벼랑우에서 떨어졌으나 어데 하나 다친데가 없이 마치나 구름우에라도 올라앉은것처럼 온몸이 아래로 흥떡이고있는게 이상해서 웃음마저 나왔다.

《우리가 무슨 구름같은걸 타구 어데론가 날아가는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다. 발은 왜 땅에 닿지를 앓구 몸은 왜 맘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겠는지 모르겠구나.》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려고 한참이나 허둥거렸으나 발이 허공에 들려 버둥거리고있어서 다가갈수가 없었다. 마음을 진정하여 영치밀을 찬찬히 어루다듬던 옥양은 그제서야 해묵은 등나무와 다래나무줄기가 마구 뒤엉킨 덩굴우에 높이 올라앉은것을 알수 있었다. 팔목만치 굵은 다래나무줄기가 가로세로 엉키어 건너갔는데 두다리느 아래로 드리워 맥없이 버둥거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커먼 미궁같은게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손더듬으로 허우적거리다가 자칫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날에는...

《명순아, 해덤비지 말고 날이 썰 때까지 기다려서 내려갈 길목을 찾아야 할가부다.》

옥양은 명순이가 상심해할가봐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들을 두루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그가 시집와서 첫아들을 낳았을 때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몸을 추세운다고 사냥을 떠난적이 있었다.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에 시아버지는 머루다래덩굴우에 풍덩 빠져 네다리를 쓰지 못하는 노루를 산채로 잡아왔었다고 한다.

명순은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심드렁하니 들어넘기면서 쪽잡에라도 들어볼가 하고 침묵을 지키었다.

옥양은 명순이가 졸지 말라고 지지리 가난했던 자기의 지난날 시집살이이야기를 했다.

...해방전에 가난한 농사군집에 시집온 옥양의 두어깨에는 실로 아름다운 고역이 지워졌다.

늙은 시할머니와 시부모에 오롱조롱한 시동생이 넷이나 되었다. 게다가 그 또한 년년생으로 세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메마른 밭 몇헥기 소작으로는 식구들을 먹여살리기가 어려워 여기저기 광산과 탄광으로 날품팔이를 다니곤 하였으나 벌어들이는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열두식솔의 호구지책은 물론이요, 옷가지 장만도 모두 옥양의 손을 기다렸다. 하나 시동생들에게 삼베옷 한벌을 해입히려고 손끝이 닳도록 일해도 돈이 차지 않아 눈물짓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옥양은 고역에 지쳐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할 지경으로 몸져누웠다. 어찌나 되게 앓았던지 시부모들도 병구완을 단념할 정도였다. 옥양은 그 어려운 생활을 등지고 차라리 편안한 주검이 되고싶은 생각마저 가져보았다. 날품팔

이 나갔던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왔을 때는 옥양의 병세가 퍼그나 기울어진 때였다. 남편은 옥양의 가슴을 두드려 깨웠다.

《여보, 당신이 눈감으면 우리 집 열두식솔은 어찌하란 말이요? 어서 눈을 뜨고 일어서서 억척스레 살아봅시다. 왜놈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앞을 내다보고 일어나야지.》

남편은 떠돌며 들은 백두산빨찌산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옥양에게 힘을 주었다.

남편은 쾅쾅 쾅쳐들고 온 몇푼 안되는 돈으로 탕약을 달여 옥양의 입에 떠넣었다.

옥양은 몇날만에야 눈을 떴다.

오롱조롱한 세 아이들이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눈물짓고있었다. 옥양은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아니야, 이래서는 안돼. 일어나야 해.

그는 남편이 떠넣어주는 깔깔한 좁쌀죽을 억지로 받아 넘기었다.

온 겨우내 앓고난 그는 냉이싹이 움트는 초봄에야 몸을 털고 일어났다.

그해부터 그는 뽕누에를 쳤고 목화를 심었다. 했지만 나아진것은 없었다.

왜놈들이 《공출》이요, 《헌납》이요 하면서 모조리 앓아갔던것이다. 그래도 그는 락심하지 않고 꾸준히 일을 했다. 밤새워 새벽닭이 울 때까지 무명날이를 해서 손바느질로 집식구들의 옷을 지어 입히었다. 왜놈들이 망할 날이 온다고 믿으면서...

그러다 해방을 맞이하였다.

모든것이 완전히 달라졌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을 분여해주시고 녀성들에게도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안겨주시었다.

새 나라의 품에서 그는 맘껏 농사를 지으며 누에를 먹이었다.

장농에는 새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쌓였고 아들들의 장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지난 세월 우물했던 옥양의 얼굴에도 점차 웃음꽃이 피었다. ...

이야기를 마친 옥양은 성찬규가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들을 찾아나섰을것만 같아 미안해했다.

《옥양어머니, 사실 우리 아버지 속이 깊으셔요. 세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네는 마을에서 첫째가는 후방가족이라면서 남편마저 없는 어머니네 농사일을 잘 도와와 한다고 사람들한테 늘 말씀하셔요.》

사실 옥양이도 성찬규의 웅심깊은 그 마음을 잘 안다.

옥양의 남편은 생전에 성찬규와 제일 가깝게 지냈었다.

지난해 이른봄날 새벽이었다.



남편은 아직도 살얼음이 낀 논판에서 황소잔등에 위장을 하고 논을 갈았다.

성찬규는 옥양이 남편의 새빨강게 얼어든 다리가 살얼음에 굽힌것을 눈뿌리 아리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여보게 정호, 해별이나 퍼진 뒤에 가세나!》

《낮에는 적기들이 지랄치니 일자리가 나야지.》

정호는 너부죽한 얼굴에 혼연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한낮경에 적기들이 달려들었다.

논가운데서 폭탄이 튀고 기총탄들이 물탕을 튕기며 들이박혔다.

문득 정호가 가슴을 불안으며 쓰러졌다.

남편의 점심을 안고 나오던 옥양이 그 광경을 띄어보고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았다.

근처에서 일하던 성찬규와 마을사람들이 달려왔다. 성찬규는 정호를 안고 마른땅으로 내다 놓히었다. 도저히 손쓸새 없는 치명상이었다.

정호는 찬규의 무릎을 벤채 흐려지는 눈길로 푸른 하늘을 더듬고있었다.

《여보,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가면 우린 어떡해요?》

옥양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지었다.

남편은 안해의 두손을 꼭 잡고 힘주어 뇌이였다.

《석철이 엄마, 눈물을 보여선 안돼. 미체놈들이 좋아해. 우린 늘 김장군님 품속에서 웃으며 살자구 했지. 이제 애들이 곧 이기고 돌아올텐데 뭘. 내가 없다구 땅을 한치도 묵여선 안되오. 그리구 누에도 잘 맥이라구요.》

옥양은 북받치는 눈물을 꼭꼭 눌러삼키며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그리고는 남편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자신을 자책했다.

정호는 아귀센 손으로 성찬규의 무릎을 꼭 부여잡으며 토박토박 말했다.

《찬규 이사람, 우리 애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 농사일을 부탁하네.

서기장, 자넨 우리가 곧 이긴다고 늘 말했지.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이라고 말일세.

그날까지 수고가 많겠네.

아, 이 땅을 채 갈아엎지 못하고 가는 나를 용서하게.》

옥양은 남편의 눈을 고이 감겨주고 분연히 일어났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찬규며 마을보잡이들이 손모아 그의 논을 갈아엎을 때 옥양이는 쇠스랑으로 힘껏 논귀통이를 찍어넘기였다.

그리고는 누에도 더 직심스레 먹이였다. ...

새벽을 가까이 하면서 쪼각달이 서산에 넘어가자 사위는 점점 깜깜해졌다.

그무렵 골짜기아래 행길쪽에서 불빛이 꺾박대더니 웨쳐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옥양아주머니 - 이.》

《명순아 - 아.》

여럿이 함께 웨치는 부름속에서 그들은 성찬규의 목소리를 분명 가려들었다.

옥양은 그 웨침을 들으며 반가움에 앞서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남정네들이 잠시나마 눈불일 시간마저 앗아내었으니 못내 죄송스러웠다.

옥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길게 웨쳤다.

《서기장아주머니, 우리 여기 있어요 - 오.》

그러자 골짜기아래에서 남정네들이 기뻐서 떠들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옥양의 눈아래에서 화불방망이들이 춤을 추었다.

가까이 다가온 성찬규가 헐떡거리며 물었다.

《명순아, 왜 그러느냐?》

《아버지, 우린 다리를 못 써요.》

《벼랑에서 떨어져 다리를 상했니?》

찬규가 급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올라왔다.

그러던 성찬규는 머리우 아찔한 높은 곳에서 맥없이 버둥거리는 그들의 다리가 불빛에 드러나자 아연한 기색이 되었다.

《뿔하러 밤중에 이 골짜기엘 들어왔소? 도깨비한테 흘려서 혼맹이가 나간건 아니요?》

성찬규의 물음에 옥양은 대답을 못하였다.

남정네들이 발치에서 뽕짐들을 찾아보고는 영문을 깨닫고 꺾꺾꺾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거 귀한뎌 고생시키고있군그래.》

누군가의 절죽한 통담에 《거기야 왜 고생시켜요. 영치가 수골했지유.》 하고 옥양이가 익살을 부리였다.

남정네들은 도끼와 낫들을 휘둘러 다래나무와 등나무줄기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어 덩굴을 주저앉혔다.

모두 지칠대로 지치여 말없이 걸었다.

옥양이도 송구하여 입을 단아매고말았다.

×

땀에 젖은 저고리가 옥양의 잔등에 착 달라붙었다. 명순이는 뽕임을 인채 옥양이를 따라 성급히 누에가설막안으로 들어섰다.

옥양은 가설막에 들어서자 초불부터 켜놓았다.

벼짚이영을 이은 가설막에는 굵은 장대들로 두층의 덕대가 매여있었다. 그우에 엮은 싸리로 정성들여 결은 누에자리들마다에서는 뽕얀 우유빛갈의 토실토실한 누에들이 한창 뽕잎 갇아먹는 소리가 알릴듯말듯 귀전에 들려왔다.

《에그, 명순이 어머니가 새벽뽕을 벌써 주었구나. 네 어머니가 나보다 더 열성이라니까.》

옥양은 낮게 뇌이면서 드문드문 뽕잎이 빈자리에다 덧뽕질을 해주었다.

생신한 뽕잎을 뿌려주자 새끼손가락만치 굵은 누에들은 통도무레한 몸뚱아리를 부지런히 꼬불락거리며 새 뽕잎들을 타고앉아 극성스레 먹어대기 시작하였다.

그 모양을 잠시 들여다보던 옥양이가 입을 열었다.

《글쎄 그 협주단의 종군작가선생님말이다.

엣저녁에 만났을적에도 우리 누에들이 잘 자라는가고 안부를 묻지 않겠니. 그제 전선의 용사들에게 힘이 된다면서 말이지. 그 말을 들으니 누에치는 일이 별루도 성수가 나고 더 재미가 나는 것만 같구나.

이제 두고보렴. 요 귀여운 아기들은 배껏 먹고 막잠을 폭 자고나면 부지런히 실한 고치집을 짓기 시작할게다.》

이렇게 말하는 옥양의 얼굴은 환히 밝아졌다.

옥양은 한쪽 구석에 떨어져 뽕잎을 찾아해매는 누에를 정히 쥐어서는 불에 살짝 대면서 《에그, 배고왔겠구나.》 하고 정차게 뇌이더니 생신한 뽕잎우에 놓아주었다.

명순은 그 모양을 보면서 두눈을 꼭 감고 어깨를 움츠렸다. 누에를 손에 쥐는 일이 끔찍했던 것이다.

《왜 그러니. 누에가 얼마나 굵기에. 청실홍실로 짠 비단도 누에배속에서 나온 명주실로 짠 거란다. 한번 손에 쥐어보렴. 엄마젓몸처럼 말큰하기도 하고 애기불처럼 보동보동한게 더없이 손맛이 좋단다. 자, 오타.》

옥양은 이러면서 그중 투실투실하게 살진 누에를 엄지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으로 살그니 쥐어 명순이의 손가까이로 가져갔다.

《에그나, 난 싫어요.》

명순은 불에 덴듯 화닥닥 놀라며 올상을 지었다.

《호호호, 아직 아이라니까. 영악없는 아이야.》

그는 명순의 발깃해진 불을 손가락으로 꼭 눌러 주면서 귀엽다고 재미있게 웃었다.

《누에를 고운 아기라고 생각해. 이제 전쟁이 끝나 명순이가 우리 석철이한테 시집올적엔 첫날 옷을 명주비단으로 곱게 지어줄라.》

《호호호, 옥양어머니두.》

명순은 귀뿌리가 빨개지면서 즐겁게 웃었다.

먼동이 터오고있었다. 그들은 잠시 다리를 펴고 토방에 앉았다.

옥양은 정색한 얼굴로 이야기했다. 부자년놈들은 바보라도 비단을 들쓰고 살았지만 그는 첫날에도 삼베옷을 입어야 했다. 시집온 뒤부터 누에를 직심스레 쳐서 모두 그를 《누에엄마》라고들 했지만 왜놈들이 해마다 고치를 다 앗아가서 그들은 여전히 토스레웃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시누이동생들도 첫날에 토목옷을 입혀 시집장가를 보내었다.

《근데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답에는 처지가 달라졌지. 나도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첫해에 고치를 많이 내서 원산에 올라가 첩으루 바다구경두 하구 표창으로 탄 연록색비단으로 조선옷을 해입었다. 그때 내 모양을 본 마을사람들은 모두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다고 감탄을 했지. 우리 장군님께서 누에고치를 많이 내길 바라신단다. 대대로 못살아온 우리 백성들이 기와 집에서 흰쌀밥과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살게 하는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하시는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냐.》

명순이도 감심하여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

이튿날 이른새벽에 옥양은 오디골로 들어가 뽕을 따가지고 왔다.

그날 성찬규는 마을남정네들의 일손을 모아 옥양이네 밀보리밭을 갈아주었다.

옥양은 점심참에 일꾼들한테 메밀국수와 감자지짐을 해서 대접하고는 누에가설막으로 들어가 누에를 돌보기에 바빴다.

그의 정성이 지극했던지 이해의 뽕잎이 잘 피어서인지 지난해보다 누에들이 더 크고 투실투실하게 살이 오른것 같았다. 그는 뽕잎을 듬뿍듬뿍 집어 누에자리에 놓아주었다. 누에들은 새로 준 뽕잎우에 하얗게 올라붙어서 제 조상들이 해온 버릇대로 근면하고도 꾸준하게 대가리를 흔들면서 새파란 잎사귀를 아귀아귀 씹어삼키었다.

한낮이 지나 일손을 도우러 온 명순이에게 옥양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명순아, 아침녘에 우편통신원이 우리 석철이가 보낸 편지를 가져왔더구나.》

넌지시 이르는 옥양의 말에 명순은 두눈을 반짝 빛내며 좋아했다. 명순은 옥양이가 주는 석철의 편지를 펼쳐들고 소리내어 읽었다.

사실 그에게 중요한것은 편지의 만단사연이 아니라 그속에 씌여있을 제 이름 두 글자였다.

그는 글줄들을 눈박으로 흘리면서 재빨리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 안녕... 오늘도 미국놈 다섯놈을 명중... 훈장 땀습니다. ... 어머니, 몸성히 우리가 이기고 돌아갈 그날을 기다려... 아참, 잊을번 했군요. 어릴적 〈울보〉 명순이한테랑 인사...》

그는 편지 마지막에나마 제 이름이 씌여져있는 것으로 해서 기뻐지만 웅석부리듯 토달거렸다.

《피, 맨나중애나 겨우 생각나는 명순이.》

옥양은 그러한 명순이의 모습이 예쁘다며 시뭇이 웃었다.

《원 애두, 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에 새빠지게

두 침부터 동네쳐너 안부를 물을가. 술한 처녀들 가운데서 제 이름이 오른것만두 행복이지. 그리구 이 편지도 마저 읽어보아라. 평년을 때 만났던 종군작가선생이 보냈구나.》

옥양은 품속에서 또다시 편지를 하나 꺼내 주었다.

《…

옥양아주머니, 제가 박격포병들을 찾아갔더니 말입니다. 전선신문에 난 옥양어머니의 누에치는 소식을 읽고 기뻐했다고들 했습니다.

포소리가 울리는 전선마을에서 누에를 친다는 소식에 전사들은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기뻐들 하고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볼 때면 나도 은근히 가슴을 울렁거리군 합니다. 굵은 누에들이 실뿜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고 어찌 들으면 노래가 울리는듯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적에 보니 누에치는 녀인들은 늘 젖은 옷을 입고 일하더군요. 그렇게 새벽이슬, 밤이슬을 다 맞으며 힘들게 일해도 그 녀인들에게는 비단옷 한감도 차례지지 못했지요.

전쟁승리를 위해 아득바득 누에를 먹이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고싶습니다. …》

명순이가 소리내어 읽는 동안 옥양은 한없는 긍지감과 자부심으로 미소를 짓고있었다.

《어마나, 그러니 누에치는 일이 우습게 볼게 아니구만요.》

명순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글쎄 그렇구나. 그걸 일찌기 알았더라면 이 일에도 더 빠심을 들일걸. 고작 젊은이들 폐장감 생각밖에 못했거던. 이제 가을누에는 더 많이 먹여야겠어.》

옥양은 자신에게 다짐을 주듯 조용히 말했다.

《그러자요. 옥양어머니, 나도 이전보다 더 힘껏 돕겠어요. 아니, 가을누에부터는 우리 집에도 가설막을 하나 짓고 울어머니도 누에를 치게 할테야요. 그러면 온 동네가 다 따를게 아닌가요.》

명순이가 신이 나서 밝게 웃었다.

x

명순이가 석철이의 편지를 침부터 다시 읽는 모양을 정겹게 바라보던 옥양은 누에자리들에 뽕잎을 더 주었다. 아무래도 그것들의 먹성을 보니 밤뽕까지 주려면 뽕잎이 퍼그나 더 있어야 할것 같았다. 그래서 옥양은 오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뽕한임을 더 따려고 지금껏 아껴온 앞내가동쪽의 뽕나무그루들이 듦성듬성 서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명순이도 뒤따랐다.

그들이 한창 뽕을 따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공중에서 미세놈의 썩썩기소리가 앙칼지

게 들리더니 마을북판에다가 뚜루룩뚜루룩 기총사격을 해대었다. 적기들은 마을에다 분별없이 폭탄을 떨어우고 나뭇탄도 뿌리었다.

《양코배기놈들아, 우리 누에들이 놀라겠구나.》

옥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누에들이 놀라서 뽕잎을 적게 먹으면 고치가 작아질텐데. 하긴 까마귀같은 놈들이 늘썩 하는 지랄인걸.

옥양은 누에치는 일도 전쟁을 이기는 일이고 전선의 용사들에게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일이라면서 고치를 딸 때 꼭 찾아오겠다던 종군작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종군작가의 편지에 나오는 박격포장탄수가 그처럼 기뻐했다는 생각도 선히 그러지면서 뽕잎 한장한장이 원쑤 잡는 총알로만 생각되어 따고따도 성차치 않고 원쑤놈들의 총탄도 두렵지 않았다.

뽕다래끼가 묵직해지도록 꺾꺾 눌러서 뽕잎을 가득 채운 옥양은 뽕나무를 더듬더듬 내려왔다.

땅을 디디고 집쪽을 바라보던 옥양은 《앗, 저 불!》 하고 외마디소리를 치면서 우뚝 굳어졌다.

나뭇판이 초가지붕에 휘뿌리어 불이 달린것이었다. 옥양은 무작정 불타는 집쪽으로 달려갔다.

명순이도 뒤따랐다. 쓰러질듯 비칠대며 삼작문을 열어제낀 옥양은 누에가설막의 버짚이영부터 살펴보았다. 요행 불은 당기지 않았으나 자칫하면 살림집이영에서 요동치는 불길의 금시 넘어울것만 같았다.

옥양은 다짜고짜 누에가설막안으로 뛰어 들어가 누에자리를 안고 나와 연기가 미치지 않는 바람방향쪽 남새터밭에 날라다놓았다.

뒤미처 달려온 성찬규와 마을사람들이 불타는 살림집문을 박차고 들어가 무거운 농작부터 들어내느라고 끙끙 갑질랐다.

그 광경을 띄어본 옥양이 다급하게 웨쳤다.

《명순이 아버지, 이 숨가진것부터, 원쑤잡는 물건부터 건지자구요.》

성찬규와 마을사람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러던 찬규는 옥양이가 늘 품안에 지니고있으면서 때때로 읽곤 하는 전선신문의 글줄이 떠올랐던지 《어허, 그렇지.》 하고 감심하며 누에막으로 달려들어왔다. 누에자리들은 순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세상의 복새통을 알바없는 누에들은 싱그러운 마파람이 불어오는 밖에 나오자 입맛이 펴달아진듯 뽕잎을 더 걸싸게 먹어대었다.

그동안 성찬규와 마을사람들은 불타는 집안에 들어가 타다남은 가산들을 죄다 들어내왔다.

어느 사이에 불달린 가설막의 초가이영이 화약처럼 타버렸다. 불을 꺼보려고 모지름을 쓰던 옥양은 힘이 진하고 저고리에 불이 달려 어깨가 데는 바람에 그냥 주저앉고말았다.

옥양은 저고리가 타고 불달린 재목에 얻어맞은

어깨가 못 견디게 쑤시었다.

하지만 그는 누에를 모두 무사히 구해낸걸 더없이 기뻐했다.

집과 가설막은 다 뒀지만 사기그릇 몇개와 물동이 하나 깨진것밖에는 별로 손실이 없었다.

성찬규가 명순이에게 오소리기름을 찾아주면서 발라주게 했다. 명순이와 그의 어머니가 옥양을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눕히고 정성껏 간호했다.

얼마후 마음이 안정되자 옥양은 활짝 웃으면서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온 그는 박우물에 이르러 시원하게 얼굴을 씻었다. 의젓한 모습으로 불탄 집터자리에 다가가면 옥양은 궁지에 넘친 가슴을 불안고 전선의 아들들에게 전하듯 뇌이는것이였다.

...미제놈의 썩썩들이 너희들의 어린시절이 흘러간 집과 누에가설막을 불태우고 한동안 기승을 부렸단다. 하지만 이 어머니 사랑하는 누에들과 함께 멀쩡하게 살아남았다.

글쎄 누에들이야 좀 놀랐을테지. 하지만 어렵도 없다. 양코배기놈들아, 가설막은 다시 짓고 지난 해보다 더 큰 고치를 틀게 할테다. 이게 내 결심이란다.

애들아, 타버린 집걱정은 하지도 말자. 왜정때 어설피게 지었던 초가집...

까짓거 허는 품 던썬치고 보란듯이 기와집을 일떠세우자꾸나. 세 아들의 일손이면 한달도 안 걸릴걸. 한바탕 된고비를 겪어냈으니 그만치 승리에로 한결음 다가선셈이다. ...

진옥양은 한없이 궁지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누에자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마당을 거닐었다. 그러는 옥양의 모습은 이전날보다 퍼그나 돈우보였다.

옥양은 집주위에 널려진 타다남은 재목들을 끌어내었다. 누에자리에 이슬이 내리지 않게 가리워 주자는것이였다.

뒤이어 성찬규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달려왔다.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루낮사이에 반토굴집과 누에가설막을 손색없이 지어주었다.

×

며칠이 눈깜박할 사이에 지나갔다.

한생에 먹을 뽕잎을 모두 먹고난 누에들은 더 먹기를 그치고 까맣까맣한 똥을 다 누어 온몸이 새말갠게 되어갔다. 배속에는 맑고 투명한 단백질 용액이 가득 들어찼는데 누에들은 이제 그것을 가늘고 질기며 윤택이 나는 섬유로 뽑아내게 된다.

옥양은 손자맞는 할머니인양 기쁜 심정이 되어 가설막안을 오락가락하면서 벼짚으로 정성들여 만든 누에실을 엮어주고있었다. 누에들이 거기에 붙어서 고치를 트는것이다.

저녁무렵부터 제일 올된 누에들이 대가리를 8자로 휘두르면서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실을 뽑아내기 시작하였다. 그 규칙적이고도 반복적인 8자모양의 자리길을 그리는 누에의 우아한 물동은 옥양의 심신을 환희로 가득 채워놓은듯 했다. 누에들은 마치나 인간은 들을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신물에 맞추어 춤을 추는듯 했다. 옥양은 온종일 기쁨의 춤가락을 타고 가설막을 드나들었다.

어찌 기쁘지 않으랴. 두달 가까운 자기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오늘이 아닌가! 오후부터는 누에실 구석구석에서 고치의 모양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비단실을 선물하려고 태어난듯싶은 누에들은 50일 남짓이 극성스레 뽕잎을 따다준 옥양에게 저마다 크고 뽕뽕한 고치집을 지어 보답하려고 드바빠 실을 토해내는 것이다.

사흘이 지났다. 누에실들에는 알찬 열매라도 열리듯 뽕뽕한 고치들이 하얗게 맺히었다.

옥양은 굵은 고치를 한줄 따서 불에 비비며 환희에 겨워 눈물지었다. 그 눈물은 온갖 시련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기쁨의 분출이였다.

며칠이 지나 누에고치를 따게 된 날이였다.

옥양이와 명순이는 정성답아 고치를 땀다.

그리고는 마당에 나뉘를 펴고 백설같이 흰 누에고치를 넣어 말리었다.

해빛이 쨍쨍 내리쬐이는 한낮이였다.

옥양의 반토굴집마당으로 낮익은 종군작가가 찾아왔다.

그를 보는 첫순간에 옥양은 전선신문의 글줄들이 떠올라 가슴이 활랑거려였다.

종군작가는 한마당 좁다하게 널어놓은 탐스런 누에고치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마을에 여러날 묵으면서 누에를 먹이느라고 아글타글 애쓴 옥양의 노력과 생활을 취재하였다.

《진옥양아주머니에게는 〈누에엄마〉라는 애칭이 있더군요요. 〈누에엄마〉! 얼마나 정답고 사랑스러운 별칭입니까. 나는 진옥양아주머니가 홀몸으로 농사일과 전선원호도 하면서 어떻게 누에고치풍년까지 이루게 되였는지 알고싶습니다.》

종군작가의 물음에 옥양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작가어른, 미제놈들의 행패질로 나라가 재더미로 되였지요. 군에 하나뿐인 자그마한 직물공장마저 타버렸구요. 집집마다 장농속에 고이 간직했던 젊은이들의 레장감마저도 없어졌지요. 전쟁을 이긴 뒤 젊은이들이 돌아올텐데 그때 나라에다 첫날옷감을 달라, 이불감을 달라고 손 내밀수야 없지 않겠나요. 그래서 끊지 않고 해오는 일이였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종군작가선생이 보낸 편지를 읽고난 다음에는 이게 단순히 레장감이나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느 느낌에 열성을 더했지요.》

# 병사의 선언

박 해 출

푸른 잔디도  
총창처럼 일어서는 전호  
원쭉격멸의 의지로 피끓는  
병사의 이 가슴

《웅장》과 《보복》을 떠드는 원쭉들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이 시각  
증오와 분노를 재워온 백두산총대  
멸적의 불을 안고 원쭉들을 겨누었다

병사가 잡은 총  
그것은 그대로 징벌의 불  
더는 참을수 없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달아오른 나의 총대  
오늘을 위해  
격동상태의 백날, 천날이 있었다

보라!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의 병사들  
가증스러운 원쭉들을 한눈에 굽어보며  
전호의 발흥을 딛고 거인처럼 일어섰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이 땅을 노리는 원쭉들은  
선군총대의 조성, 조문우에 올라있거니  
지구의 한끝 그 어디건  
침략자들의 아성은  
우리의 무자비한  
직접조준격파사격권안에 들어있다

네놈들이 기어코 선불질을 한다면  
절대로 징벌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락동강 흐르는 물에 목을 추기며  
질풍처가리라 한나산 끝까지  
포연에 그슬린 군복자락을  
남해의 푸른 물에 씻으리라

오, 병사의 자격으로 선언하거니  
백두산번개를 칠 때는 왔다  
푸른 섬팡 번뜩이는 백두산총대아래  
통일된 삼천리가 있다  
최후승리의 그날이 있다

옥양은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심중에 젖어있던  
말이 막힘없이 슬슬 나오는것이 자기로서도 기꺼  
워 빙긋이 웃음발을 날리었다.

종군작가는 옥양의 말에 탄복하여 무릎을 쳤다.  
《웁습니다. 옥양아주머니!  
어찌 총잡은 군대만 싸운다고 하겠습니까.  
고치도 총알이나 갑습니다.》  
협주단의 종군작가는 흥분하였다. 그는 곧 폭탄  
각지종을 달아맨 들메나무아래에서 만년필을 달리  
기 시작하였다.

시상이 내려쳐 노래의 글줄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승리의 포소리는 님의 소식 전하여주고  
고향지킨 이 내 마음 푸른 뽕잎이 속삭여주네  
뽕따러 가세 뽕따러 가세  
뒤동산에 뽕잎은 올해도 보기 좋구나  
...

가사를 읽고난 옥양은 춤가락을 느끼며 기쁨을  
금치 못했다.

《종군작가선생, 우리한테 꼭 맞는 노래를 지어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종군작가는 비죽이 웃으면서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노래야 옥양아주머  
니가 지었지요.》

《제가요?!》

《그럼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즐겁게 웃었다.  
종군작가는 그길로 가사를 안고 협주단이 나와  
있는 전선쪽으로 달려갔다.

얼마 안있어 곡이 붙여진 노래 《뽕따러 가세》  
가 전선과 후방에 울려퍼졌다.

명사마을 전선원호대원들은 식량과 탄약만이 아  
니라 노래선물까지 안고가 고지의 용사들을 고무  
해주었다. 이채로운것은 옥양이와 명순이가 부르  
는 《뽕따러 가세》를 성찬규서기장이 새장고를  
메고 흥취있고 건드러지게 반주를 한것이다.

전선마을에는 포소리와 함께 승리의 기쁨어린  
소식들이 련이어 들려왔다.

그러던 여름날에 전쟁은 드디어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옥양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동구밖에 나와 서있  
었다. 직동령을 넘어 전승의 열병식장으로 가는  
공세운 아들들을 바래우면서 옥양은 마음속으로  
《뽕따러 가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 삶의 보람

김 자 경

△때: 현재

△곳: 어느 기초식품공장에서

△나오는 사람

정현숙-기초식품공장 지배인

한철진-식료연구소 연구사

김정국-기초식품공장 기사장

신금영-로동자, 정현숙의 딸

정옥심-회계원, 금영의 동무

림철수-현장기사

서 경

△때: 어느 봄날 아침.

△곳: 공장구내.

△무대: 현대적인 생산건물의 일부가 보이고 한  
편에 구내공원이 있다.

△지배인 정현숙 공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얼굴  
로 공장구내를 바라볼 때 연구사 한철진 나온다.

철진-지배인동지! 안녕하십니까?

현숙-아니, 이게 철진동무 아니예요? 오래간만  
이군요. 현대 어떻게 왔나요?

철진-새로운 건강음료생산방법을 연구도입하  
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숙-그럼 또 함께 일하게 됐군요? 그래 현장  
에 갔더랬나요?

철진-예, 현장을 돌아보니 그새 많은 일을 했  
더군요. 이번에 수고 많았겠습니다. 생산공정의 기  
술개선을 완성하느라 말입니다. 정말 지배인동  
지의 수고가 헤아려져 머리가 숙어지더군요.

현숙-아니, 그게 어디 나 혼자 해놓은 일인가  
요? 우리 공장 종업원들모두가 바친 지혜와 땀의  
결정체지요. 그래 돌아보니 맘에 들어요?

철진-예, 현대 제 보기에는... 기술개선을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  
었습니다.

현숙-그래요?

철진-저, 이진 경공업과학기술통보자료인데 여  
기에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기름생산방법  
이 실렸더군요.

△현숙 착잡한 얼굴로 철진이 준 통보자료를 받  
아들고 펼쳐본다.

철진-지배인동지, 지배인동지야 지금껏 선구자  
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데서 인생의 기쁨과 보  
람을 찾으셨는데 한번 더 달려보십시오. 그럼

전...(인사하고 나간다.)

현숙-(철진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혼자말로)  
선구자의 기쁨과 보람을 찾는단 말이지...

△현숙 깊은 생각속에 공장을 바라볼 때 제명이  
오른다.

단 막 극

삶의 보람

1경

△때: 서경으로부터 며칠 후.

△곳: 지배인의 사무실.

△무대: 한켠에 책상이 놓여있는데 그우에 전화  
기와 서류들이 있고 책상옆에는 컴퓨터가 있다.  
벽면에는 《인민의 총복》이라는 족자가 걸려있고  
창문으로는 현장의 일부가 보인다. 출입문옆에 옷  
걸이와 의자 몇개가 놓여있다.

△무대 밝아지면 현숙 컴퓨터에 마주앉아 새로  
운 기름생산공정을 살펴보고있다.

△딸 금영 식사꾸레미를 들고나온다.

금영-어머니!

현숙-오, 금영이냐?

금영-어머니! 요즈음처럼 패식을 건느시며 밤  
을 새우시다가 병에 걸리겠어요.

현숙-난 일없다. 현대 너에게 집살림을 다 말  
려서 정말 미안하구나.

금영-아이참, 어머니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어머니, 나하구 질자요. (새끼손가락을 펴든다.)

현숙-뭘?

금영-미안한 대가로 오늘부터 식사를 꼭꼭 제  
시간에 하겠다는걸 말이에요.

현숙-애두 참... 자, (손가락을 건다.)

금영-호호...(책상우에 펼쳐진 설계도면을 보고  
놀란다.) 아니, 이진 아버지의 설계도면이군요?

현숙-(설계도면을 한켠에 밀어놓으며) 됐다.  
내 다시 좀 보자고 그랬다.

금영-(그늘이 비졌던 얼굴에 다시금 웃음을 담  
으며) 참, 어머니 작업복을 가져왔어요.

현숙-그래? 저기에 걸어놓아라.

△회계원 옥심 들어온다.

옥심-금영이 왔구나. (눈인사를 나눈 다음) 지  
배인동지, 가동일보통첩니다. (문건을 준다.)

△현숙 문건을 보고 수표를 해줄 때 기사장 정국 들어온다.

정국—지배인동지!

현숙—(반기며)아, 기사장동무군요. 그래 관리국에서 오는 길인가요?

정국—예, 헌데 이거 경사났습니다. 글썄 이번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리 공장 된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답니다.

현숙—(기쁨에 넘쳐)아니, 뭐라고요?

금영—야! 요즈음엔 정말 기쁜 소식만 날아오누나.

정국—아, 그래서 좋아하는 집에서는 수탉도 알을 낳는다고 않소?

옥심—수탉이 알을 낳는다고요? 호호… 하긴 우리 공장 된장맛을 보고야 누군들 금메달을 주지 않겠나요?

정국—정말 싱싱한 부루 네댓알 겹쳐놓고 거기에 우리 공장 된장을 척척 발라서 씹을 싸먹으면야.

옥심—아유, 그만하세요. 입안에서 막… 군침이 돌아요. 호호…

모두—하하… 호호…

정국—지배인동지, 기쁜 소식이 그뿐인줄 아십니까? 이번에 기름직장 기술개선에 크게 기여한 금영이 아버지에게 발명증서를 수여한답니다.

현숙—예? 발명권을요?

금영—기사장동지, 그게 그게 정말입니까?

△이때 현숙 쥐고있던 펜을 떨군다. 금속성의 예리한 음향에 놀라는 사람들!

옥심—지배인동지! 왜 그러니까?

현숙—내 너무 기뻐서… (당황해하며 펜을 주어 든다.)

정국—하긴 지배인동지의 그 기쁨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지배인동지야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에 첫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금영이 아버지와 함께 30여년을 하루와 같이 공장을 위해 자기의 온 몸을 초불처럼 태워오지 않았습니까?

금영—어머닌 정말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완성시킨 설계대로 기술개선을 하시느라 머리에 더 많은 흰서리가 내렸답니다.

현숙—넌 또… (질책어린 눈길을 던진다.)

옥심—지배인동지, 기술개선이 좋긴 좋습니다. 기름직장만 봐도 생산공정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적지 않은 로력예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국—어디 로력뿐이요? 생산은 1.5배로 올라가면서도 식료품의 질은 또 얼마나 좋아졌소?

금영—정말 우리 기름직장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거예요.

정국—그렇지 않구. 참 지배인동지, 오늘 관리국장동지가 그러는데 한달후에 우리 기름직장에 대한 도내 식료공장 일군들의 참관사업이 있답니다.

현숙—그래요?

금영—야! 그럼 우리 기름직장은 도적인 본보기

단위가 되겠군요. 어머니! 이번에… (생각에 잠긴 어머니를 보고 굳어진다.)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마주본다.

금영—(근심어린 얼굴로)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현숙—아—니. (머리를 젖는다.)헌데 넌 교대시간이 돼오는데 현장엔 안 가느냐?

금영—지금 가려던 참이에요. 그럼 전…

옥심—금영아, 같이 가자. (둘이 함께 나간다.)

정국—(옥심과 금영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지배인동지, 요즈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색이 좋지 않은걸 보니 혹시…

현숙—내가 뭐 어쨌나요?

정국—그래두 속에 맺힌 일이 있는것 같은데 함께 풀면 안되겠습니까?

현숙—그렇다면… 솔직히 대답해주세요. 그래 기사장동문 우리가 완성해놓은 기술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름직장 기술개선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국—무슨 뜻인지…

현숙—최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되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정국—아니, 그 문제때문에 지금껏 마음쓰고 있었습니까?

현숙—글썄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해보세요.

정국—지배인동지, 그 문제때문이라면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사실 그 설비에 대해서야 나보다 지배인동지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기름생산공정을 현대화함으로써 압연과 건조를 비롯한 몇개의 공정을 없애면서도 생산을 종전보다 몇배 더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현숙—…

정국—지배인동지, 그런 말엔 절대 마음쓰지 말고 우리 보란듯이 방식상학을 합시다.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그때까지 상반년도계획을 넘쳐수행할게 아닙니까?

△이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힘찬 노래소리.

정국—(창밖을 내다보며)지배인동지, 온다던 도예술단동무들이 경제선동을 나왔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저 동무들을 안내할테니 지배인동지도 내려오십시오. (서둘러 나간다.)

△기사장의 뒤모습을 지켜보던 현숙 남편의 설계도면을 펼쳐들고 추연한 눈길로 기름직장쪽을 바라볼 때 독백이 울린다.

《여보, 금영이 아버지. 우린 지난해 가을 당신이 병상에 누워 완성시킨 이 설계대로 얼마전에 기술개선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발명권을 준다는군요.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기름생산방법이 나왔으니 이럴 땐 어쩔 좋아요, 예?》

△전화종소리 반복되어 울린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현숙.

△옥심 들어온다.

옥심-지배인동지! 아니, 방에 계셨군요. 참, 지배인동지, 소금화차가 들어왔습니다.

현숙-(설계도면을 접어놓으며) 그래요? 내 곧 내려가겠어요.

△옥심 나가고 현숙 서둘러 작업복을 입으려는데 정국 들어온다.

정국-지배인동지!

현숙-기사장동무, 소금화차가 들어왔다는군요.

정국-알고있습니다. 현대 이거 참... (쓰거운 얼굴로 입을 다신다.)

현숙-무슨 일이 생겼나요?

정국-글쎄 철진연구사가 동천기계공장에 갔더군요.

현숙-아니, 그 동무가 거긴 왜 갔대요?

정국-글쎄 며칠전에 연구소에 갔다오겠다는 말은 들었는데 방금전에 온 전화를 받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물쩍하구 똥판지같이 참관사업을 좀 미루는것이 어떤가고 묻지 않았습니까?

현숙-참관사업요?

정국-내 이제야 지배인동지에게 아픈 말을 던진게 그 사람이라는걸 알았는데 요즈음 보니 그는 아예 딴 사람이 됐더군요.

현숙-...

정국-지배인동지도 아시지만 그 사람이야 내가 현장기사를 할 때 탐구심도 있고 책임성도 남다르게 큰일 할 재목이라고 보고 그의 희망대루 경영대학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현대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사가 되더니 별나게 되었던 말입니다.

현숙-됐어요. 그 동무에 대해선 내 좀더 알아보겠어요.

정국-(나가려다가) 참, 생산지휘랑 소금화차는 내가 다 할테니 지배인동진 좀 쉬십시오. (나간다.)

현숙-(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으며) 참관사업을 미루어달라고 했던 말이지. ...

△이때 창밖에서 부르는 소리 《지배인동지!》

△현숙 일어나 나간다.

△잠시후 설계도면을 쥔 철진 들어온다.

철진-지배인동지! 야, 안계시누나. 현장에 나가셨는가? (한켠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본다.)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금영 표표한 얼굴로 들어온다.

금영-철진동무!

철진-아, 금영동무구만. (기쁜 마음으로 반긴다.)

금영-(새침한 기색으로) 철진동무, 동문 연구사지요? 그렇다면 연구사업이나 착실히 하는것이 동무의 본분이 아닐가요?

철진-?!

금영-동무도 잘 알테지만 저의 어머니 공장을

위해 한생을 다 바쳐왔어요. 기쁨과 슬픔의 언덕을 한치 또 한치 돌아오르면서 말이예요. 현대 동문 무엇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요, 예?

철진-금영동무, 동문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거요? 난 도무지...

△이때 정국 성이 난 얼굴로 들어온다.

정국-오, 내 잘못 보진 않았구만.

철진-안녕 하십니까, 기사장동지. 제 방금 도착...

정국-알고있소. 현대 좀 묻지요. 난 자네가 무엇때문에 동천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왜 거기에서까지 복잡하게 전화질이요?

철진-그건 사실...

정국-(큰소리로)동무! 동문 공장에 온 첫날부터 공장의 기술개선에 대해서 비방했다는데 그래 동문 생산단위들의 실정을 알기나 하오?

난 한개 공장의 생산과 기술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동무의 행동을 용납할수 없소!

철진-뭐라구요?

정국-가오. 우리에게 동무같은 사람이 필요 없으니 당장 여길 떠나오!

철진-기사장동지, 그건 너무합니다.

정국-너무하다구? 아니, 너무한건 바로 동무요. 동무도 몇년전까진 우리 공장 종업원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사가 됐다고 공장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의 무게를 홀시하는거요? 동무가 비난하는 기름직장 기술개선은 바로 금영이 아버지가 지난해 가을 불치의 병으로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모아 완성시킨 설계에 의한거란 말이요.

철진-예?

△이때 현숙 들어오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옷걸이걸에 서있는다.

정국-동무에겐 하찮게 보이는지 몰라도 도와 중앙에서는 생산을 장성시키고 기술을 혁신한 그 공로를 표창해서 발명권까지 주기로 했는데...

철진-기사장동지, 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전 다만 진심으로 공장을 도우려고 했을뿐입니다.

금영-도와준다고요? 어떻게 말인가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이 그래 동무식의 진정한가요, 예?

철진-금영동무, 난 동무가 어떤 말을 해도 할말이 없소. 하지만 공장을 도우려는건 나의 진심이였소. ... 나에게도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이 찍혀있고 또 나의 등을 떠밀어 대학으로 보내준 기사장동지와 로동의 첫 기쁨을 함께 나눈 정든 사람들이 일하고있는 이 공장이 그 어디보다 소중한소. 그렇기때문에 새로운 기술혁신안도 남먼저 도입하고싶었고 또 공장의 현대화를 완성하도록 도와주고싶었소. 그래서 식료공장연구소에 찾아가



이 설계도 가져오고 또 동천기계공장에 들러 부속  
품들도 주문하느라 이렇게...

금영-아니, 그럼?

정국-그래서 동천엘 갔단 말이지? 음... 그 설  
계를 좀 보지요. (철진에게서 설계도면을 받아들  
고 펼친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한 기름생산공  
정의 컴퓨터화설계라... (머리를 끄덕인다.) 공  
장을 위하는 동무의 그 마음은 정말 고맙구만. 하  
지만 우린... 자네의 이 진정을 당분간 받아들일수  
없소.

철진-예?

정국-물론 이 설계가 최첨단수준의것이라는  
건 나도 아오. 하지만 생산도 긴장한데다가 참관  
사업도 코앞에 닥쳐왔는데 기술개건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잃을순 없소. 그러니 당분간은... (도면을  
도로 준다.)

금영-(간절하게) 철진동무, 난 동무가 우리  
의 마음을 꼭 이해해주리라 믿어요. 그러니...

철진-(머리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  
배인동지에게 이 설계에 대한 말씀을 하지 말아주  
십시오. 그럼 전... (나가려고 한다.)

현숙-(철진의 앞을 막아서며) 어디에 가겠다  
구요?

모두-?!

현숙-(격해지는 감정을 억제하며) 기사장동무!  
철진동무! 난 동무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날 괴롭힐줄은 몰랐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것이  
날 생각해주는건가요? 정말... 섭섭해요!

철진-지배인동지, 제가 그만...

현숙-(랭담하게) 됐어요. 그 도면을 이리 주  
세요. 그리고 다들 나가주세요.

정국-지배인동지!

현숙-난... 혼자 있고싶어요.

금영-어머니!

현숙-너도 나가거라.

△모두 따분한 얼굴로 방에서 나간다.

△책상앞으로 다가가 철진의 설계도면을 펼치던  
현숙 남편의 설계도면을 펼친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설계도면을 집어 들고  
모대기던 현숙 그것을 책상안에 넣은 다음 새 설  
계도면을 펼쳐 들고 《인민의 총복》이라는 글발을  
쳐다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질 때 주제가 울린다.

내 인생 꽃피워준 그 은정 못 잊어  
언제나 새벽길 남먼저 걷네  
당을 향한 그 마음 티없이 맑고맑은  
아 량심의 인간 나는 되리라

## 2경

△때: 1경으로부터 며칠 후.

△곳: 공장구내. (서경과 같은 장소)

△무대: 밝아지면 남녀로동자들 활기에 넘쳐 현  
장으로 오가는데 금영과 옥심 웃음꽃을 날리며 나  
온다.

옥심-호호... 금영아, 그 가방을 들고 평양에  
가시면 우리 지배인동진 참 멋있을거야. 잘 생긴  
얼굴에 품위있고 세련된 자태... 어때?

금영-애두 참... 헌데 옥심아, 난 오늘 어머니  
가 발명권을 받으려고 떠난다 생각하니 아버지생  
각이 더 나누나.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마...

옥심-금영아, 됐어. 참, 지배인동진 7열차로  
떠나신다지?

금영-그래. 기사장동지가 그 열차에 차표를 신  
청하셨나봐. 헌데 며칠전에 원료기지에 올라  
가신 어머니는 언제 오실가?

옥심-오늘이 발명권을 받으려고 떠나는 날이라  
는걸 알고 가셨으니 인차 오실거야. 금영아, 우리  
시간이 되면 역전에 함께 나가 바래드리자.

금영-응, 그러자.

△금영과 옥심 나간 다음 무겁게 배낭을 진 현  
숙 다리를 절며 나온다.

△이때 길떠날 차비를 갖춘 철진 나온다.

현숙-아, 철진동무군요. 그런데... 어디 가는  
가요?

철진-전 연구소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현숙-연구소엔 왜요?

철진-제가 공장을 돕는다는노릇이 오히려 지배  
인동지의 마음만 괴롭혔습니다. 욕 많이 해주십  
시오. 그럼 전... (나가려고 한다.)

현숙-철진동무! (힘겹게 배낭을 내려놓으며 준  
절하게 말한다.) 그러니 동문 자기의 체면을 지키  
기 위해서라면 정의로운 일앞에서도 물러서는 그  
런 비렬한 인간이었군요?

철진-뉘라구요?

현숙-난 그래도 동무와 힘을 합쳐서 기름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려고 동천기계공장에 찾아가 동무  
가 주문해놓았던 이 부속품들을 가지고왔는데 동  
문 떠나겠다는 말이지요? 가세요! 우린 동무가 없  
어도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완성할수 있으니 어  
서 가세요! 하지만 가더라도 한가지만은 명심하세요.  
동문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달려가고있는 오늘의  
거세찬 대오에서 락오자이며 비겁분자라는걸 명심  
하고 떠나세요!

철진-지배인동지! (현숙이 지고온 배낭을 어루  
만지며 어깨를 떠다.) 그러니 이 부속품때문에 그  
면델...

△이때 정국 나온다.

정국-지배인동지!

현숙-아, 기사장동무군요.

정국-그래 원료기지에서 오는 길입니까?

현숙-아니예요. 동천기계공장에 찾아가 철진동  
무가 부탁해놓았던 부속품을 가져오는 길이예요.

정국-예? 아니, 그럼?

현숙-참, 오늘 저녁 5시에 기름직장에서 현장 기술협의회가 있다는걸 직장장들에겐 다 알렸겠지요?

정국-예. 하지만 지배인동지도 오늘 발명권을 받으려고 떠나야 한다는걸 잊은건 아닐테지요?

현숙-기사장동무!

정국-전 지배인동지가 좀더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글쎄 참관사업을 취소시킨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당장 생산이 목에 걸렸는데 기름설비를 해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숙-기사장동문 아직도 그 소리에요?

△이때 현장기사 림철수 달려나온다.

철수-지배인동지, 오늘 현장기술협의회를 중지했다는게 사실입니까?

현숙-누가 중지한다고 했나요?

철수-(기사장의 눈치를 보며)차, 이젠 어느 장단에 춤춰야겠는지...

현숙-(단호하게)장단은 둘이 아니예요!

철수-알겠습니다. (달려나간다.)

현숙-철진동무, 이 배낭을 기름직장현장에 가져다놓으세요.

철진-(누그러든 목소리로)알겠습니다. (배낭을 지고 나간다.)

정국-지배인동지, 우리 오늘은 툭 털어놓고 말해봅시다. 그래 지배인동진 녀성이 아녓습니까?

현숙-뭐라고요?

정국-난 사실 자기의 생명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걸 알면서도 우리 공장과 지배인동지를 위해 점 하나 선 하나를 그어가던 금영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넋이 깃든 설비에는 정말이지 손을 대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절대로!

현숙-그만하세요!

정국-제가 지배인동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전 말해야겠습니다. 생산실무적인 이야기라도 해야겠단 말입니다. 지배인동지도 아시지만 경제활동에서 기본은 생산이 아닙니까. 또 현행생산을 백방으로 높이는것도 당의 방침이구요.

현숙-생산과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는것도 현시기 당의 요구입니다.

정국-지배인동지의 결심이 정 그렇다면 우리 공장의 기술력량을 총발동해서 기술개건을 다시 해봅시다.

현숙-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인가요? 예?

정국-지배인동지, 나라고 왜 철진연구사의 설계가 최첨단수준의것이라는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잘 알기때문에 나대로 실현가능성도 모색했고 또 이렇게 대책안도 세워보았습니다.

현숙-대책안요? 어디 좀 보자요.

정국-(문건을 주며)앞으로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새롭게 완성하려면 공장자체의 힘으로는 어

렵겠는데 관리국과 성의 도움을 좀 받자는겁니다.

현숙-(문건을 보고 놀란다.) 자체신청서?

정국-지배인동지가 승인하시면 래일이라도 관리국과 성에 제기해보겠습니다.

현숙-(단호하게 문건을 덮어버린다.) 이젠... 안됩니다.

정국-예? 이것까지도?

현숙-기사장동무, 어머니의 주머니를 털어서 호강하려는 자식은 불효자식이 아니겠나요? 우린 꼭 자체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자요. (문건을 도로 준다.)

정국-지배인동지! (머리를 숙인다.)

△이때 금영 달려나온다. 현장에서 철진과 옥심도 나온다.

금영-어머니, 그게 사실이나요? 기름설비들을 해체하고 아버지의 발명권까지 포기했다는것 말이예요.

현숙-(머리를 끄덕인다.) 그래, 모든게 사실이다.

금영-어머니! 어머니 너무해요. 그래 아버지의 넋이 깃든 설비를 해체하고 발명권마저 포기하는것이 어머니의 권리인가요? 솔직히 대답해주세요. 그래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벌써 다 식어버린건 아닐테지요? 예?

현숙-금영아.

금영-(울먹이는 소리로)어머닌 아버지의 설계대로 기술개건을 완성한 다음 나와 함께 시운전을 하던 그날 밤 뭐라고 하셨나요? 기운차게 돌아가는 저 기계를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아마 아버지도 어디선가 이 기계소리를 들으시며 기뻐하실거라고 눈물속에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날의 그 눈물이 거짓이었나요?

현숙-...

정국-지배인동지, 금영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발명권만은 받아온 다음에 기술개건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지배인동지가 시간을 내지 못하겠다면 나라고 올라가 받아오겠습니다.

옥심-출장준비는 우리가 다 해놓았습니다. 지배인동지!

철진-지배인동지! 어서 떠나십시오. 예?

금영-어머니!

현숙-금영아, 난 네 마음을 잘 안다. 너뿐 아니라 동무들의 그 마음도 잘 알아요. 하지만 난 우리 가정의 명예만을 먼저 생각해선 안될 사람이 아니냐요. 더우기 인민생활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뜻을 최상의 높이에서 받들지 못하는 발명권이 열이면 뿔하고 또 백이면 뿔하겠나요?

금영-어머니!

현숙-(추억에 잠겨)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5년전 여름날 우리 공장에 몸소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기온도와 습도가 높은 된장발효실에까지 들리시여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된장맛까지

보아주시지 않았나요?

그날 현대화되지 못한 일터에 그이를 모신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짓는 저에게 오히려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했다니 참으로 기특하다고 하시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기술개건을 잘하여 질 좋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지 않았나요?

모두—지배인동지!

현숙—올해에도 대소한의 눈바람과 이른봄의 찬비도 다 맞으시며 인민생활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뜻을 아직도 받들지 못하는 죄책감도 큰데 내가 어떻게 남편의 발명권이라고 뭇뻘이 받을수 있겠나요.

모두—지배인동지!

현숙—동무들, 난 요즈음에야 똑똑히 알았어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진정한 삶의 보람은 그 어떤 명예나 영예를 누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마음도 뜻도 운명도 함께 하는 그 길에 있다는걸 깊이 절감했어요.

금영—어머니!

현숙—금영아, 너의 아버지도 우리가 발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설계대로 기술개건을 다시 했다는걸 아시면 기뻐하실게다. 한생을 우리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불같이 살아오신 아버지가 아니었니?

금영—어머니!

현숙—동무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에는 어제가 벌써 옛날이 아닙니까?

우리 좀 늦은감은 있지만 선군시대 경공업혁명의 봉화를 높이 든 삼일포특산물공장 종업원들처럼 공장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질 좋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리자요.

모두—그러자요!

옥심—지배인동지,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을겁니다.

현숙—정말 그래요.

정국—지배인동지, 저도 생산이자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당의 요구를 명심하고 공장의 현대화를 완성하는데서 송풍기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현숙—고마워요, 기사장동무.

철진—지배인동지, 저도 아예 공장으로 내려와 연구사업도 하면서 공장의 현대화도 힘껏 돕겠습니다.

현숙—철진동무!

옥심—그럼 철진동문 또다시 우리 공장 종업원이 되겠군요? 호호...

모두—하하... 호호...

△이때 현장기사 철수 달려나온다.

철수—지배인동지, 기술협의회 참가자들이 현장에 다 모였습니다.

현숙—(시계를 보며)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자, 동무들! 그럼 우리 다같이 협의회장소로 갑시다.

모두—예. 갑시다!

△모두 환희에 넘친 마음으로 현장으로 갈 때 주제가 울린다.

인생의 시작도 어머니당파라

인생의 마무리도 어머니당파라

충신의 한마음 변함이 없는

아 의지의 인간 나는 되리라

## 가 사

# 희천은 오늘의 1211고지

## 최 금 희

장군님 전선시간 희천땅에 흐른다  
발전소의 언제는 오늘의 1211고지다  
언제아래 흰구름은 전화의 날 포연  
발파소린 군단포의 일제사격소리다  
아 2012년 승리의 강성대국 그날 향해  
1211고지 병사들 돌격전에 나섰다

장군님 부름따라 희천이 달린다  
발전소의 언제는 오늘의 1211고지다  
언제우에 굴착기는 고지의 직사포

천길땅속 물길굴은 노래높던 갱도다  
아 2012년 승리의 강성대국 그날 향해  
1211고지 병사들 돌격전에 나섰다

장군님께 기쁨드릴 희천땅이 뚫는다  
발전소의 언제는 오늘의 1211고지다  
언제우의 병사들은 육탄영웅 리수복  
쫓고쫓는 언제는 강성대국 승리봉  
아 2012년 승리의 강성대국 그날 향해  
1211고지 병사들 돌격전에 나섰다

## 항일무장투쟁현실을 반영하여 창작된 단편소설 《강교장》

우리 민족의 존망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진보적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에 고무되어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면서 그를 동경하고 반영한 진보적작품들을 널리 창작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폭압아래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싸우는 항일투사들을 열렬한 애국자, 참된 인간들로 형상한 강경애의 중편소설 《소금》과 단편소설 《모자》,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동경심을 깊이있게 그려낸 리찬의 서정시 《눈내리는 보성의 밤》과 김람인의 서정시 《청색마》,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적현실을 반영한 김조규의 산문시 《전선주》와 서정시 《새들은 날아가는데》,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우리 인민에 대한 일제침략자들의 파썸통치와 민족말살정책이 극도에 이르렀던 1930년대 후반기—1940년대 전반기에 진보적인 창작활동으로 문학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이러한 작가들의 창작은 이전 시기에는 찾아볼수 없었던것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 열렬한 기대가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올바른 해답을 줄수 있는 가치있는 종자를 찾아내어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진실로 사실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최근 새롭게 알려진 단편소설 《강교장》(1942)도 해방전 항일무장투쟁현실의 일단을 뚜렷이 반영한 진보적인 소설작품의 하나이다.

일제에게 조선의 말과 글, 조선사람의 이름까지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날길 없던 시기 항일무장투쟁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그 영웅적이며 격동적인 현실의 일단을 반영한 단편소설 《강교장》의 창작은 작가의 생활체험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작가가 어린시절을 보낸 룡정으로 말하면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이름있는 고장의 하나로서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이 크게 미치

고 그 숨결이 거세차게 높뛰던 혁명적인 교장이였다.

여기서 교편을 잡고 혁명활동에도 참가하고 항일유격대의 투쟁소식도 알게 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적현실을 폐부로 느끼고 체험하였다. 이 나날에 그의 가슴속에는 항일무장투쟁과 우리 항일투사들에 대한 찬양과 지지, 동경의 마음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가 자기의 작품에서 항일유격대의 형상을 직접 창조할수 있게 한 충분한 전제로 되었다.

소설에서 특별히 이채를 띠는것은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무장투쟁에 펼쳐나선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의 활동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보고있는것이다.

《하루 아침 일어나니 지난 밤에 내 있는 학교 동네에 〈산손님〉들이 왔다갔다 소문이 짜하게 들려왔다.

그 〈산손님〉들은 하나둘이 아니라 10여명이, 빈손으로가 아니라 총까지 메었다고, 그저 막웃이 아니라 제법 누런 군복차림으로 왔었다는것이다. 잠시 들린것이 아니라 밤참까지 먹고 두시간이나 있다가 갔다는것이다.

S학교동네는 원채 두룽봉을 끼고있는 산간 산재 부락이 있는 곳으로서 평소에도 〈산손님〉들이 다닌다는 두룽봉에 왔다가 S학교에까지 내려온 모양이다. 동네사람들을 학교안에 모여놓고 (물론 더러는 학교교사바깥에 서있었다.) 선동연설을 하고 혁명가를 부르며 거기 맞춰 〈사바깨판스〉 랑 추며 즐겁게 놀다가 가버렸다는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긴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깨우치고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을 여러가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여기서도 기본은 호소력이 강한 선동연설과 인민들이 쉽게 리해하고 통속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노래와 춤을 통한 혁명적문예활동이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하게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무장투쟁으로 적극 불려일으키기 위한

대중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렸으며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고 투쟁하였다.

소설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이러한 력사적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선전선동활동을 벌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생기발랄하고 락천적인 투쟁모습을 비교적 전개된 생활화폭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해방전 항일유격대의 형상을 창조한 진보적소설 작품으로는 강경애의 중편소설 《소금》과 단편소설 《모자》도 있지만 이 작품들에 그려진 항일유격대의 모습은 주인공 봉염어머니나 승호 어머니의 시점을 통한 간접적인것이였으며 그들의 투쟁활동에 대한 묘사는 거의나 없었다.

그러나 단편소설 《강교장》에서는 《누런 군복》을 정연하게 차려입고 어깨에는 총까지 멘 항일유격대원들이 마을사람들앞에서 혁명가요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그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고 항일유격대를 도와 원호사업에도 적극 나서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모습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이 소설작품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가 있고 그 진보적가치가 있다.

소설에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를 동경하며 적극 도와나서는 우리 인민의 원군기풍에 대해서도 잘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간도지역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일감정이 극렬한 조선사람들이고 그 조선사람의 대부분이 일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일이라면 일신을 다 바칠수 있는 혁명성이 강한 주민들이였다고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들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의 투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간도지방 인민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야말로 일신의 안일과 향락, 한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투사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물심양면의 성원을 보내였다.

소설에는 당시의 이러한 시대모습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유격대원들이 부탁한 수백킬레의 지하족을 멀리 룡정에까지 가서 얻어와 항일유격대에 보내주는 주인공 강교장의 모습과 그러한 주인공의 활동에 대하여 모르는척 하면서 왜놈순사들과 《만주국》경관놈들이 달려들어 심문할 때에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는 마을사람들의 모습...

소설작품에 그려진 이러한 생활화폭들은 비록 당시의 시대적조건과 작가가 처한 생활환경으로부터 더 깊이있게 형상되지는 못하였지만 항일유격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얼마

나 열렬한것인가를 잘 말해준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의 총포소리에서 조국해방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그날을 위해 곳곳이 살아가는 우리 인민의 굳은 신심과 의지도 비교적 깊이있게 그려보이고있다.

이것은 주인공 강교장의 형상에 집중적으로 체현되어있다.

1930년대말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우리 인민에 대한 식민지폭압과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조선국내에는 물론 괴뢰 《만주국》안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통일적인 《황민화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공립학교로 개편되면서 일본말을 모르거나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릴적부터 농사일로 자라난 순전한 판농사군》 출신으로서 《신봉은 고사하고 명절에 수당금 한푼도, 심지어 술 한잔 차례지는것도 없》이 근 30년동안 학교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온 주인공은 제 손으로 일떠세운 학교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공립학교 개편식날 마지막으로 연단에 나선 주인공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부》의 시책으로 학교를 운영할 권리와 자유마저 잃게 되었다고 야유적인 연설을 하고나서 《사립학교 폐쇄 망세》, 《공립학교 개편 망세》를 연거퍼 부른다.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그가 혈기와 기백이 왕성하던 젊은 시절에 의병투쟁에도 참가하였던 사람이기때문만이 아니였다. 여기에는 백두에서 울리는 항일전의 총포소리에서 조국해방의 래일을 굳게 믿는 주인공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것처럼 다기차게 행동할수 있었고 왜놈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여 수십년 세월 몸 담그어온 교정도 혼연히 떠나는데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인공은 또한 항일유격대에 대한 원호사업에도 남먼저 나서서 성심성의를 다하는것이며 가난에 쪼들리던 나머지 왜놈의 앞잡이노릇이나 해야 하는 순사보시험에 마음이 쏠린 아들을 무섭게 다블러세워 그로 하여금 민족적량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일깨워주시기도 하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를 등장시키고 그들의 활동모습을 의의깊게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사소한 반일적경향이나 민족자주의식의 표현도 허용하지 않았던 일제의 극악한 폭압정치하에서도 견결한 반일의지와 반항정신을 지니고 항일유격대원호사업에 적극 나서는 주인공 강교장의 형상을 인상깊게 창조하고있다.

단편소설 《강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

# 완공의 그날엔...

허 혁

그날엔...

돌격대의 기발로 숲을 이룬  
회천발전소건설장 이곳에  
산중 《바다》가 펼쳐지리  
저녁노을 붉게 물든 아름다운 호수가엔  
물오리떼 유유히 흐르리

그날엔...

거창한 언제를 부감하며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 거듭하리  
걱정에 넘쳐 시를 더치리

발파소리 함마소리 메아리치던  
저 하늘가엔  
수력타빈의 동음 울리고  
거리와 집집의 창가엔  
더 밝은 불빛이 흘러넘치리

그날엔...

우리 보금자리 뿔던 병실마다엔  
인민들의 웃음소리 높아가리  
모래배낭을 메고 뛰어가던 저 등성이엔  
번듯한 전망대가 솟아나리

언뱃을 깨물어먹던 저곳에선  
천렵의 어죽 끓이는 냄새 풍기고  
막아서는 벼랑을 까내던 그곳에선  
장난꾸러기 아이들 무릎싸움 하리

우리 장군님 높이 평가하신

대형소나무화분앞에선  
이 배경 놓치면 한이 될가  
한쌍의 신혼부부 결혼사진을 찍으리

언제의 정점  
붉은기 펄펄 휘날리던 저곳에선  
화판을 펼쳐놓은 화가  
시간 가는줄 모르리

주먹밥 나누며 말뚝잡 자던 저곳도  
그날엔  
호수밑에 잠겨버리리  
비에 젖은 군복 짜입던  
저 바위에선 복판은 휴양객들  
장기관을 띄우고 승벽 다투리  
낚시질의 진미를 맛보며 환성 올리리

허나 그날엔  
우리는 이곳에 없으리라  
아 그러나 그날엔  
장군님 또다시 불러주신 결전장으로  
장군님께 더 큰 기쁨 드릴 최전선으로  
우리는 떠나리라

강성대국의 문패  
끝내는 달고야만 승리자의 기쁨 안고  
부흥조국의 휘황한 대문  
맨 먼저 열어제낀 창조자의 궁지 안고  
우리는 조용히 떠나리라  
높아가는 인민의 행복 그려보며  
오늘보다 젊어질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며

.....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현실, 특히 항일유격대원들의 활동과 그들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우리 인민의 원군모습을 직접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시에는 비록 출판물에 발표되지 못하였지만 해방전 진보적소설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단편소설 《강교장》은 사소한 반일적요소나 민족자주의식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던 1930년대말—1940년대 전반기의 암흑의 시기에도 애국애족의 터전에서 싹트고 자라온 진보적문학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온것으로 하여 해방전 진보적문학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있

는 의의있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의 영향아래 창작된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을 발굴수집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는것은 해방전 문학사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해방전 항일혁명투쟁의 영향아래 창작되였던 문학작품들이 적지 않게 사장되어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발굴수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진보적문학유산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해나가야 할것이다.

조 웅 철

## 어머니에 대한 생각

최 남 순

1

꼭 닮았다고들 해요  
이 딸이 어머니를  
눈매며 입매...  
웃을 땐 신통하다고들 해요

마음 너그러우시던  
나의 어머니시여  
그럴 때면 거울앞에 서서  
스스로 나에게 물어보아요

이웃들에게  
무엇이든 모자라면  
있는껏 성큼 쥐여주시던  
그 큰손을 내가 닮았는가

직장일이라면  
밥술을 쓰시다가도  
서둘러 달려가시던  
그 충충한 걸음새를 내가 닮았는가

그러면 거울속에선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불갈던 어머니가  
오, 그렇게 살라고 날 마주 웃어요

2

어머니소원대로  
내 교단에 서던 날  
어머니 계셨다면  
너무 기뻐 우셨으리라는  
형제들의 말  
가슴에 사무치던 그날

그날부터  
그저 맑기만 하던  
나의 목소리엔  
후더분하던  
어머니의 어조가 깃들고

그날부터  
시험지에 점수를 매기는  
나의 손길에조차  
매 드셔도 뜨겁던  
어머니의 온기가 흘러

오 그날부터  
내 하는 모든 일엔  
나의 땀과 함께  
어머니의 땀도 깃들었으니

어머니는  
한생 나라위해 사시고도  
정녕 모자라는것만 같아  
이 땅에  
나를 남기신것 아니던가

어머니의 삶은  
헛됨 없을 나의 생을 거쳐  
또다시 나라에  
뜨겁게 바쳐지는것 아니던가

3

때로  
나에겐 있다  
눈감아준 제자의 잘못을 두고  
뒤채이며  
잠 못드는 그런 밤이

때로  
나에겐 있다  
채찍질한 제자의 결함을 놓고  
내가 아파  
잠 못드는 그런 밤이

그런 밤들이면  
가슴속에 파고드는 생각  
이럴 때 이럴 때  
그들의 어머니라면

어머니라면...  
어머니라면...

사람이 살아가며  
어찌 그르치는 일 없으랴만  
그보다 더한 불행은  
안타깝게 깨우쳐주는이 없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질책할줄 모르고  
뜨겁게 품어줄줄 모른다면  
자식 말긴 한없는 기대를 안고  
날 향해 숙어지는  
그 어머니들의 희여진 머리앞에  
내 어찌 뿔뿔이 설수 있으랴

때로 모질었다고  
때로 인정 물렸다고  
제자들의 일로 잠 못드는 그런 밤이면  
언제나 가슴속에 파고드는 생각

어머니라면...  
어머니라면...

#### 4

어릴적 나이보다 먼저  
어머니 지어놓고 기다려주신 새옷이며  
발뒤축 들어가며 파고싶던  
어머니 가꾸신 앞뜰의 살구나무열매는  
어서 크라 나를 부르던  
사랑의 세계였다

그날처럼 오늘도  
나는 크고싶구나  
늘 훌륭한 대답만을 바라며  
날 믿어 바라보는 제자들의 지혜론 눈빛앞에서

크고싶구나 나는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 쌓은 지성을 돌파할 목표로 삼을수 있도록  
크고싶구나 나는  
내 작은 어깨만 딛고 올라서도  
인류가 무르익힌 과학의 열매를 다 딸수 있도록

오 그럴수만 있다면  
천백밤을 밝히며

번져가는 책장과 책장들이여  
나를 떠받들어 내 발밑을 높이 고여다오  
날마다 오르는 교단이여  
세계를 굽어보는 조국의 자존심으로 더 높아져다오

크고싶구나 나는!  
날 믿어 바라보는 제자들의 맑은 눈빛앞에서  
그 눈빛이 바로  
사랑으로 나를 키운 어머니조국이  
내앞에 펼쳐놓아준 보답의 세계이기에  
바치고픈 내 심장이 마주선  
오 가슴벅찬 나의 시대이기에

#### 5

그저  
내 어머니만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웃음 나의 모습을 두고  
학생들은 말하더라

힘든 일 있어도  
피로운 일 있어도  
교탁우엔 언제나 밝은 웃음만을 떠올리는  
나의 모습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본다고

이 얼마나 가슴 울렁이는 말인가  
내 한생  
미래가 안겨준  
삶의 좌우명으로 새기고픈 이 말...

나는 늘 따뜻하게 웃고프다  
언제나 눈부시게만 비쳐드는  
교정의 해빛에  
내 웃음 한줄기 해살로 보태이고싶어

나는 항상 열렬하고프다  
나날이 행복해지고 강해지는  
조국의 높뛰는 녋을  
래일을 부르며 강의실에 울리는  
내 목소리에 깃들이고싶어

이 해빛...  
바람찬 전선길 걸으시며  
우리 장군님 미래 향해 보내시는 사랑의 미소여서  
이 행복...  
긴긴세월 자신을 불같이 바치시며



우리 장군님 안아오신 조국의 번영이어서

내 정녕

닦아가는 모습은

인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헌신의 모습

아 나의 어머니도

그 사랑 받들어

자식을 위한 모상에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더 세차게 지퍼간것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어머니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위대한 헌신을 이 땅에 전할수 없어

이 나라 딸들은

돌에 서면 벼모도 아기모라 부르며

푸른 벌 품어안는 어머니로 살더라

기대앞에 서면 나의 기대라 부르며

숨결있는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더라

나 또한

단발머리 그 시절부터

인생의 정 교단에 짱그리 바치는

어머니가 되어 미래앞에 나선것이거니

났을 기울여 이 나라 방방곡곡에 내세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장군님기쁨 되기를 한생의 소원으로 간직

누구나

어버이장군님을 닮아

어머니사랑으로 사는 땅

이 땅이 어찌

행복해지지 않으랴

강해지지 않으랴

한생의 소원으로 키운

귀한 딸들이 자식들이

조국의 모습을 비껴안고 장하게 산다면

살아계시는 어머니도

이 좋은 오늘을 위해 생을 바친 어머니도

정녕 너무 기뻐 우시리라

내 진정

미래의 맑은 눈빛속에서

조국의 모습으로 뜨겁게 살련다

티없는 생의 맑은 거울같은 저 푸른 하늘

어머니를 꼭 닮았다는 맑은 웃음 뿌리니

오 그렇게 살라고 눈부신 태양이 날 마주 웃는